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394-01

정책보고서 2018-101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김태완 · 김기태 · 정세정 · 이주미

【책임연구자】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기준중위소득 안정성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공저)

【공동연구진】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 한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발간사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8년 1, 2분기 국민의 가구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소득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내부적으로는 국내 경기침체로 단기일자리 종사자의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외에 고령화 및 (영세) 자영업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유가의 지속적 상승과 세계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도 소득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통계청은 소득조사 일원화를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대체하여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대내외적으로 가계동향조사의 유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분기소득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침체와 통계청 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해 2018년 분기소득이 전년대비 줄어들고 있는 점과 관련해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대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소득분배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무슨 요인으로 인해 빈곤 및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지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김태완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김기태 부연구위원, 정세정 부연구위원, 이주미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처음과 끝을 함께 해준 보건복지부 관계자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사회복지, 빈곤 등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분야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연구진은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진의 개별적 연구 활동의 결과임을 밝힌다.

2018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3
제1절 소득분배 지표의 이론적 검토	15
제2절 조사자료 특성: 가계동향조사 변화 분석	20
제3장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기초분석: 분기중심	27
제1절 분위별 소득분포 비교	29
제2절 저분위 가구의 특성별 소득분배 실태분석	47
제4장 가구특성별 빈곤동태 분석	65
제1절 생애주기별 빈곤동태	67
제2절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	86
제3절 저소득 가구 특성 및 분위이동 특성	97
제5장 정책제언	11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15
제2절 정책제언	119
참고문헌	123
부록	125

표 목차

〈표 2-1〉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조사대상 비교	22
〈표 2-2〉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기준	22
〈표 2-3〉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24
〈표 2-4〉 가계동향조사 향후 계획	25
〈표 3-1〉 중위소득 50~150% 분포(전 가구)	31
〈표 3-2〉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변화	34
〈표 3-3〉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 구성비 (5분위)	35
〈표 3-4〉 전가구 1, 5분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비교	36
〈표 3-5〉 전가구 분위별 주요소득 소득변화 (10분위)	36
〈표 3-6〉 주요소득별 전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37
〈표 3-7〉 가구주 연령에 따른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변화	38
〈표 3-8〉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구성비	40
〈표 3-9〉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수준	41
〈표 3-10〉 저분위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42
〈표 3-11〉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급 비율 (5분위)	44
〈표 3-12〉 저분위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급 비율	46
〈표 3-13〉 분위별 가구주 연령분포	48
〈표 3-14〉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수	49
〈표 3-15〉 분위별 가구원수 분포	50
〈표 3-16〉 저분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51
〈표 3-17〉 취업자 수 및 근로자가구 분포	52
〈표 3-18〉 근로자 가구 및 근로자 외 가구 별 취업자 수	53
〈표 3-19〉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 (5분위)	55
〈표 3-20〉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연령 분포	56
〈표 3-21〉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연령 분포 (5분위)	57
〈표 3-22〉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연령 분포 (20분위)	58
〈표 3-23〉 저분위 가구주 특성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수급여부	60
〈표 3-24〉 저분위 가구주 특성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평균액	61
〈표 3-25〉 저분위 가구주 특성별 비율 변화	62
〈표 4-1〉 유형별 빈곤의 동태적 변화 (2017년 연령기준)	69

〈표 4-2〉 청년의 빈곤경험 (2017년 연령기준)	70
〈표 4-3〉 노인의 빈곤경험 (2017년 연령기준)	71
〈표 4-4〉 청년(19~34세)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73
〈표 4-5〉 중년(35~49세)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75
〈표 4-6〉 중고령(50~64세)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76
〈표 4-7〉 노인(65세 이상)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78
〈표 4-8〉 19~24세, 25~34세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80
〈표 4-9〉 65~74세, 75세 이상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83
〈표 4-10〉 경제활동 유형별 사회보험 미가입률	94
〈표 4-11〉 소득 하위 10% 미만 특성 (2005~2010)	99
〈표 4-12〉 소득 하위 10% 미만 특성 (2011~2017)	101
〈표 4-13〉 소득 하위 10~20% 미만 특성 (2005~2010)	103
〈표 4-14〉 소득 하위 10~20% 미만 특성 (2011~2017)	105
〈표 4-15〉 3개년 간 소득 분위 이동 비교	107
〈표 4-16〉 3개년 간 소득 분위 이동성 (2007~2009)	107
〈표 4-17〉 3개년 간 소득 분위 이동성 (2011~2013)	108
〈표 4-18〉 3개년 간 소득 분위 이동성 (2015~2017)	108
〈표 4-19〉 소득 하위 1분위(소득 20% 미만)에서 상위분위로 이동자 특성	110
〈표 4-20〉 소득 2분위(소득 20~40% 미만)에서 소득 1분위(소득 20% 미만)로 하락한 이동자 특성 ..	111
〈부표 1〉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변화 (10분위)	125
〈부표 2〉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변화 (20분위)	125
〈부표 3〉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구성비	126
〈부표 4〉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수준	127
〈부표 5〉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5분위)	128
〈부표 6〉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10분위)	130
〈부표 7〉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20분위)	131
〈부표 8〉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급 비율 (10분위)	133
〈부표 9〉 분위별 가구주 연령분포	134
〈부표 10〉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 (10분위)	136
〈부표 11〉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 (20분위)	136

〈부표 12〉 분위별 가구원수 분포	137
〈부표 13〉 분위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5분위)	138
〈부표 14〉 분위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10분위)	140
〈부표 15〉 분위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20분위)	142

그림 목차

[그림 1-1] 지니계수 추이	7
[그림 2-1] 로렌즈 곡선	16
[그림 3-1] 소득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29
[그림 3-2]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 추이	30
[그림 3-3] 중간계층 분포	31
[그림 3-4]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소득변화	33
[그림 3-5] 저분위별 소득대비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 비율 변화	37
[그림 3-6] 2018년 3분기 가구주 평균연령 및 연령별 분포	47
[그림 4-1] 유형별 빈곤의 동태적 변화 (2017년 연령기준)	69
[그림 4-2] 19-24세 청년의 유형별 빈곤 경험률	70
[그림 4-3] 75세 이상 노인의 유형별 빈곤 경험률	72
[그림 4-4] 청년(19-34세)의 빈곤 유지 변화	73
[그림 4-5] 청년(19-34세)의 빈곤 추락 변화	74
[그림 4-6] 중년(35-49세)의 빈곤 유지 변화	75
[그림 4-7] 중년(35-49세)의 빈곤 추락 변화	76
[그림 4-8] 중고령(50-64세)의 빈곤 유지 변화	77
[그림 4-9] 중고령(50-64세)의 빈곤 추락 변화	77
[그림 4-10] 노인(65세 이상)의 빈곤 유지 변화	79
[그림 4-11] 노인(65세 이상)의 빈곤 추락 변화	79
[그림 4-12] 19-24세의 빈곤 유지 변화	81
[그림 4-13] 19-24세의 빈곤 추락 변화	81
[그림 4-14] 25-34세의 빈곤 유지 변화	82
[그림 4-15] 25-34세의 빈곤 추락 변화	82
[그림 4-16] 65-74세의 빈곤 유지 변화	84
[그림 4-17] 65-74세의 빈곤 추락 변화	84
[그림 4-18] 75세 이상의 빈곤 유지 변화	85
[그림 4-19] 75세 이상의 빈곤 추락 변화	85
[그림 4-20] 정규직과 비정규직 변화 비율	87
[그림 4-21]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추이	88
[그림 4-22] 성별 시간제 노동자 인구 변화 추이	89

[그림 4-23] 학력 수준에 따른 비정규직 변화 추이	90
[그림 4-24] 자영업자,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의 상대적 인구 비중의 변화	91
[그림 4-25]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의 변화 양상	92
[그림 4-26] 경제활동 유형별 균등화 경상소득 변화	93
[그림 4-27] 경제활동 유형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변화	93
[그림 4-28] 대/중/소 기업에 종사하는 가구 유형에 따른 균등화 경상소득 추이	95
[그림 4-29] 대/중/소 기업에 종사하는 가구 유형에 따른 균등화 가처분소득 추이	9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 보고서는 2018년 들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소득분배 현황과 악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한 연구내용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분석을 통한 소득분배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외에 최의 분배 현상이 2018년 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기적 영향 혹은 다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빈곤동태, 노동시장, 저소득층의 소득변화 등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를 보면, 1분위(소득 하위 20% 미만)의 소득 감소폭이 1분기는 $\Delta 2.8\%$ 에서 2~3분기는 $\Delta 10.2\%$, $\Delta 8.4\%$ 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공적이전소득을 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65세 이상층 소득분위가 60% 이상의 계층에서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수혜금은 저분위 중에서 34세 이하 혹은 35~49세 사이의 가구주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주요한 소득보장으로서 활용되고 있었으며, 사회수혜금은 고용 및 산재 보험 등의 급여를 통해 저분위 청장년층(50대 이하)의 가구들에게 주요한 생계를 유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미만 저분위의 경우 60~70%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1~2인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2017년과 2018년 주목할 변화는 34세 이하, 1인 청년가구가 저분위에서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34세 이하 1인가구로 소득 하위 20% 이하의 비율이 2017년 1분기 1.2% → 2018년 1분기 3.3%, 2017년 2

분기 1.6% → 2018년 1분기 4.1%, 2017년 3분기 1.4% → 2018년 1분기 3.5%로 늘어나고 있었다. 2018년은 2017년 대비 저분위에서 소득이 감소하였으며, 노인계층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가적으로는 새롭게 청년 독거가구가 조금이지만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유형별 빈곤 동태 변화를 보면, 장기 빈곤 경험률은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19~34세)과 중년층(35~49세)은 비빈곤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청년층과 중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장기빈곤과 반복빈곤을 합할 경우 약 25~33%에 이른다는 점에서 청년기와 중년기의 빈곤문제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과 노년기의 연령을 세분해 분석해 보면, 청년의 경우 25~34세보다는 19~24세의 빈곤 경험률이 높았으며, 특히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24세의 장기빈곤 경험률(22.51%)이 높이 추정되었다. 노인의 경우에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장기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장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보면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동안 정규직의 비율은 완만하게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그만큼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 성별에서 차이를 보여 남성 비율은 1% 포인트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여성 비율은 5.2% 포인트 증가해, 남녀 사이 비정규직 비율의 격차도 11.8%에서 18.0%로 크게 벌어졌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증가율은 대체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업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여, 대기업 종사 노동자 가구의 소득을 1로 놓았을 때, 2005년에는 중기업 가구의 소득이 0.85배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0.81배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소기업에 종사 가구의 소득은 0.63배에서 0.73배로 소폭 개선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노동시장내의 지속적인 분화 현상은 다양한 차별의 양상을 드러내어 불안정 노동이 여성,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심화하고 있었다. 또한 자영업자와 일용직에 전취 임시직의 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를 놓고 보면, 대/소기업보다 중견기업 종사자의 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3. 정책제언

분석결과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첫째가 65세 이상 노인계층이며, 이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 노인독거 및 노인부부가구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었다. 둘째는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정부정책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중고령층과 청년으로 1~2인 청년가구들이다. 셋째는 언제든지 시장상황 혹은 개인 및 가구 여건에 따라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65세 이상 노인 특히 75세 이상 고령노인과 노인독거, 노인부부를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지원 조정 기간을 앞당겨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등을 조정하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는 우선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1~2인 가구의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조정하여 이들 대상을 먼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급여조정으로 인해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연구를 통해 이들 노후소득보장제도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신규 취약계층인 중고령층, 청년독거 가구를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적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우선 되어야 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주요용어: 소득분배, 가계동향조사, 저소득층, 빈곤동태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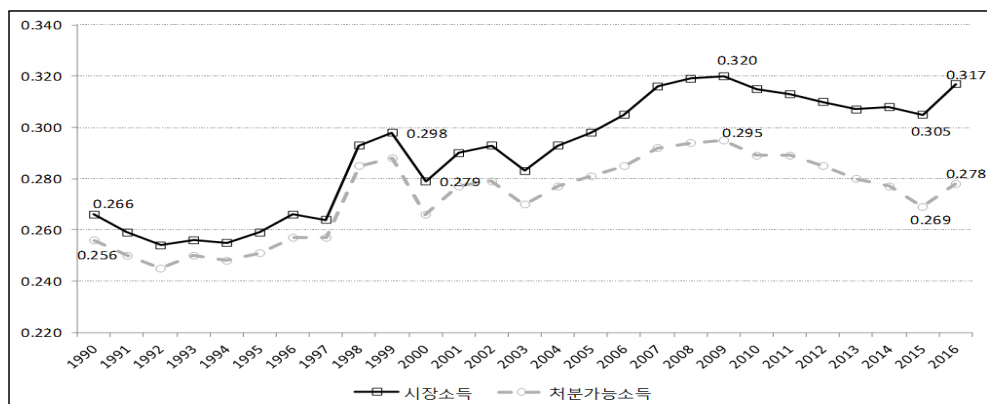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및 불평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며(강신욱 외 2013; 여유진 외, 2015; 강신욱 외 2018; 유경준 외 2018), 그 원인에 대한 진단도 다양하게 연구되어 온 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18년 들어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된 통계가 발표되면서 소득분배 실태와 악화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고 주장된 바(경기침체, 노동시장 유연화 등)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 들어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변화(특수고용 노동자 증가,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등)가 빈곤을 높이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시기 지니계수 변화를 보면 지니계수가 크게 변동한 시기는 외환위기 전후(1998년)로 변화를 보였으며, 글로벌 경제금융위기인 2008~2009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다가 가장 최근 시점인 2016년에 다시 증가되면서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현황이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1-1] 지니계수 추이



주: 2인이상 도시가구(농어가 제외)

자료: KOSIS,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각 년도.; 유경준 외(2018), 소득양극화 개선방안, KDI, p61.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위기 이전의 소득분배 수준으로 여전히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이속에서 분배가 더 악화됨으로써 서민, 중산계층의 삶의 질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주요 소득분배 악화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빈곤 지속, 청년실업의 증가, 불안정 고용 상황에 따른 비정형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등의 문제가 지적 되고 있다(유경준 외, 2018).

최근에는 대외적인 경기악화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두가지 측면에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변화가 발생하였다. 첫째, 소득분배지표를 생산하는 통계청 소득기준 조사 자료가 변경되었다. 2016년까지 주요한 소득기준 자료이었던 가계동향 조사가 2017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되었으며, 기존 가계동향조사는 간이소득조사의 형태로 대체되어 발표되었다. 즉 조사자료 변경에 따른 분배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19년에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 도달해야 안정적인 분기소득통계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보도자료, 2018.09.18.).

둘째,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소득보장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미치는 부수적인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실태파악이 중요해 졌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이 있는 가구중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기초연금 급여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9월부터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장기적으로는 2019년에는 기초연금이 노인 소득하위 20%에 대해 우선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주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저소득 근로자 등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크게 확대하였다.

대표적으로 통계청의 소득조사 변경에 따른 영향을 보면, 2018년 1분기 통계청 소득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소득5분위 배율이 지난 분기에 비해 확대되고,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5월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된 바에 따르면 하위 20% 가구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표적인 분배지표 중 하나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은 통계 작성 사상 최고치인 5.95배를 기록하였다. 통계청 소득조사를 통한 2018년 1분기 소득동향 발표 후 1분위 가계소득 감소 원인 파악을 위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소득분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원시자료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하며, 각 계층별 소득변화를 살펴보고 어느 계층이 전년 동분기 대비 소득 하락에 큰 영향을 받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제공 소득 및 지출 조사의 변화에 대응하여 분기자료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소득분위별 최근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분위에 따른 가구특성 및 소득 상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흐름과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횡단면 분석 뿐 만 아니라 어느 계층에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동 경향이 단기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각 가구의 분위별 진입/출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는 등 동태적인 분석을 통해 가계소득에 영향을 받는 가구에 대한 세부적 파악이 요구된다.

우리 연구는 2017년 이후 개편된 통계청 소득조사의 내용과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소득분배 및 저소득층의 소득 및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 소득 및 지출조사 확대 개편이후인 2006년 이후의 소득분배 및 저소득층의 변화를 파악하고 최근의 흐름과 비교 분석하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파악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소득변화가 단기적 관점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소득분배 관련 동태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우리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소득분배 및 빈곤 동향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소득분배 및 빈곤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적으로 이들 소득분배 지표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장에서는 동 지표들을 활용해 최근의 소득분배 및 빈곤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올해 변경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동 조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향후 개편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활용도가 지속가능한 것이지 살펴보았다.

분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최근의 소득분배 및 빈곤지수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첫 번째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 2018년 이후 분기별 소득조사 결과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2017년 이후 2018년까지 분기별 소득변화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소득과 더불어 각 가구 혹은 가구원 특성이 변함에 따라 소득분배에 준 영향을 함께 살펴보았다(생애주기별, 노동시장 등).

두 번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분배 및 빈곤지수 관련 동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저분위 진출/입 가구특성에 대한 동태적 특성 파악, 노동시장 환경 변화(예, 근로자 → 자영업)에 따른 소득 및 지출 변화, 생애주기별·자산·노동시장 참여 형태별 등에 따른 소득분배 및 빈곤지수에 미친 영향을 시간변화에 따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통계분석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위해 취약계층 및 빈곤층 보호를 위한 소득보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 연구방법

우리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 현황을 위해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기존 소득동향 및 소득분배 관련 선행연구와 소득분배 및 빈곤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미 여러 연구 등에서 소득분배 및 빈곤지수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그 특징만을 간단히 기술하였다.

문헌연구로서 두 번째는 올해 사회적 논쟁이 많이 있었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역사적 흐름과 특징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소득 및 지출 통계로서 수십년 간 주요한 역할을 해 왔던 가계동향조사가 최근 존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그 분석결과 등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홍민기, 2018). 여기서는 가계동향조사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 특징과 향후 방향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소득분배 및 빈곤 동향에 대한 분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기초자료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6년 이후 분기 및 연간소득, 2017년 및 2018년 간이소득조사에 기초한 분기 소득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변화와 소득이 어느 층에 많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소득분배 변화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흐름속에서 계층간, 노동시장 참여 형태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005년~2016년까지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소득 및 지출에 대한 동태변화 분석을 통해 단기가 아닌 장기간의 시간 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 간 어느 계층, 노동시장 참여형태 등에 따라 소득, 자산 등이 변하고 무슨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2018년 경기침체로 인해 저소득층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동향조사 및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소득분배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또한 최근의 소득동향 및 가구 특성변화 파악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대책 수립에 있어 긴급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외에 가계동향조사의 최근 변화, 변화된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우리나라 가구들의 소득변화를 다양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기변동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연구의 한계로는 단기간에 걸쳐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다양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웠으며,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에 관심을 둠으로써 현재 소득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한계 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가계동향조사의 시점은 2018년인 반면에 한국복지패널의 시점은 2017년까지로 조사결과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있어 시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독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소득분배 지표의 이론적 검토

제2절 조사자료 특성: 가계동향조사 변화 분석

2

이론적 배경 <<

제1절 소득분배 지표의 이론적 검토

이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소득분배 지표와 빈곤지수에 대해 살펴보고, 각 지표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 이론적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선행연구 등을 참조하여 지표들을 재인용하고 부연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1. 불평등지수

가. 분배율

분배율은 대표적이고 쉽게 사용되는 불평등지수이다. 소득 및 지출을 가장 작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나열하여, 상대적 방식을 통해 소득수준을 비교한다는 점에서 원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쉽게 해석과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 분배지수이다.

분배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되고 있는데, 소득 및 지출수준에 따라 분석대상 가구를 10분위로 구분한 후 각 분위의 경계점 및 점유율을 기준으로 분위별 배율을 산출함으로써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각 분위의 경계선을 활용하는 것은 백분위율(percentile)을 사용하게 되며, 각 분위에 해당되는 가구 혹은 개인의 소득 및 지출의 합 또는 평균을 활용하는 방식은 소득배율 방식을 취하게 된다. 소득분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5분위 소득배율, 10분위(decile) 소득배율, 20분위(ventile) 소득 배율 방식 등이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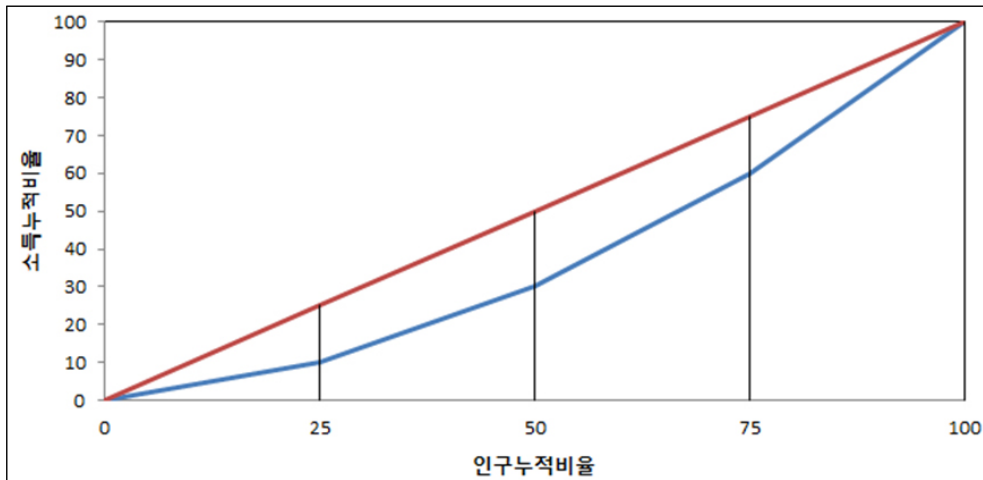
- $P90/10$ = 상위 10% 기준 / 하위 10% 기준
- $P90/50$ = 상위 10% 기준 / 중위소득지출 기준

- $P80/20$ = 상위 20% 기준 / 하위 20% 기준
- 5분위 소득배율 = 상위 20% 점유율 / 하위 20% 점유율
- 10분위 소득배율 = 상위 10% 점유율 / 하위 10% 점유율
- 10분위 분배율 = 하위 40% 점유율 / 상위 20% 점유율

나.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불평등지수로 가장 일반화되고 많은 연구자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 불평등지수이다. 지니계수는 로렌즈 곡선을 통해서도 쉽게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로렌즈 곡선(Lorenz Curve)은 1905년에 로렌즈에 의해 제안된 곡선으로 소득분배 상태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구를 낮은 소득에서부터 높은 소득순으로 나열한 후, 인구의 누적비율(수평축, X축)과 소득의 누적비율(수직축, Y축)이 만나는 점을 선으로 연결한 것이 로렌즈곡선이다(이준구, 2003).

[그림 2-1] 로렌즈 곡선



로렌즈 곡선의 경우 소득이 낮은 사람이 왼쪽에 위치함에 따라 형태는 Y축을 기준으로 볼록(Convex)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만약 인구누적비율에 따라 소득누적비율이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시 로렌즈 곡선은 45°선이 되며 직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인

구누적비율에 따라 소득누적비율이 동일하게 분포할 경우 곡선은 45° 직선의 형태를 띠게 되며, 완전평등(Perfectly equal: equidistribution line)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모든 사람의 소득이 0이고 마지막 한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질 경우 로렌즈 곡선은 100%선상의 수직선의 형태를 지니게 되며, 완전 불평등(Perfectly unequal)이라고 한다. 로렌즈 곡선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L(\frac{k}{P})$ 가 가지는 범위는 0과 1사이이다.

$$L(\frac{k}{P}) = \frac{\sum_{i=1}^k y_i}{Y}$$

$k = 1, \dots, n$ $i = 1, \dots, k$: 소득분배상에서 각 개인의 위치

P : 개인의 총수 y_i : i 번째 사람의 소득

$\sum_{i=1}^k y_i$: k 번째 사람까지의 소득의 누적합

로렌즈곡선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분배상태에 대한 비교와 분배상태가 개선 혹은 악화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널리 사용되어온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지니(1912)에 의해 고안된 지수로 로렌즈 곡선을 통해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위와 같은 로렌즈 곡선에서 절대적 평등선(사선)과 로렌즈곡선 간의 차이의 비율(ratio)-사선 아래쪽의 삼각형 지역-을 의미 한다. 지니계수를 정의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이정우, 2010).

$$\begin{aligned} G &= (1/2n^2\mu) \sum_{i=1}^n \sum_{j=1}^n |y_i - y_j| \\ &= 1 - (1/n^2\mu) \sum_{i=1}^n \sum_{j=1}^n \text{Min}(y_i, y_j) \\ &= 1 + (1/n) - (2/n^2\mu)[y_1 + 2y_2 + \dots + ny_n] \text{ for } y_1 \geq y_2 \geq \dots \geq y_n. \end{aligned}$$

2. 빈곤지수

가. 빈곤율(Headcount Ratio: H)

빈곤율은 영국의 라운트리(Rowntree, 1901)이후 가장 많이, 쉽게 사용되어온 빈곤 지수로서 Poverty Ratio 혹은 Headcount Ratio라고 부르고 있다. 쉽게 말해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의 소득(혹은 지출)을 가지는 사람(혹은 가구)을 전체 인구(혹은 가구)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김태완 외, 2009).

$$HR(y, z) = \frac{q}{n}$$

HR은 빈곤율¹⁾, q는 소득(또는 지출)이 빈곤선 이하인 인구(혹은 가구)수이며, n은 전체 인구(혹은 가구)수를 나타내며 y는 개인(혹은 가구)소득(혹은 지출), z는 빈곤선을 의미한다.

나.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 및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

빈곤갭(=격차)은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선과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혹은 지출)과의 차이를 계산한 값을 의미한다. 개인(혹은 가구) n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빈곤층에 속한 개인(또는 가구) i의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차($g_i = \pi - x_i$)로 정의된다.

총빈곤갭은 빈곤층 전체 빈곤갭을 합한 $\sum_{i \in \pi(x)} g_i = \sum_{i=1}^q (\pi - x_i)$ 가 된다. 빈곤갭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소득을 빈곤선 상태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액수를 의미한다. 총빈곤갭은 미국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 the US)에서 개발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빈곤지수이다.

1) 빈곤율은 head-count ratio를 우리말로 표기한 것인데, 빈곤측정 단위가 가구일 경우 빈곤가구율, 빈곤 측정단위가 개인일 경우 빈곤인구율로 표기하여 측정단위의 차이에 의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위에서 구한 총빈곤갭을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개인(혹은 가구)의 수에 빈곤선을 곱한 액수로 나눌 경우 소득갭 비율(Income gap ratio)이 되며, 수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IGR = \frac{\sum_{i=1}^q (z - y_i)}{q z}$$

여기서 IGR은 소득갭 비율, z 는 빈곤선을 나타내며, y_i 는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속한 개인의 소득(혹은 지출), 그리고 q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개인(또는 가구)의 수를 나타낸다. 위에서 추정한 소득갭 비율에 빈곤율을 곱할 경우, 빈곤갭 비율(Poverty Gap ratio)이라 부른다. 즉, $PGR=HR \times IGR$ 이며, 소득갭 비율의 공식에서 분모가 빈곤선 이하(혹은 미만)에 있는 사람(혹은 가구)수가 아닌 사회 전체의 사람(혹은 가구)로 나타낼 수 있다.

$$PGR = \frac{\sum_{i=1}^q (z - y_i)}{n z}$$

3. FGT지수

FGT지수는 1981년 Foster, Greer와 Thorbecke이 제시하였으며 이들 이름의 첫 자를 따서 FGT로 명명되고 있다. FGT지수는 다른 빈곤지수와는 달리 파라미터 α 의 값에 따라 다소 상이한 기능을 하는데 파라미터 α 는 빈곤에 대한 혐오감(aversion)을 나타내주는 파라미터로서 α 값이 커질수록 이 지수는 빈곤에 대해 민감해진다. 이 지수는 빈곤층의 규모(extent)와 빈곤정도(depth)의 유의성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김태완 외, 2009).

$$FGT_{\alpha} = \frac{1}{n} \sum_{i=1}^q \left[\frac{\pi - x_i}{\pi} \right]^{\alpha}$$

여기서 FGT_{α} 는 파라미터 α 인 FGT지수, n 은 전체 인구(또는 가구)수, q 는 빈곤선

이하의 개인(또는 가구)수, π 는 빈곤선, x_i 는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 i 의 소득, α 는 빈곤혐오감(poverty-aversion)을 나타내는 파라미터($\alpha \geq 0$)이다. 만약 빈곤선(π)이 증가하면 FGT지수는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π 의 증가함수이다. 이 지수는 소득에 대칭적이며, α 가 0보다 큰 경우 소득(x)과 빈곤선(π)에 대하여 FGT α 는 연속이다.

FGT지수는 파라미터 α 의 값에 따라 빈곤의 규모(extent), 심도(depth), 그리고 분배를 고려할 수 있는데, $\alpha = 0$ 인 경우, $FGT_{\alpha=0} = \frac{1}{n} \sum_{i=1}^q [\frac{\pi - x_i}{\pi}]^0 = \frac{q}{n} = HR$ 이므로 빈곤율과 동일하며 따라서 빈곤의 규모(extent)를 나타낸다. $\alpha=1$ 인 경우, $FGT_{\alpha=1} = \frac{1}{n} \sum_{i=1}^q [\frac{\pi - x_i}{\pi}]^1 = HR \times PGR$ 이므로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을 곱한, 즉 빈곤의 규모(extent)와 심도(depth)를 나타낸다. FGT 계수는 파라미터 값에 따라 빈곤율, 빈곤갭 비율을 보여주는 편리한 빈곤계측 지수이며 주로 세계은행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제2절 조사자료 특성: 가계동향조사 변화 분석²⁾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1963년 시작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소득 및 지출관련 통계이다. 초기 조사는 1950년 당시 서울에 거주 봉급생활자 120가구를 시초로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국가 통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은 1963년부터라 볼 수 있다(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의 처음 시작은 한국은행과 함께 진행하였지만 1963년부터 국가통계 강화 목적으로 통계청으로 조사사업이 이관되면서 통계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9번에 걸쳐 표본설계 변경(1969년, 1972년, 1977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을 통해 표본개편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루어졌다(통계청, 2016). 최근 2017년과 2018년은 소득조사 일원화에 따라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지출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개편이 진행되었지만, 2018년 재 논의를 거쳐 이후에도 소득과 지출이 존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18년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절의 주요내용은 김태완 외(2017), 기준중위소득 안정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5~68의 주요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초창기 가계동향조사는 도시에 거주하는 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03년 전까지 유지되었다. 즉 전국적인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1997년과 1999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우리나라 소득 및 지출통계에 대한 문제점(근로자가구 중심, 1인가구·농어가가구 제외 등)이 제기되면서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사대상 가구가 확대되고 외부공개 소득 및 지출자료의 범위가 개선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조사대상 가구 표본의 확대를 보면, 2003년 이전 근로자가구에서 2003년부터는 읍·면에 거주하는 비농어가 가구까지 확대되었으며, 조사명칭도 기존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변경되었다.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도시민들의 소득 및 지출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1인가구, 농어가 가구에 대한 조사가 제외되어 있으며, 2인 이상 도시민의 경우에도 2인 이상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비근로자(예,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도시가계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1, 1996년, 2000년에 1인가구 및 비근로자의 소득까지 모두 포함된 가계소비실태 조사가 진행되고 외부에 공개된 바가 있다. 2003년부터는 자료의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까지 조사영역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가계조사의 경우에도 1인 및 농어가가구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 가계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들에 대한 소득 및 지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역시 비근로자가구들의 경우에는 가구구분 코드(자영업자, 상인, 경영자, 무직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2006년에는 표본에 1인가구가 포함됨으로써 우리나라 가구 대표성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명칭도 “가계조사”에서 “가계동향조사”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농어가가구는 포함하지 않는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2008년 이후 농어가 경제조사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소득분배 통계를 생산하면서 동 자료에 한 해서 농어가가 포함된 소득분배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동 자료의 원시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

〈표 2-1〉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조사대상 비교

구분		도시가계		가계(동향)조사	
조사대상		전국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		전국에 거주하는 1인 이상 가구 (농어가 제외)	
가구 구분	근로자가구	사무직+생산직	전가구	사무직+생산직	전가구
	근로자외가구	자영자+무직		자영자+무직	
	농어가가구	×		○ (소득분배자료에서만 포함)	

외부로 공개되는 자료인 원시자료(raw data)는 조사대상 확대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제공 자료가 확대 되어 갔다. 가계동향조사로 확대되기 이전 2008년까지는 구분 류라고 하여 도시가구 중심의 자료가 1982년부터 2008년까지 제공되었다. 2003년 읍면의 비농어가가구가 포함되면서 부터는 전국자료로 하여 역시 2003~2008년까지 원시자료가 공개되었다. 2009년 이후에는 기존 제공 통계를 재수정하는 작업을 거쳐 원시자료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제공연도 기준은 1990년 이후로 하고 있다.

〈표 2-2〉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기준

구분	자료성격	자 료	제 공 방 식	차 이
구분류 (‘08 이전)	원시자료	도시자료 (2인 이상)	1982~2008	-연간자료는 모 든 세분류 항목 까지 제공 -분기자료는 중분 류항목만 제공
	원시자료	전국자료 (2인 이상)	2003~2008 -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外)의 가구를 구별 하여 소득부분 항목에 제공에 제한이 있음 - 월 구분 없음 ※ 1982부터 5년에 걸친 항목분류 변경에 대해 항목연결이 되어있지 않음 ※ 2006년부터 1인가구를 포함하여 조사 시작	
신분류 (‘09 이후)	추계자료	도시자료 (2인 이상)	1990~2008 - 2009년 개편 기준 COICOP분류체제로 소급 추계 작성 ※ 2006년부터 1인가구 포함	- 모든 항목(세분 류) 동일 제공
	추계자료	전국자료 (2인 이상)	2003~2008 - 2009년 개편 기준 COICOP분류체제로 소급 추계 작성 ※ 2006년부터 1인가구 포함	
	원시자료	도시자료	2009~	
		전국자료	2009~	

자료: 통계청(2016).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p53. 재인용

가계동향조사가 가진 주요한 변화는 소득 및 지출통계의 연간집계방식을 변경한 점과 소득분배 통계의 대표성을 기하기 위해 소득분배자료에 한해서 농어가가구의 소득자료가 포함되어 제공된다는 점이다³⁾. 연간집계방식의 변경이란 기존 조사(2011년 이전)에서는 동일 가구를 분기별로 조사함에도 연간자료에서는 동일가구를 별도의 3개 가구로 간주하여 연간통계를 작성하였다면(→같은 가구를 매월 반복조사 함에도 연간자료 공개시는 이를 개별가구로 가정하여 제공하는 방식), 2011년부터는 동일가구가 3개월 조사를 해도 별도가구가 아닌 연간 평균을 만들고 하나의 가구의 간주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소득분배 제공에 있어서도 가계동향조사에서 제외되어 있던 농어가 가구를 2008년부터는 포함하여 소득분배지표를 생산해 냄으로써 전국 대표성을 가진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를 새롭게 개편하여 적용하고 있다. 즉 기존 소득 및 지출에 있어 기존통계로 활용되던 가계동향조사를 지출 중심으로 변경하고 소득은 2009년부터 시작된 패널 방식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전단계로 2017년에는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소득자료를 발표하지만 2018년부터는 소득통계를 조사하되 공표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하지만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2018년에도 분기소득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도 계속 소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반면에 지출조사는 기존방식과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가계동향조사는 향후 “가계지출조사”로 변경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2017년 표본을 변경하여 소득조사의 경우에는 연간 약 43백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출조사는 매월 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표본은 매번 변경되어 연간 12천가구가 되도록 표본을 변경하였다.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변경된 가계동향조사의 간이소득조사, 가계지출조사 및 비교대상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3) 가계동향조사에서 제공되는 지출자료는 소득과 다르게 조사 초기부터 2003년 이전에도 도시가구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근로자를 포함한 통계를 제공하였다. 2003년 이후 표본이 확대되는 속에서 지출은 소득통계와 다르게 여전히 전국 대표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단, 소득분배 통계에서는 소득을 중심으로 자료가 발표됨으로써 동 자료에서는 농어가 가구의 지출은 함께 포함되지 않고 있다.

〈표 2-3〉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비교

구분	가계동향조사 (2016년 이전)	간이소득조사 (2017·2018)	가계지출조사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대상	- 농어가가구 제외	- 농어가가구 제외	- 농어가가구 포함	- 농어가가구 포함
조사시 계열	- 1963년부터 제공 (원시자료 1982년)	- 2017~2018년	- 2017년 이후	- 2012년 처음조사(패 널 기준) - 2015년 연동패널 변 경(5년단위 교체)
제공자료	- (당월)소득 및 (소비· 비소비)지출중심	- (당월)소득, 비소비 지출	- (소비·비소비)지출중 심(가계부), 소득(연 간, 2016년(전년) 기준, 면접조사)	- 소득, 자산, 부채 중 심(지출은 주요항목 중심 조사)
표본설계	- 층화방식: 전국가구 기준 · 전국 약 8,700가 구, 2016년 이전, 경찰 표본 공유)	- 2017년 5천여 가구 (경찰 표본 공유) - 2018년 8천여 가구 (경찰 표본 공유)	- 2015년 인구센서스 기준 - 연간 12천가구(월 천가구조사) <small>※매일 새로운 천가구를 조 사해 연간화 하는 방식</small>	- 층화방식에 의한 전 국가구 기준(전국 약 2만가구). 단 자산 및 부채조사를 위해 고소득층 과대표집
조사단위	- 가구단위(생활중심)	- 가구단위(생활중심)	- 가구단위(생활중심)	- 가족단위(=혈연중심)
조사시기	- 월간(월자료 축적을 통해 연간자료 제공)	- 월간단위	- 월간단위	- 연간단위
소득조사 기준	- 전입소득	- 전입소득	- 전입소득	- 순수입기준 (수입과 비용을 조사)
조사방법	- 가계부 기장방식 - 월간단위 조사결과 의 누적 - 횡단조사	- 조사원 면접조사 - 월간단위 조사결과 의 누적 - 횡단조사	- 가계부 및 면접조사 - 월간단위 조사결과 의 누적 - 횡단조사	- 조사원 면접조사 - 연간단위 회고조사 - 패널조사 → 연동패 널(2015년 이후)

2018년 분기 소득결과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가계동향조사를 간이소득조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따른 표본변경, 조사방식변경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통계청은 통계청 자체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2017년에 확정되었던 가계동향조사의 소득조사 폐지를 원점으로 돌리고 2016년과 유사한 방식의 가계동향조사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책 결정을 하였다. 즉 분기소득 및 지출을 동시에 발표하고, 자료를 분기단위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단지 2016년 이전과의 차이는 소득에 있어 연간소득을 발표하지 않으며, 소득분배 관련 통계도 가계동향조사를 통해서만 생산하지 않기도 한 점이다.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소득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표 2-4〉 가계동향조사 향후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통합조사)	
		소득㉔	지출㉔	소득㉔ ¹⁾	통합조사		소득(A)	지출(B)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일반가구 (농어가 제외)	일반가구 (농어가 포함)		일반가구(농어가 포함)	
표본설계		경찰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	경찰 다목적 표본	전용표본		전용표본	
표본규모		약 8,000가구	연간 12,000가구 월 1,000가구 (1/12 순환)	약 8,000가구	약 7,200가구		약 7,200가구	
조사표		면접조사표	가계부, 면접조사표	면접조사표	가계부		가계부	
응답 기간		36개월	1개월	36개월	12개월(6-6-6) ²⁾		12개월(6-6-6)	
조사 주기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공표 주기		분기	연간	분기	미공표 ³⁾	지출(연간)	분기	
조사 항목	가구 실태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 연령·직업·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 연령, 가구주의 직업·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 연령·직업·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연령, 직 업·산업		거처종류, 점유형태, 보증금(월세), 월세평가액, 주거면적, 자동차, 가구원별 종사상지위·성·연령, 직업·산업	
	소득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전년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당월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 소득		당월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공표 항목	가계 수지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	-	-	흑자율, 소비성향, 처분가능소득	
	소득 분배	5분위배율(분기)	-	5분위배율(분기)	-	-	5분위배율(분기)	
	소득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 ⁴⁾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	-	경상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 비경상소득	
	지출	비소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 비소비 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주: 1) 시계열 연결을 위한 분기소득조사(②) 병행조사 실시

2) 6-6-6 연동표본체계: 6개월 조사 후 6개월 이후에 6개월 추가 조사 진행

3) 병행조사를 통해 통합 전후 조사결과 차이를 분석(소득수준 변화와 기존계열과의 정합성, 통합개편에 따른 영향 정도 등 분석), '19년에는 조사결과를 미공표, 20년 1/4분기 공표 시 소급하여 공표

4) 전년 연간소득은 가구특성(소득5분위, 소득구간별 등)으로만 사용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8.09.18.), 재인용

제 3 장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기초분석: 분기중심

제1절 분위별 소득분포 비교

제2절 저분위 가구의 특성별 소득분배 실태분석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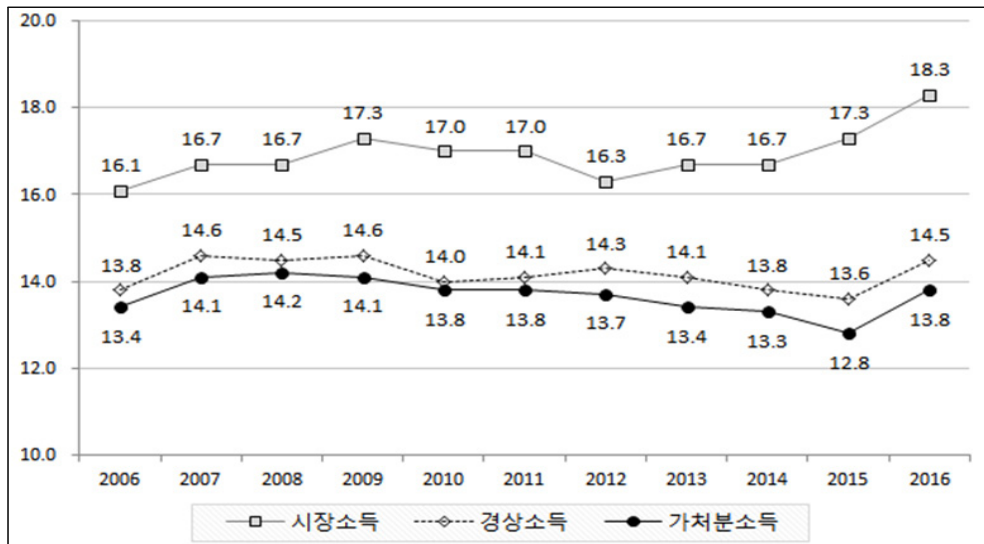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기초분석: 《분기중심 분기중심

제1절 분위별 소득분포 비교

이번 장에서는 분기를 기준으로 분위에 따른 소득분포를 비교하였다. 분기 분석에 앞서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연간 추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기준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를 보면 시장소득 기준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감소하는 모습이었으나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처분소득 적용 상대적 빈곤율은 2008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하였다. 2016년 상대적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기준 13.8%로 전년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소득

기준과는 반대로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2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대비 2016년 빈곤율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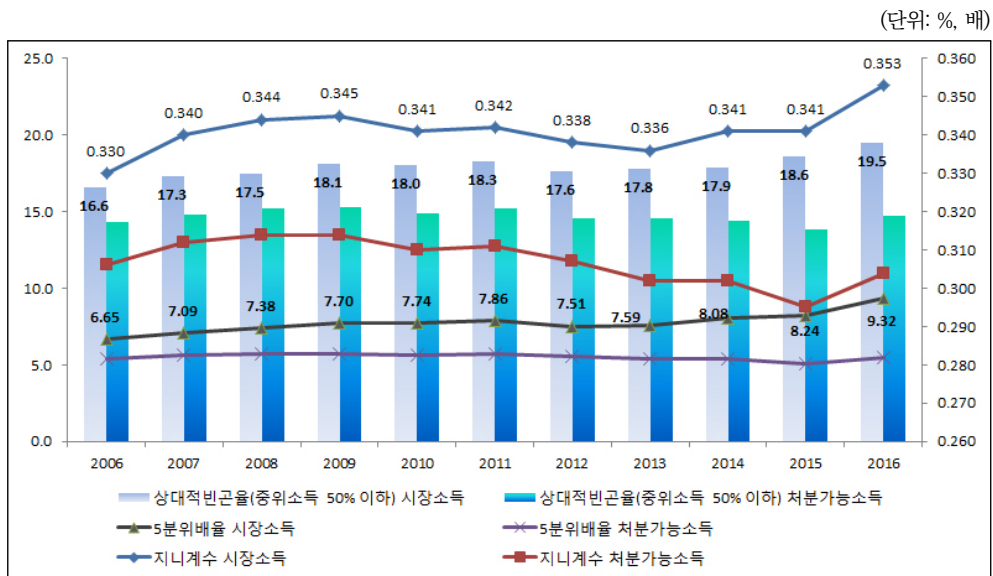
[그림 3-1] 소득별 상대적 빈곤율(중위 50% 기준)



주: 농어가 제외, 1인 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년도.

통계청 기준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우리나라의 분배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07년 이후 악화되다 2012년 이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가처분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또한 2012년 이후 개선되다 2016년에 다시 늘어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상대적 빈곤율(시장소득 중위50% 이하) 역시 2006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17~18% 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016년에는 19.5%까지 증가하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율 역시 시장소득 빈곤율에 비해 낮았지만, 추세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3-2] 우리나라 소득분배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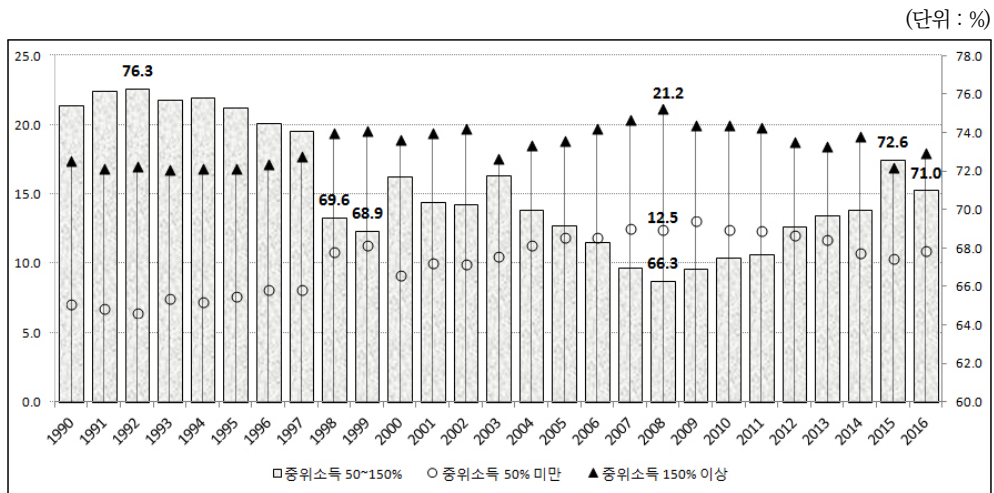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2019.01.10. 인출)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는 생산과 소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산층(혹은 중간계층)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중간계층)은 실제로 그 사회를 움직이는 중심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분포 또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간계층의 분포는 1998~2007년까지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66.3%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금융위기에서 회복 단계로 들어서면서 2009년부터 다시 중간계층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2012년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중위

소득계층에서 이탈한 계층의 일부는 고소득계층(중위소득 150% 초과)으로 상승 이동하였으나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 하락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기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하락과 중산층의 비중이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2016년에는 반대의 상황으로 중간계층의 비중은 2015년 72.6%에서 2016년 71.0%로 하락하였다.

[그림 3-3] 중간계층 분포



주: 2인 이상 도시가구(농어가 제외)

자료: KOSIS,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 각 년도.; 유경준 외(2017), 소득양극화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pp.69-70. 재인용.

〈표 3-1〉 중위소득 50~150% 분포(전 가구)

(단위: %)

구분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2006	61.7	64.4	66.2
2007	60.6	63.5	65.0
2008	59.9	62.9	64.8
2009	59.9	64.0	65.1
2010	60.9	64.6	66.1
2011	61.8	65.3	66.5
2012	62.1	65.4	66.9
2013	62.1	65.9	67.1
2014	62.2	66.0	66.9
2015	62.9	67.8	69.2
2016	60.4	65.5	66.7

주: 농어가 제외. 1인가구 포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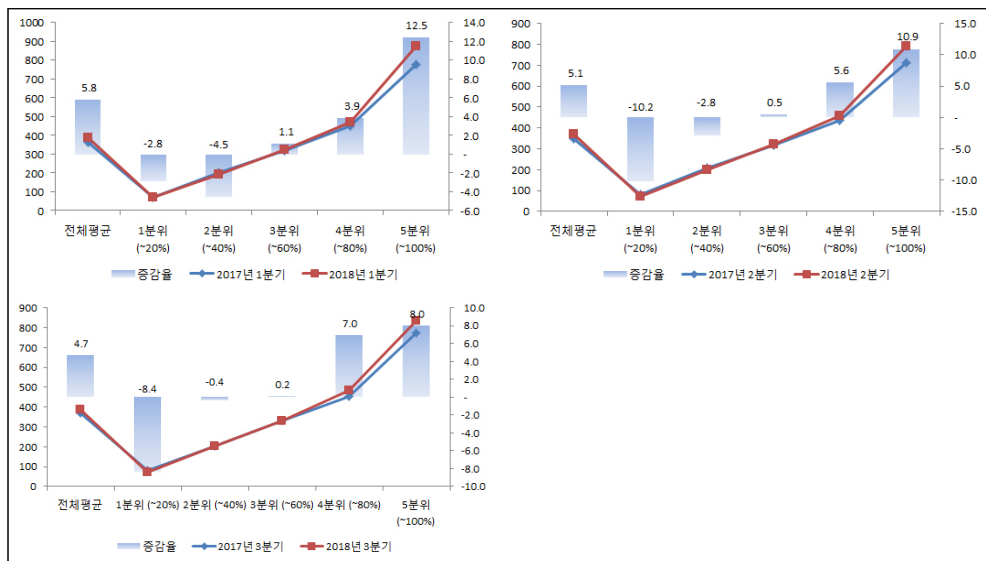
연간자료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2016년 최근 소득분배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의 소득분배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다만 2017년 이후 통계청에서 공개되는 소득자료의 경우 분기자료를 중심으로 공표됨에 따라 연간의 시계열 비교가 어려운 점에 본 장의 이후 분석에서는 분기자료를 기준으로 분위에 따른 소득분포를 비교하였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분위기를 구분하였으며, 저분위 특히 소득 20% 미만 가구의 소득변화와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5분위와 더불어 세분화하여 10분위, 20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청 자료에서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경상소득+비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것으로 정의되나, 통상 처분가능소득은 실제 가구에서 이용 가능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경상소득 - 경상비소비지출'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자료의 분석은 경상소득에서 경상비소비지출(경상조세, 연금, 사회보장분담금)을 뺀 것으로 활용하였으며, 제공근 방식으로 균등화(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공근으로 나눔)하여 분위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5분위				20				40				60				80				100
10분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분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연금 + 기초연금 + 사회수혜금 + 사회적현물이전 + 세금환급금
 - 공적연금: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에서 지급받는 금액(기여금 적립에 따른 연금)
 - 기초연금: 노인가구에 지급되는 기초연금(기여금 적립 없이 일정조건 만족시 받는 수혜금)
 - 사회수혜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수당, 양육수당 등 정부의 현금 수혜금
 - 사회적현물이전: 저소득층 등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각종 공공요금 면제 및 할인혜택
 - 세금환급금(연말정산환급금):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자의 세금 및 건강보험 환급액

전가구 기준 전년 동분기 대비 소득변화를 보면, 2017년 대비 2018년 경상소득은 상승하였고, 2017년 1분기 363.8만원에서 2018년 1분기 385.0만원으로 5.8% 증가하였고, 2017년 2분기 350.7만원에서 2018년 2분기 368.7만원으로 5.1% 증가, 2017년 3분기 368.6만원에서 2018년 3분기 385.9만원으로 4.7%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위 이상에서 전년 동기 대비 경상소득이 증가한 반면 저분위인 1분위 및 2분위 계층은 전년 동기 대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을 통해 보면 3분위 이상과 1~2분위 간 소득증가율에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저소득인 1분위(소득 하위 20% 미만)의 소득감소폭이 1분기의 경우 $\Delta 2.8\%$ 에서 2~3분기에는 $\Delta 10.2\%$, $\Delta 8.4\%$ 로 크게 낮아졌다.

[그림 3-4]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소득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경상소득의 소득구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저분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였다. 먼저 근로소득의 경우 1, 2분위 저분위에서 감소하였는데, 특히 1분위에서 1분기 기준 동분기 대비 17.1%, 2분기 기준 26.9%, 3분기 기준 31.3%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분위의 경우에도 동분기 대비 근로소득은 감소하였으나 그 감소폭은 1분위보다는 작

게 나타난다. 근로소득과 더불어 사업소득 또한 2017년 동분기 대비 2018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이며,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2017년 대비 2018년 1분기 기준 18.7%, 2분기 기준 21.0%, 3분기 기준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분위의 경우 감소한 근로 및 사업소득을 사적이전소득이 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3분기에 시행된 기초연금 확대 및 아동수당 시행으로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미미하게나마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3-2〉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변화

(단위: 만원/월)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전체평균	363.8	243.2	70.0	1.9	30.5	18.3	385.0	254.6	72.6	1.9	32.4	23.5
1분위 (~20%)	71.1	17.5	8.5	0.8	30.9	13.4	69.1	14.5	7.8	1.0	29.8	15.9
~ 5% 미만	30.2	5.2	1.2	0.4	18.5	4.9	28.8	3.4	1.2	0.6	15.9	7.8
5~10% 미만	58.5	11.1	4.7	0.9	28.9	12.9	56.7	6.6	3.7	0.5	30.2	15.9
10~20% 미만	97.9	26.8	14.0	1.1	38.2	17.8	95.2	24.1	13.1	1.5	36.5	20.0
2분위 (~40%)	201.5	105.4	51.0	1.4	27.5	16.2	192.4	95.0	42.4	1.3	29.6	24.1
3분위 (~60%)	318.1	209.6	65.4	1.3	26.8	14.8	321.7	197.0	70.7	1.5	31.0	21.6
4분위 (~80%)	451.2	309.1	88.9	1.6	31.2	20.4	468.7	329.1	85.5	1.7	28.7	23.7
5분위 (~100%)	775.8	573.4	135.9	4.1	36.0	26.4	872.4	637.1	156.4	4.0	42.8	32.2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전체평균	350.7	232.2	72.7	1.6	26.9	17.3	368.7	243.6	73.4	2.0	29.6	20.1
1분위 (~20%)	78.8	23.8	11.3	0.7	30.6	12.4	70.8	17.4	6.8	0.9	30.7	15.0
~ 5% 미만	33.8	6.7	2.4	0.6	18.1	5.9	29.3	3.6	0.7	0.5	16.2	8.2
5~10% 미만	64.9	14.0	8.0	0.2	31.2	11.5	61.2	12.6	4.6	0.4	29.2	14.5
10~20% 미만	107.9	37.1	17.3	1.1	36.4	16.1	96.2	26.7	10.9	1.3	38.7	18.6
2분위 (~40%)	207.1	114.8	50.0	0.9	25.2	16.2	201.3	109.3	40.2	1.3	29.6	20.9
3분위 (~60%)	318.7	216.2	60.1	1.2	25.4	15.7	320.3	211.7	60.4	1.0	27.0	20.0
4분위 (~80%)	435.6	309.8	80.9	1.4	27.9	15.6	460.2	320.7	89.9	1.6	28.7	19.4
5분위 (~100%)	712.5	495.9	161.2	3.8	25.4	26.3	790.3	558.1	169.7	5.0	32.2	25.3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전체평균	368.6	247.1	75.0	1.6	27.2	17.5	385.9	257.8	73.1	1.7	31.9	21.5
1분위 (~20%)	81.0	22.7	13.1	0.9	32.2	12.1	74.2	15.6	9.2	0.8	32.1	16.4
~ 5% 미만	33.0	4.9	4.0	0.5	20.2	3.4	31.5	2.7	2.0	0.6	18.3	8.0
5~10% 미만	67.5	12.9	7.7	0.5	33.3	13.1	66.9	11.1	6.7	0.4	30.8	17.9
10~20% 미만	111.7	36.5	20.3	1.4	37.6	15.9	99.1	24.3	14.1	1.1	39.7	19.8
2분위 (~40%)	205.5	116.6	44.7	0.9	28.3	15.1	204.7	103.5	44.6	1.2	33.7	21.7
3분위 (~60%)	330.8	215.1	71.2	1.7	27.7	15.1	331.3	211.2	63.6	1.4	31.7	23.4
4분위 (~80%)	451.7	321.9	83.1	1.2	27.3	18.2	483.2	338.8	90.6	1.5	30.5	21.9
5분위 (~100%)	773.0	558.7	163.1	3.4	20.8	27.0	835.1	618.8	157.2	3.6	31.6	23.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분위별 경상소득의 소득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1분위 기준 근로소득의 비중이 1분기 3.5%p, 2분기 5.6%p, 3분기 7.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분위 모두에서 나타나는 양상이며, 사업소득의 비중 역시 2017년 동분기 대비 2018년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전소득의 비중은 동분기 대비 증가하였는데, 먼저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1분기를 제외한 2,3분기에서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분기 기준 1분위의 경상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앞선 소득액 변화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1~3분기 모두에서 동분기 대비 증가한 모습이다.

〈표 3-3〉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 구성비 (5분위)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전체	100.0	66.8	19.2	0.5	8.4	5.0	100.0	66.1	18.8	0.5	8.4	6.1
1분위 (~20%)	100.0	24.6	12.0	1.2	43.5	18.8	100.0	21.1	11.3	1.5	43.1	23.1
2분위 (~40%)	100.0	52.3	25.3	0.7	13.7	8.0	100.0	49.4	22.0	0.7	15.4	12.5
3분위 (~60%)	100.0	65.9	20.6	0.4	8.4	4.7	100.0	61.2	22.0	0.5	9.6	6.7
4분위 (~80%)	100.0	68.5	19.7	0.4	6.9	4.5	100.0	70.2	18.2	0.4	6.1	5.0
5분위 (~100%)	100.0	73.9	17.5	0.5	4.6	3.4	100.0	73.0	17.9	0.5	4.9	3.7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전체	100.0	66.2	20.7	0.5	7.7	4.9	100.0	66.1	19.9	0.5	8.0	5.5
1분위 (~20%)	100.0	30.2	14.3	0.9	38.8	15.7	100.0	24.6	9.6	1.3	43.4	21.2
2분위 (~40%)	100.0	55.4	24.1	0.4	12.2	7.8	100.0	54.3	20.0	0.6	14.7	10.4
3분위 (~60%)	100.0	67.8	18.9	0.4	8.0	4.9	100.0	66.1	18.9	0.3	8.4	6.2
4분위 (~80%)	100.0	71.1	18.6	0.3	6.4	3.6	100.0	69.7	19.5	0.3	6.2	4.2
5분위 (~100%)	100.0	69.6	22.6	0.5	3.6	3.7	100.0	70.6	21.5	0.6	4.1	3.2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전체	100.0	67.0	20.3	0.4	7.4	4.7	100.0	66.8	18.9	0.4	8.3	5.6
1분위 (~20%)	100.0	28.0	16.2	1.1	39.8	14.9	100.0	21.0	12.4	1.1	43.3	22.1
2분위 (~40%)	100.0	56.7	21.8	0.4	13.8	7.3	100.0	50.6	21.8	0.6	16.5	10.6
3분위 (~60%)	100.0	65.0	21.5	0.5	8.4	4.6	100.0	63.7	19.2	0.4	9.6	7.1
4분위 (~80%)	100.0	71.3	18.4	0.3	6.0	4.0	100.0	70.1	18.8	0.3	6.3	4.5
5분위 (~100%)	100.0	72.3	21.1	0.4	2.7	3.5	100.0	74.1	18.8	0.4	3.8	2.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위 표를 근로, 사업,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 소득으로 하여 1분위와 5분위를 각각 비교해 보면, 전년동분기 대비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5분위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이외에도 공적이전소득이 함께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인다. 세부내용을 통해 보면, 1분위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공적이전 혹은 사적이전 소득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전가구 1, 5분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비교

(단위: 만원/월)

5분위 기준	2017년1분기				2018년1분기			
	근로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근로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전체평균	243.2	70.0	30.5	18.3	254.6	72.6	32.4	23.5
1분위	17.5	8.5	30.9	13.4	14.5	7.8	29.8	15.9
5분위	573.4	135.9	36.0	26.4	637.1	156.4	42.8	32.2
5분위 기준	2017년2분기				2018년2분기			
	근로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근로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전체평균	232.2	72.7	26.9	17.3	243.6	73.4	29.6	20.1
1분위	23.8	11.3	30.6	12.4	17.4	6.8	30.7	15.0
5분위	495.9	161.2	25.4	26.3	558.1	169.7	32.2	25.3
5분위 기준	2017년3분기				2018년3분기			
	근로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근로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전체평균	247.1	75.0	27.2	17.5	257.8	73.1	31.9	21.5
1분위	22.7	13.1	32.2	12.1	15.6	9.2	32.1	16.4
5분위	558.7	163.1	20.8	27.0	618.8	157.2	31.6	23.9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소득분위를 10분위로 세분화하여 보면, 역시 저분위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고, 이전소득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적이전소득이 증가하는 등 경향을 보인다. 3분기 들어서는 소득 하위 10% 미만 공적이전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에, 소득 하위 20%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증가하였다. 특히 소득 20~50% 미만에서는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8년 하반기에 있었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인상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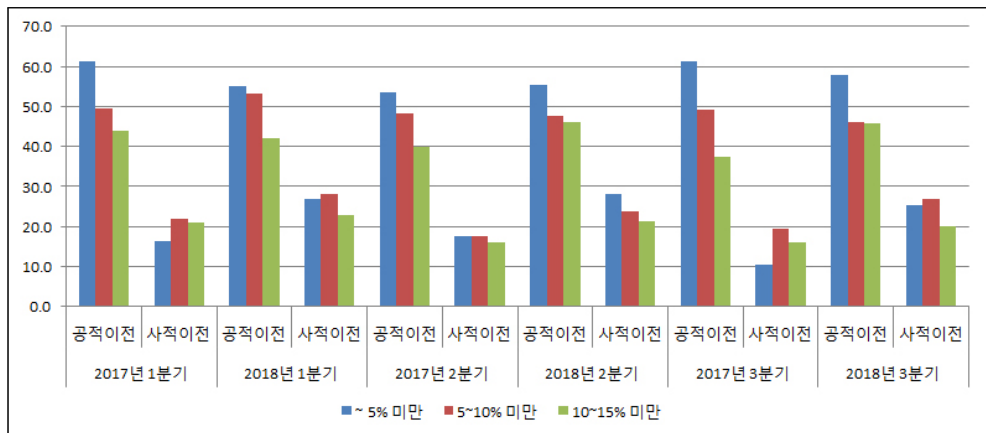
〈표 3-5〉 전가구 분위별 주요소득 소득변화 (10분위)

(단위: 만원/월)

10분위 기준	2017년1분기			2018년1분기			2017년2분기			2018년2분기			2017년3분기			2018년3분기		
	근로 및 사업	공적 이전	사적 이전	근로 및 사업	공적 이전	사적 이전	근로 및 사업	공적 이전	사적 이전	근로 및 사업	공적 이전	사적 이전	근로 및 사업	공적 이전	사적 이전	근로 및 사업	공적 이전	사적 이전
~10% 미만	11.1	23.7	8.9	7.4	23.0	11.9	15.6	24.8	8.8	10.7	22.7	11.4	14.8	26.7	8.3	11.2	24.5	13.0
10~20% 미만	40.8	38.2	17.8	37.2	36.5	20.0	54.4	36.4	16.1	37.6	38.7	18.6	56.8	37.6	15.9	38.4	39.7	19.8
20~30% 미만	117.2	227.6	21.0	99.3	31.6	26.5	130.5	27.1	18.0	105.8	31.9	24.5	124.1	29.6	15.2	108.5	34.8	23.1
30~40% 미만	195.8	27.4	11.3	175.5	27.7	21.7	199.0	23.4	14.4	193.1	27.3	17.2	198.5	26.9	15.0	187.9	32.5	20.3
40~50% 미만	239.9	24.4	19.0	228.1	32.5	22.8	252.5	25.3	13.8	242.8	27.9	19.0	247.2	27.3	18.7	237.3	33.3	22.5

소득분위를 20분위로 세분화하면, 5% 미만 계층에서는 2018년 1~3분기 모두 공적 이전소득의 절대금액이 줄어들었으나, 5~10% 미만 계층에서는 2018년 1분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공적이전이 감소한 모습이다. 구성비 차이를 보면 5% 미만 계층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1~3분기 모두 증가하였다. 소득 하위 5분위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수준은 적게 나타나며, 연령대가 65세 이상 고령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사업소득 감소와 더불어 공적이전소득이 줄어든 점에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5] 저분위별 소득대비 공적 및 사적이전소득 비율 변화



〈표 3-6〉 주요소득별 전년 동분기 대비 변화율

(단위: %)

20분위 기준	1분기			
	경상소득	근로 및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 5% 미만	-4.64	-28.13	-14.05	59.18
5~10% 미만	-3.08	-34.81	4.50	23.26
10~15% 미만	-0.12	-4.88	-4.47	8.77
15~20% 미만	-4.72	-11.28	-4.68	15.59
20분위 기준	2분기			
	경상소득	근로 및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 5% 미만	-13.31	-52.75	-10.50	38.98
5~10% 미만	-5.70	-21.82	-6.41	26.09
10~15% 미만	-9.97	-34.88	3.89	20.00
15~20% 미만	-11.54	-28.67	8.70	11.93

20분위 기준	3분기			
	경상소득	근로 및 사업	공적이전	사적이전
~ 5% 미만	-4.55	-47.19	-9.41	135.29
5~10% 미만	-0.89	-13.59	-7.51	36.64
10~15% 미만	-10.06	-34.67	10.39	13.07
15~20% 미만	-12.04	-30.80	1.01	34.94

소득하위 20%, 소득하위 10%, 소득하위 10~20% 내 가구주 연령 구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변화(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절대금액을 분석한 결과이다. 소득 하위 20% 미만(1분위)에서는 가구주 연령에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1분기의 경우 54세 이하 가구주 가구에서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전년동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2,3 분기의 경우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득하위 10% 미만에서는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체적인 경상소득은 물론, 근로 및 사업소득의 감소폭이 전년동기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 기준 경상소득은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본 분석에서 분위를 구분함에 따라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표본수가 적게 나올 수 있음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3-7〉 가구주 연령에 따른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변화

(단위: 만원/월)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20% 미만	34세 이하	77.6	21.0	22.5	0.0	2.0	32.1	79.6	30.3	8.7	0.0	9.1	31.5
	35~49세	94.3	45.7	17.9	0.5	14.8	15.3	94.5	40.1	22.3	1.2	16.2	14.7
	50~54세	66.4	40.9	6.3	0.0	5.6	13.7	83.3	45.5	17.0	1.7	13.3	5.8
	55~59세	77.2	49.1	7.6	0.0	13.1	7.4	73.1	36.2	10.4	0.5	14.8	11.2
	60~64세	87.7	28.5	21.5	1.2	30.0	6.5	63.7	20.6	10.1	0.6	22.3	10.0
	65세 이상	64.9	6.4	5.1	1.0	38.4	13.9	64.2	4.7	4.7	1.1	36.9	16.7
~10% 미만	34세 이하	62.9	16.4	17.6	0.0	2.6	26.3	43.6	2.9	0.0	0.0	7.8	32.9
	35~49세	49.2	22.0	7.7	1.2	11.3	6.9	45.5	12.7	6.1	2.2	8.9	15.6
	50~54세	38.4	20.4	0.0	0.0	0.0	17.9	35.2	11.9	9.1	0.0	3.8	10.4
	55~59세	45.7	28.9	4.1	0.0	6.3	6.4	36.2	15.5	3.4	0.6	6.2	10.4
	60~64세	35.8	11.2	1.1	3.4	13.2	6.9	38.2	9.2	5.6	0.0	13.5	10.0
	65세 이상	43.9	2.8	2.0	0.5	30.5	8.0	44.2	2.5	1.4	0.5	29.6	10.4
10~20% 미만	34세 이하	101.4	28.3	30.5	0.0	1.0	41.6	111.0	54.3	16.3	0.0	10.1	30.3
	35~49세	133.1	66.0	26.7	0.0	17.8	22.6	126.4	58.0	32.9	0.5	21.0	14.1
	50~54세	102.6	67.3	14.4	0.0	12.7	8.2	120.3	71.3	23.1	3.0	20.6	2.3
	55~59세	102.8	65.5	10.4	0.0	18.7	8.3	105.9	54.6	16.6	0.4	22.4	11.9
	60~64세	109.5	35.7	30.1	0.3	37.0	6.4	93.1	33.9	15.4	1.3	32.6	10.0
	65세 이상	88.6	10.5	8.6	1.6	47.3	20.5	85.6	7.1	8.2	1.9	44.9	23.6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20% 미만	34세 이하	97.0	39.2	27.3	0.0	7.9	22.6	73.3	28.1	8.2	0.0	10.0	27.0
	35~49세	115.2	53.6	29.8	0.9	17.6	13.2	98.2	53.5	18.0	1.1	15.2	10.5
	50~54세	97.0	69.1	7.9	0.0	5.3	14.7	86.7	43.3	12.6	0.1	15.6	15.1
	55~59세	80.2	50.1	9.0	0.9	16.6	3.7	74.9	31.7	9.8	1.2	20.8	11.4
	60~64세	78.9	26.9	19.8	0.1	25.2	6.9	67.7	23.1	11.7	0.2	23.2	9.4
	65세 이상	69.3	11.0	6.2	0.9	38.1	13.1	65.5	7.4	3.7	1.0	37.9	15.4
~10% 미만	34세 이하	66.4	22.1	17.3	0.0	0.7	26.3	40.9	7.4	5.8	0.0	3.0	24.7
	35~49세	61.2	19.9	22.5	1.7	9.5	7.6	58.0	27.8	5.2	1.3	11.7	12.0
	50~54세	45.9	22.4	0.0	0.0	1.2	22.3	47.9	28.8	3.2	0.2	5.2	10.5
	55~59세	33.5	18.9	4.0	0.0	4.7	5.9	41.1	15.9	10.1	0.0	4.4	10.8
	60~64세	41.6	22.2	2.4	0.2	12.3	4.6	40.0	11.5	3.0	0.5	16.2	8.8
	65세 이상	49.1	6.2	2.9	0.3	31.8	7.9	44.8	2.8	1.2	0.4	30.2	10.3
10~20% 미만	34세 이하	127.9	56.4	37.4	0.0	15.2	18.9	110.6	51.9	11.1	0.0	18.0	29.6
	35~49세	150.4	75.6	34.6	0.3	23.0	16.9	136.5	77.9	30.2	0.8	18.6	9.0
	50~54세	133.7	102.7	13.6	0.0	8.2	9.2	128.1	58.8	22.6	0.0	26.7	20.1
	55~59세	104.3	66.2	11.5	1.4	22.7	2.5	104.3	45.4	9.6	2.2	35.1	11.9
	60~64세	108.0	30.6	33.4	0.0	35.3	8.7	99.1	36.3	21.6	0.0	31.1	10.1
	65세 이상	93.9	16.9	10.2	1.6	45.8	19.3	85.8	12.0	6.1	1.6	45.6	20.5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20% 미만	34세 이하	91.4	42.6	17.7	0.0	12.2	18.9	70.9	21.6	6.9	0.0	10.6	31.8
	35~49세	113.5	43.5	39.0	0.8	14.5	15.6	92.6	34.6	22.5	0.3	18.3	16.8
	50~54세	91.6	68.2	6.7	0.0	6.7	10.0	92.6	41.7	24.3	0.9	13.8	11.9
	55~59세	95.7	64.1	11.8	0.3	16.3	3.2	84.3	39.3	22.7	0.4	16.1	5.9
	60~64세	93.5	27.6	25.7	0.1	35.7	4.4	71.4	24.0	10.5	1.5	24.4	11.1
	65세 이상	71.3	10.4	7.5	1.2	38.9	13.2	69.9	7.1	4.9	0.9	39.8	17.2
~10% 미만	34세 이하	56.7	26.8	3.0	0.0	4.2	22.6	41.9	9.4	0.0	0.0	4.9	27.6
	35~49세	54.8	12.8	20.6	2.0	14.7	4.6	52.3	14.1	14.0	0.5	9.4	14.4
	50~54세	37.0	16.8	0.0	0.0	2.4	17.7	47.2	18.3	11.2	0.0	8.3	9.4
	55~59세	42.2	25.4	5.1	0.7	4.2	6.8	44.1	18.0	8.5	0.7	7.7	9.2
	60~64세	42.0	16.8	5.4	0.3	16.3	3.2	43.7	10.5	5.6	0.7	16.3	10.7
	65세 이상	51.2	5.8	4.6	0.3	32.3	8.2	50.9	3.3	2.4	0.6	32.2	12.4
10~20% 미만	34세 이하	118.9	55.2	29.3	0.0	18.5	16.0	104.5	35.8	14.9	0.0	17.2	36.7
	35~49세	152.5	63.9	51.2	0.0	14.4	22.9	130.4	53.9	30.5	0.2	26.7	19.1
	50~54세	132.2	106.4	11.7	0.0	9.8	4.2	135.0	63.7	36.6	1.7	18.8	14.2
	55~59세	122.7	83.6	15.2	0.1	22.3	1.4	121.5	59.1	35.7	0.0	23.8	2.8
	60~64세	117.5	32.6	35.1	0.1	44.7	5.0	101.6	38.6	15.9	2.3	33.2	11.6
	65세 이상	97.3	16.4	11.2	2.3	47.5	19.8	88.9	10.9	7.5	1.3	47.4	22.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분위별로 공적이전소득 구성비를 보면 분위별 차이를 보인다. 먼저 5분위 구분으로 살펴보면, 1분위(20% 미만) 계층에서는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연금 비중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분위 이상에서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5분위의 경우 1분기에는 세금환급금이 이후 분기에는 공적연금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분기 이후 3분위 이상에서 2018년에 사회수혜금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올해 추가된 아동수당 및 근로장려금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기초연금과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을 합한 비중은 1분위(20% 미만)의 경우 17년 1분기 70.6%에서 18년 1분기 72.7%로 2.1%p 증가하였다.

〈표 3-8〉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구성비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27.3	26.2	16.1	7.7	22.6	27.7	27.6	13.6	6.5	24.6
1분위 (~20%)	24.0	55.5	13.9	6.0	0.6	21.5	58.5	14.1	5.7	0.2
~ 5% 미만	15.5	75.6	3.0	5.9	-	12.2	75.2	6.5	6.1	0.0
5~10% 미만	22.0	59.9	12.8	5.3	-	21.5	63.4	10.1	4.9	-
2분위 (~40%)	30.8	31.7	18.7	12.1	6.7	32.8	34.0	16.7	10.8	5.7
3분위 (~60%)	30.5	14.0	21.6	10.7	23.2	34.5	16.8	19.4	7.9	21.4
4분위 (~80%)	26.8	11.2	18.2	6.1	37.7	28.4	9.1	10.7	5.2	46.6
5분위 (~100%)	25.9	4.2	9.5	4.1	56.3	23.4	3.5	6.3	2.8	64.0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전체	34.0	31.9	20.0	8.9	5.2	34.9	35.1	17.7	8.3	4.0
1분위 (~20%)	23.2	56.6	14.2	5.9	0.1	21.4	58.2	15.0	5.0	0.4
~ 5% 미만	20.8	68.0	5.3	6.0	-	15.9	73.7	6.5	3.6	0.3
5~10% 미만	17.2	64.8	12.5	5.5	-	21.1	60.5	13.0	5.5	-
2분위 (~40%)	33.3	31.0	19.9	13.5	2.2	31.7	36.6	18.9	10.9	1.8
3분위 (~60%)	34.2	21.0	27.4	12.6	4.7	43.8	21.7	19.7	9.6	5.2
4분위 (~80%)	42.7	15.0	26.7	7.2	8.5	46.2	16.5	19.4	10.9	7.1
5분위 (~100%)	50.2	8.2	16.2	6.0	19.4	51.2	11.3	17.4	6.8	13.3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전체	35.4	33.6	20.7	9.7	0.6	31.6	32.2	28.9	7.2	0.2
1분위 (~20%)	25.2	54.4	14.7	5.6	0.0	22.5	56.4	16.2	4.9	-
~ 5% 미만	20.3	66.1	8.9	4.6	-	18.8	68.6	8.3	4.2	-
5~10% 미만	20.4	63.5	10.8	5.2	0.1	20.5	61.5	13.9	4.2	-
2분위 (~40%)	33.5	35.7	18.9	11.8	0.1	30.4	32.5	27.1	10.0	0.0
3분위 (~60%)	36.3	19.4	30.1	13.6	0.7	34.0	19.0	40.6	6.4	-
4분위 (~80%)	43.2	17.6	26.6	12.2	0.4	36.3	15.9	39.5	8.0	0.4
5분위 (~100%)	60.0	9.7	19.7	7.2	3.4	47.2	12.7	31.5	7.9	0.8

주: 기타이전소득은 사회수혜금과 사회적 현물이전의 합임. 세금은 세금환급금을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20분위로 세분화하여 5% 미만의 계층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기초연금의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이전(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비중이 17년 1분기(7.0%) 대비 18년 1분기(11.8%)에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인다. 5~10% 미만 계층 역시 기초연금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기타이전의 비중이 20% 정도를 차지한다.

〈표 3-9〉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수준

(단위: 만원/월)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14.2	5.1	5.9	1.2	4.1	15.5	5.4	5.3	1.3	4.8
1분위 (~20%)	9.1	13.9	6.3	1.7	0.0	8.1	14.1	6.3	1.3	0.0
~ 5% 미만	3.4	13.8	0.7	0.5	-	2.3	11.7	1.4	0.5	0.0
5~10% 미만	7.6	15.5	4.3	1.6	-	8.1	16.8	4.3	0.9	-
10~20% 미만	12.6	13.2	10.1	2.3	0.1	11.0	13.9	9.7	1.8	0.1
2분위 (~40%)	11.6	6.4	7.2	1.8	0.4	13.1	7.4	6.6	2.2	0.3
3분위 (~60%)	14.3	2.5	6.4	1.1	2.5	17.1	3.2	7.0	1.5	2.2
4분위 (~80%)	16.1	2.0	6.9	1.0	5.2	16.6	1.7	3.9	1.1	5.5
5분위 (~100%)	20.0	0.9	2.5	0.5	12.1	22.4	0.7	2.8	0.7	16.1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전체	14.5	5.1	5.6	1.1	0.6	16.6	5.6	5.9	1.1	0.4
1분위 (~20%)	8.4	14.0	6.6	1.6	0.0	8.0	14.3	7.2	1.2	0.1
~ 5% 미만	4.6	11.8	1.1	0.7	-	3.1	11.8	1.1	0.2	0.1
5~10% 미만	6.2	18.1	5.5	1.5	-	7.9	15.2	5.1	0.9	-
10~20% 미만	11.4	13.0	9.8	2.1	0.1	10.6	15.0	11.2	1.8	0.1
2분위 (~40%)	11.5	5.9	6.1	1.6	0.2	12.5	7.4	7.3	2.2	0.1
3분위 (~60%)	14.6	3.0	6.6	1.1	0.2	17.1	3.2	5.2	1.1	0.4
4분위 (~80%)	17.2	2.2	6.7	1.2	0.7	20.0	2.0	5.3	0.9	0.5
5분위 (~100%)	20.6	0.7	2.0	0.2	1.9	25.2	1.1	4.6	0.2	1.1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전체	14.6	5.3	6.0	1.4	0.0	17.3	6.0	7.3	1.2	0.1
1분위 (~20%)	9.8	13.8	7.0	1.5	0.0	8.8	14.9	7.1	1.3	-
~ 5% 미만	5.2	12.6	1.8	0.6	-	4.2	12.1	1.4	0.6	-
5~10% 미만	8.0	18.5	5.4	1.3	0.0	8.5	16.6	4.9	0.8	-
10~20% 미만	13.0	12.1	10.4	2.1	-	11.3	15.5	11.1	1.8	-
2분위 (~40%)	12.4	6.7	7.0	2.2	0.0	14.6	7.8	9.3	2.0	0.0
3분위 (~60%)	15.7	3.0	7.8	1.1	0.1	18.3	3.6	8.4	1.3	-
4분위 (~80%)	16.8	2.1	6.4	2.0	0.0	19.1	2.4	8.0	0.9	0.0
5분위 (~100%)	18.1	0.6	1.8	0.2	0.1	25.8	1.3	3.4	0.8	0.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수준을 분석한 결과이다. 3분기 기준 소득하위 5% 미만에서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경우 사회수혜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의 수준이 1~3분기 모두에서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기초연금이 확대된 3분기의 경우 다른 분기에 비해 증가한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부의 저소득층 정책의 일환으로 확대된 기초연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결과이다.

〈표 3-10〉 저분위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단위: 만원/월)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20% 미만	34세 이하	-	-	2.0	-	-	-	0.3	8.7	0.1	-
	35~49세	1.2	1.4	10.1	1.9	0.2	0.8	2.3	11.9	0.7	0.4
	50~64세	9.7	1.6	5.8	1.2	0.0	5.9	1.7	7.9	2.0	-
	65세 이상	10.3	20.2	6.0	1.8	-	10.4	20.5	4.9	1.2	0.0
5% 미만	34세 이하	-	-	-	-	-	-	-	11.9	-	-
	35~49세	2.8	1.4	0.8	0.5	-	0.1	0.3	2.8	0.4	-
	50~64세	3.3	0.6	0.1	1.2	-	2.8	0.5	1.0	0.7	-
	65세 이상	3.6	20.1	0.9	0.3	-	2.7	19.2	0.3	0.4	0.0
5~10% 미만	34세 이하	-	-	3.0	-	-	-	1.3	1.4	0.4	-
	35~49세	2.3	3.8	12.8	3.2	-	2.7	4.2	13.5	1.4	-
	50~64세	1.6	1.7	4.0	0.4	-	5.0	1.8	7.0	2.2	-
	65세 이상	9.8	20.4	3.7	1.8	-	9.4	21.1	3.6	0.7	-
10~20% 미만	34세 이하	-	-	1.0	-	-	-	-	10.1	-	-
	35~49세	-	0.8	14.4	2.2	0.4	0.8	2.9	15.8	0.8	0.6
	50~64세	14.7	1.9	8.7	1.5	0.0	8.1	2.3	12.4	2.7	-
	65세 이상	14.3	20.2	10.1	2.6	-	14.5	20.7	7.8	1.9	-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20% 미만	34세 이하	2.1	1.2	4.5	0.2	-	-	0.4	9.3	0.3	-
	35~49세	0.8	1.8	12.5	2.4	0.2	0.5	1.7	11.4	1.3	0.4
	50~64세	8.4	1.5	6.4	1.2	0.0	6.0	1.5	11.5	1.6	0.1
	65세 이상	10.3	20.7	5.6	1.6	-	10.5	21.2	5.1	1.2	-
5% 미만	34세 이하	-	-	1.9	0.2	-	-	-	2.3	-	-
	35~49세	1.8	2.3	3.5	0.3	-	0.3	0.2	3.0	0.1	0.8
	50~64세	3.6	0.1	0.2	0.6	-	4.3	0.3	1.5	0.2	-
	65세 이상	5.8	18.7	0.8	0.8	-	3.4	19.4	0.5	0.3	-
5~10% 미만	34세 이하	-	-	-	-	-	-	1.6	2.3	0.1	-
	35~49세	2.1	-	9.0	1.0	-	-	0.7	16.7	1.3	-
	50~64세	6.1	2.9	5.9	1.1	-	7.7	0.9	5.5	1.9	-
	65세 이상	7.0	22.1	5.4	1.6	-	9.7	21.6	3.8	0.7	-
10~20% 미만	34세 이하	4.2	2.4	8.3	0.3	-	-	-	17.3	0.7	-
	35~49세	-	2.0	17.1	3.6	0.3	0.8	2.9	12.7	1.8	0.5
	50~64세	11.2	2.0	9.5	1.6	0.0	6.3	2.4	20.2	2.4	0.1
	65세 이상	14.9	20.7	8.2	2.0	-	14.2	21.7	7.9	1.8	-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20% 미만	34세 이하	-	-	9.4	2.7	-	0.5	0.8	8.8	0.6	-
	35~49세	2.0	1.9	9.6	1.0	-	0.6	2.3	14.4	1.0	-
	50~64세	10.6	1.3	9.3	1.4	-	5.7	1.1	10.0	2.0	-
	65세 이상	11.3	20.2	5.8	1.6	0.0	11.5	21.9	5.2	1.1	-
5% 미만	34세 이하	-	0.0	11.8	-	-	1.0	-	1.2	0.0	-
	35~49세	3.7	2.7	0.1	-	-	-	0.8	5.0	0.0	-
	50~64세	4.7	0.2	2.0	1.1	-	3.0	0.7	1.1	0.9	-
	65세 이상	5.7	17.8	1.7	0.5	-	5.5	19.0	1.0	0.6	-
5~10% 미만	34세 이하	-	-	-	-	-	-	1.4	5.3	-	-
	35~49세	-	1.2	28.1	1.8	-	0.4	0.7	11.4	0.7	-
	50~64세	3.3	0.3	4.7	1.0	-	6.8	1.1	9.6	2.8	-
	65세 이상	9.6	22.8	4.1	1.3	0.1	10.7	23.5	3.1	0.4	-
10~20% 미만	34세 이하	-	-	13.6	4.9	-	0.5	0.7	14.8	1.2	-
	35~49세	1.7	1.7	9.7	1.3	-	0.9	3.8	20.3	1.6	-
	50~64세	14.0	1.9	12.6	1.6	-	6.9	1.4	15.5	2.3	-
	65세 이상	15.9	19.8	9.5	2.3	-	14.9	22.5	8.3	1.8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가구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하였으며, 17년 1분기 69.0%에서 18년 1분기 71.6%로 나타났다. 4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경우 사회수혜금 수급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50~64세 가구주 가구에서는 다른 공적이전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적연금과 세금환급금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5분위로 구분하여 20% 미만 계층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는 85%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였으며, 기타이전(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을 20% 정도 수급하고 있음. 다만, 17년 1분기 대비 18년 1분기의 경우 기타이전 수급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35~49세 가구주 가구에서는 사회수혜금과 사회적현물이전 수급 비율이 20% 정도 수준이었으며, 기초연금 수급 비율도 18년 1분기 기준 11.5%를 보이는데, 이는 본 가구에 노인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34세 이하 청년가구주 가구의 경우 분위 구분시 소득 20% 이하의 표본수가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시하지 않았다.

44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표 3-11〉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급 비율 (5분위)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34세 이하	8.6	3.7	34.0	4.9	48.8	2.4	3.9	41.8	5.4	46.5
	35~49세	5.2	9.2	23.3	13.5	48.8	5.2	9.5	18.3	9.8	57.1
	50~64세	40.7	12.1	14.3	9.4	23.5	36.8	9.8	13.0	10.2	30.2
	65세 이상	37.9	48.2	9.8	3.2	0.9	38.4	50.5	7.9	2.7	0.4
~20% 미만	34세 이하	-	-	100.0	-	-	-	5.3	93.1	1.7	-
	35~49세	8.8	10.0	47.5	26.5	7.1	6.5	23.5	50.3	15.2	4.6
	50~64세	48.6	13.6	24.8	12.0	1.0	28.7	13.0	32.6	25.8	-
	65세 이상	22.0	64.9	9.5	3.6	-	21.6	67.6	8.3	2.5	0.0
20~ 40% 미만	34세 이하	11.9	18.8	43.5	5.6	20.1	1.3	11.8	65.0	10.4	11.4
	35~49세	8.2	16.4	27.7	29.4	18.3	8.3	20.4	28.3	24.8	18.2
	50~64세	40.2	21.1	19.3	12.8	6.5	41.8	16.9	17.9	16.1	7.2
	65세 이상	39.0	44.6	12.2	4.2	0.1	40.1	47.6	8.4	3.7	0.2
40~ 60% 미만	34세 이하	6.8	3.6	42.3	6.9	40.5	6.6	4.4	49.0	7.1	32.9
	35~49세	6.0	7.1	26.5	18.7	41.6	5.0	9.9	28.5	12.9	43.7
	50~64세	37.0	14.2	19.3	12.0	17.5	44.5	11.6	14.4	9.5	20.0
	65세 이상	62.2	25.5	10.7	1.5	0.2	59.7	29.2	8.2	2.6	0.3
60~ 80% 미만	34세 이하	9.1	-	35.4	1.1	54.4	1.2	1.1	21.0	4.3	72.3
	35~49세	3.6	12.4	21.9	8.3	53.9	5.3	8.4	11.7	5.1	69.5
	50~64세	46.8	11.1	11.0	6.5	24.6	35.7	7.6	10.1	7.6	39.0
	65세 이상	68.5	13.8	9.6	2.4	5.7	74.4	15.8	5.7	2.1	2.0
80~ 100% 미만	34세 이하	8.8	-	13.4	7.1	70.8	-	-	22.0	2.0	76.0
	35~49세	3.7	2.8	14.6	2.8	76.1	3.6	3.1	8.1	3.8	81.4
	50~64세	35.7	5.0	5.6	6.4	47.3	33.3	4.2	2.7	2.1	57.7
	65세 이상	83.2	9.1	0.9	0.2	6.7	86.5	3.8	3.7	1.4	4.6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34세 이하	19.9	6.2	52.8	6.9	14.1	3.7	6.7	64.1	12.9	12.7
	35~49세	9.1	13.3	43.9	21.7	11.9	10.1	19.8	37.2	21.5	11.4
	50~64세	49.6	15.4	15.5	10.5	9.1	48.0	15.2	18.5	11.7	6.6
	65세 이상	38.1	48.8	9.9	3.2	0.0	38.8	50.9	7.9	2.4	0.0
~20% 미만	34세 이하	15.3	8.9	68.8	7.0	-	-	10.0	85.3	4.7	-
	35~49세	6.6	14.4	51.6	26.9	0.5	4.9	15.1	56.2	20.2	3.6
	50~64세	49.5	13.5	25.8	11.0	0.2	31.9	10.8	37.3	18.1	1.9
	65세 이상	21.6	66.0	8.9	3.5	-	21.3	68.1	8.2	2.3	-
20~ 40% 미만	34세 이하	10.5	18.5	61.6	6.2	3.2	0.6	3.3	75.8	15.1	5.2
	35~49세	8.3	13.7	30.7	38.2	9.2	8.1	25.7	31.7	26.6	8.0
	50~64세	45.6	17.0	21.7	15.0	0.7	40.2	20.5	22.5	16.4	0.4
	65세 이상	39.7	45.1	11.7	3.5	0.1	39.0	48.7	9.0	3.4	-
40~ 60% 미만	34세 이하	13.2	5.5	62.9	16.3	2.2	5.1	5.6	63.2	13.0	13.0
	35~49세	7.7	15.0	48.1	22.2	7.0	9.6	18.8	36.3	21.6	13.7
	50~64세	43.1	20.6	11.0	15.2	10.1	58.4	17.5	11.4	9.5	3.2
	65세 이상	57.3	29.2	11.9	1.6	0.0	61.7	29.1	7.2	1.8	0.1
60~ 80% 미만	34세 이하	19.7	-	56.7	3.7	19.9	6.6	9.5	46.5	21.7	15.8
	35~49세	13.2	13.3	46.8	11.8	15.0	14.5	17.6	37.2	21.8	9.0
	50~64세	52.6	19.2	14.3	6.1	7.8	47.2	16.2	16.0	10.0	10.7
	65세 이상	68.3	15.0	12.7	4.0	0.0	76.9	16.8	4.7	1.4	0.2

80~100% 미만	34세 이하	39.5	-	21.1	0.7	38.7	5.4	9.0	48.5	4.6	32.6
	35~49세	8.4	8.2	44.6	8.2	30.6	11.1	17.1	37.3	12.0	22.5
	50~64세	53.8	9.1	9.3	7.6	20.2	56.8	11.1	11.5	7.3	13.3
	65세 이상	87.5	8.4	2.3	1.3	0.4	86.1	6.8	5.8	1.1	0.2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34세 이하	18.0	5.7	64.6	10.7	1.0	2.3	7.4	82.8	6.4	1.1
	35~49세	10.6	15.4	47.5	25.5	1.1	5.9	12.8	68.8	12.2	0.3
	50~64세	53.2	16.1	17.6	11.5	1.5	48.5	15.7	22.3	13.3	0.1
	65세 이상	38.1	48.8	9.8	3.3	0.0	38.5	50.7	8.6	2.2	0.0
~20% 미만	34세 이하	-	-	81.5	18.5	-	11.8	11.1	72.6	4.5	-
	35~49세	17.9	17.3	42.6	22.1	-	3.8	16.6	68.1	11.5	-
	50~64세	44.8	12.6	32.0	10.5	-	30.5	9.2	38.1	22.2	-
	65세 이상	23.7	63.2	9.3	3.6	0.0	22.8	66.6	8.6	2.0	-
20~40% 미만	34세 이하	17.0	23.2	51.8	8.0	-	-	9.1	86.4	4.6	-
	35~49세	7.1	18.8	37.9	35.7	0.5	4.1	17.1	58.8	19.9	0.0
	50~64세	44.7	19.5	22.4	13.2	0.2	39.9	17.7	25.8	16.6	-
	65세 이상	38.7	48.6	9.1	3.6	-	39.5	46.7	10.2	3.6	0.0
40~60% 미만	34세 이하	13.8	2.6	74.8	8.9	-	2.7	4.7	80.7	12.0	-
	35~49세	6.2	14.6	51.0	26.9	1.2	3.2	12.0	76.0	8.7	-
	50~64세	52.5	15.2	15.0	16.0	1.2	56.9	15.3	19.7	8.1	-
	65세 이상	56.1	28.1	14.3	1.5	-	58.4	31.7	8.4	1.6	-
60~80% 미만	34세 이하	22.1	-	62.7	15.2	-	-	10.5	83.6	4.1	1.8
	35~49세	14.5	16.2	45.3	22.7	1.3	9.0	10.1	71.3	9.0	0.7
	50~64세	54.5	20.6	16.5	8.4	-	49.8	17.1	20.0	13.0	-
	65세 이상	64.4	19.1	11.5	5.0	-	67.8	24.2	6.4	1.7	-
80~100% 미만	34세 이하	37.9	-	51.3	4.4	6.4	-	-	92.4	0.6	7.0
	35~49세	15.0	7.7	64.4	10.5	2.4	9.2	11.2	65.6	13.4	0.5
	50~64세	67.5	11.6	5.6	9.7	5.5	62.4	17.2	11.6	8.1	0.7
	65세 이상	86.8	9.8	2.4	1.0	-	86.7	8.7	4.1	0.4	0.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20분위로 세분화하여 소득 5% 미만의 가구를 보면,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35~49세, 50~64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사회수혜금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저분위로 갈수록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공적연금이 주요한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34세 이하, 35~49세 이하에서는 저분위일수록 사회수혜금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46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표 3-12〉 저분위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급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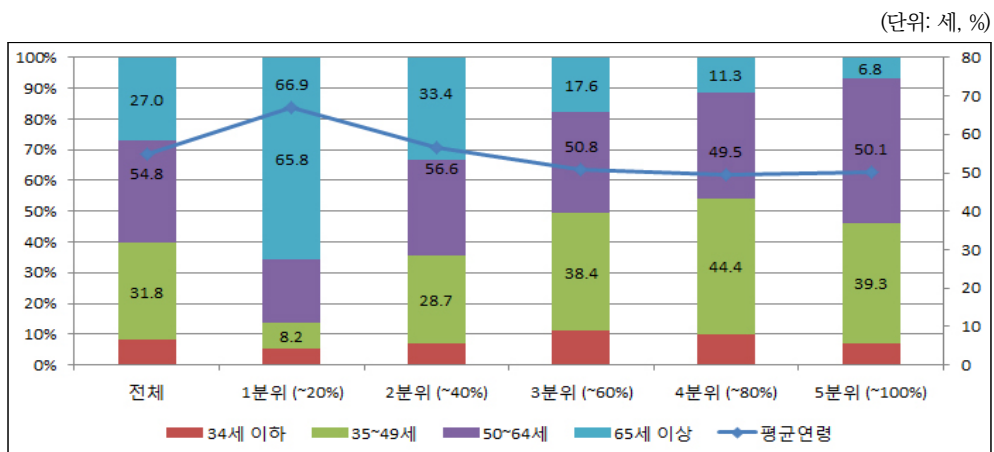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5% 미만	34세 이하	-	-	100.0	-	-	-	-	100.0	-	-
	35~49세	29.7	14.6	19.7	36.0	-	6.4	13.9	67.6	12.1	-
	50~64세	45.3	13.2	4.6	36.9	-	35.0	5.5	18.4	41.1	-
	65세 이상	12.1	85.0	1.6	1.2	-	9.8	87.0	1.6	1.6	0.0
5~10% 미만	34세 이하	-	-	100.0	-	-	-	58.7	22.5	18.9	-
	35~49세	11.5	14.8	58.7	15.1	-	13.6	28.4	36.7	21.3	-
	50~64세	28.0	16.1	42.4	13.4	-	29.2	13.1	29.4	28.3	-
	65세 이상	22.5	65.2	7.7	4.5	-	21.0	69.6	7.4	2.0	-
10~20% 미만	34세 이하	-	-	100.0	-	-	-	-	100.0	-	-
	35~49세	-	6.9	55.2	26.0	11.9	5.0	24.7	49.1	14.6	6.6
	50~64세	52.3	13.3	25.9	7.2	1.4	26.5	15.3	38.2	20.0	-
	65세 이상	26.6	54.7	14.3	4.3	-	27.1	57.8	11.9	3.2	-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5% 미만	34세 이하	-	-	57.7	42.3	-	-	-	100.0	-	-
	35~49세	13.7	20.1	36.3	29.9	-	5.6	4.0	57.7	25.7	7.0
	50~64세	69.1	2.8	6.9	21.3	-	58.6	5.3	19.1	17.0	-
	65세 이상	17.4	77.8	2.2	2.5	-	11.5	85.6	1.8	1.0	-
5~10% 미만	34세 이하	-	-	45.1	33.3	-	-	49.0	34.2	16.8	-
	35~49세	21.5	-	45.1	33.3	-	-	6.4	62.7	30.9	-
	50~64세	43.4	21.2	28.4	7.0	-	36.4	2.2	35.4	26.0	-
	65세 이상	15.8	69.9	10.2	4.1	-	21.1	69.7	7.4	1.7	-
10~20% 미만	34세 이하	18.0	10.4	70.7	1.0	-	-	-	98.1	1.9	-
	35~49세	-	16.7	58.4	24.1	0.8	7.4	23.7	52.0	12.5	4.4
	50~64세	46.3	14.4	29.4	9.5	0.3	22.7	15.0	43.1	16.0	3.1
	65세 이상	27.7	57.7	11.1	3.6	-	25.6	59.8	11.4	3.2	-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5% 미만	34세 이하	-	-	100.0	-	-	28.1	-	68.9	3.0	-
	35~49세	56.2	34.7	9.1	-	-	-	10.2	75.7	14.0	-
	50~64세	44.9	2.2	32.2	20.7	-	47.0	13.6	15.4	24.0	-
	65세 이상	16.8	75.0	4.8	3.4	-	16.8	78.1	3.4	1.8	-
5~10% 미만	34세 이하	-	-	58.9	32.3	-	-	30.7	69.3	-	-
	35~49세	-	8.7	58.9	32.3	-	5.7	6.2	84.2	3.9	-
	50~64세	38.8	1.9	37.4	22.0	-	21.5	5.2	40.3	33.0	-
	65세 이상	20.8	68.3	7.5	3.3	-	21.5	71.3	6.2	1.0	-
10~20% 미만	34세 이하	-	-	75.0	25.0	-	12.0	6.6	74.9	6.5	-
	35~49세	14.8	16.1	45.2	24.0	-	4.3	21.8	60.5	13.4	-
	50~64세	45.5	16.6	31.4	6.5	-	29.4	9.5	43.1	18.0	-
	65세 이상	29.7	53.1	13.2	4.0	-	26.2	59.1	12.1	2.6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제2절 저분위 가구의 특성별 소득분배 실태분석

가구주 평균연령을 분위별로 보면, 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고령으로 65세 이상으로 나타나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분위(5분위, 80~100%)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18년 1분기 기준 49.3세로 1분위와 비교시 17.5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5분위 구분시 1분위(20% 미만)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17년 1분기 67.0세에서 18년 1분기 66.8세로 비슷한 수준. 20분위로 구분하면 소득 5% 미만의 경우 18년 1분기 66.2세로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5~10% 미만 계층에서는 약 2세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림 3-6] 2018년 3분기 가구주 평균연령 및 연령별 분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가구주 연령을 생애주기별로 분포를 비교해보면, 저분위일수록 고령층이 분포하며, 고분위일수록 생산가능연령대인 35~64세의 연령대로 분포하고 있다. 1분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가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4,5분위에서는 35~49세, 50~64세 가구주 가구가 각각 40% 이상의 비율을 보인다.

20분위로 세분화하면, 특히 5~10% 미만 계층에서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하위소득 20% 미만은 분기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가구가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소득 하위 가구 대부분이 노인가구라는 점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보다는 이전소득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3〉 분위별 가구주 연령분포

(단위: 세,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53.7	8.4	36.2	29.1	26.3	54.7	8.1	32.6	32.2	27.2
1분위 (~20%)	67.0	2.4	9.9	21.2	66.5	66.8	5.7	8.1	20.0	66.2
~ 5% 미만	67.7	0.9	12.0	19.9	67.2	66.2	5.7	9.1	25.3	59.9
5~10% 미만	68.4	5.1	6.4	15.0	73.5	70.5	4.9	3.8	13.8	77.6
10~20% 미만	65.9	1.9	10.7	24.9	62.6	65.3	6.1	9.8	20.4	63.6
2분위 (~40%)	54.7	9.4	32.6	26.9	31.1	56.2	8.9	28.1	28.8	34.3
3분위 (~60%)	49.6	13.3	40.8	29.7	16.1	51.6	9.3	38.9	32.7	19.1
4분위 (~80%)	48.0	9.2	52.8	27.5	10.5	49.5	9.3	44.7	35.0	11.0
5분위 (~100%)	49.3	7.5	44.8	40.1	7.6	49.3	7.0	43.0	44.5	5.5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전체	53.8	8.1	35.8	30.1	26.0	54.7	8.0	32.2	32.9	26.9
1분위 (~20%)	66.2	3.5	12.5	19.1	64.9	66.3	6.6	9.2	18.9	65.2
~ 5% 미만	66.8	2.5	12.6	23.5	61.4	66.0	8.3	8.8	22.7	60.2
5~10% 미만	70.0	4.6	7.2	7.4	80.8	67.2	6.0	9.2	15.8	69.0
10~20% 미만	64.1	3.5	15.1	22.8	58.6	66.0	6.2	9.4	18.6	65.8
2분위 (~40%)	54.0	9.5	34.4	27.5	28.6	56.0	8.8	29.7	27.7	33.8
3분위 (~60%)	49.5	12.2	42.8	28.5	16.5	50.9	9.7	41.5	31.6	17.2
4분위 (~80%)	49.4	7.6	47.1	33.1	12.2	49.9	8.1	44.1	36.0	11.8
5분위 (~100%)	49.8	7.7	42.2	42.3	7.8	50.5	7.0	36.3	50.2	6.6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전체	54.0	8.1	35.2	30.0	26.6	54.8	8.1	31.8	33.1	27.0
1분위 (~20%)	66.9	3.3	11.0	19.4	66.2	66.9	5.5	8.2	20.6	65.8
~ 5% 미만	69.1	2.1	11.7	17.3	68.9	67.1	4.9	8.2	24.7	62.3
5~10% 미만	69.8	3.8	5.9	9.6	80.7	67.2	6.9	7.6	16.2	69.3
10~20% 미만	64.3	3.7	13.2	25.4	57.7	66.7	5.1	8.4	20.7	65.8
2분위 (~40%)	55.5	7.4	31.9	29.5	31.3	56.6	7.1	28.7	30.8	33.4
3분위 (~60%)	49.6	12.2	43.8	26.7	17.4	50.8	11.1	38.4	32.9	17.6
4분위 (~80%)	48.7	9.8	46.8	32.6	10.9	49.5	9.9	44.4	34.4	11.3
5분위 (~100%)	49.5	8.0	42.6	42.0	7.5	50.1	7.0	39.3	47.0	6.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다음에서는 분위에 따라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원수가 2.4~2.5명인 반면, 저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1.6명 내외로 나타난다. 특히 55세 이상 중고령층 가구주 가구의 경우 평균 가구원수는 1.4명 내외로 다른 연령층 가구주 가구에 비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저분의 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높은 1,2인가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3-14〉 가구주 연령별 평균 가구원수

(단위: 명)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전체	2.54	2.48	2.54	2.48	2.53	2.48
34세 이하	2.08	2.06	2.11	2.05	2.14	2.01
35~49세	3.34	3.21	3.34	3.22	3.31	3.20
50~54세	2.82	2.90	2.86	2.86	2.85	2.92
55~59세	2.38	2.55	2.41	2.55	2.46	2.52
60~64세	2.10	2.15	2.11	2.20	2.11	2.22
65세 이상	1.68	1.67	1.66	1.67	1.67	1.69
1분위(~20%)	1.66	1.63	1.74	1.62	1.74	1.64
34세 이하	2.13	1.88	2.24	1.79	2.38	1.71
35~49세	2.71	2.64	2.87	2.63	2.87	2.68
50~54세	1.91	2.23	2.35	2.36	2.43	2.17
55~59세	1.55	1.79	1.59	1.79	1.82	1.98
60~64세	1.76	1.57	1.71	1.56	1.58	1.55
65세 이상	1.46	1.42	1.46	1.41	1.49	1.43
~10% 미만	1.57	1.50	1.59	1.51	1.56	1.58
34세 이하	2.41	1.38	1.93	1.50	2.06	1.46
35~49세	2.51	2.42	2.63	2.39	2.43	2.45
50~54세	2.02	2.06	2.09	2.25	1.72	2.04
55~59세	1.30	1.49	1.40	1.54	1.46	1.64
60~64세	1.44	1.55	1.57	1.42	1.19	1.55
65세 이상	1.41	1.38	1.42	1.35	1.46	1.44
10~20% 미만	1.59	1.75	1.88	1.73	1.92	1.69
34세 이하	1.69	2.31	2.55	2.11	2.63	2.01
35~49세	2.88	2.78	3.03	2.86	3.16	2.89
50~54세	1.78	2.36	2.54	2.47	2.96	2.29
55~59세	1.76	2.06	1.68	2.01	2.01	2.30
60~64세	1.89	1.60	1.82	1.73	1.76	1.55
65세 이상	1.51	1.47	1.52	1.46	1.52	1.4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분위별 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1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양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1분위의 경우 1인가구의 비중이 2018년 1분기 기준 58.8%, 2분기 58.6%, 3분기 57.1%로 1인가구의 비중이 60%에 육박하며, 세분화할 경우 소득 하위 5% 미만 가구에서는 거의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즉 저분위일수록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5〉 분위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명,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전체	2.54	26.8	25.4	21.7	20.4	5.7	2.48	28.4	25.1	21.7	20.1	4.7
1분위 (~20%)	1.66	57.5	28.9	6.8	4.3	2.4	1.63	58.8	27.7	7.1	4.9	1.5
~ 5% 미만	1.57	62.6	26.5	5.0	3.3	2.7	1.49	67.8	22.0	5.4	3.4	1.4
5~10% 미만	1.57	63.8	24.4	4.1	5.9	1.8	1.51	61.8	29.2	5.9	2.6	0.5
10~20% 미만	1.74	51.8	32.3	9.1	4.1	2.7	1.75	52.9	29.8	8.6	6.8	2.0
2분위 (~40%)	2.50	27.1	29.5	18.9	17.0	7.6	2.33	30.3	30.0	20.5	14.8	4.5
3분위 (~60%)	2.76	20.1	23.9	23.7	25.6	6.7	2.73	21.5	24.0	21.8	26.1	6.6
4분위 (~80%)	2.94	15.5	19.5	27.7	30.9	6.4	2.87	16.5	21.1	27.8	29.1	5.5
5분위 (~100%)	2.82	13.9	25.4	31.1	24.3	5.2	2.85	14.9	22.7	31.1	25.8	5.5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전체	2.54	27.0	25.1	21.5	20.6	5.9	2.48	28.4	24.8	21.8	20.6	4.4
1분위 (~20%)	1.74	54.7	27.8	9.9	4.8	2.9	1.62	58.6	28.0	7.2	4.9	1.3
~ 5% 미만	1.56	66.4	23.5	2.5	3.4	4.2	1.46	70.5	19.3	5.1	4.2	0.9
5~10% 미만	1.63	57.1	31.5	5.0	4.4	2.0	1.57	59.5	30.5	4.9	3.7	1.4
10~20% 미만	1.88	47.7	28.1	16.0	5.6	2.7	1.73	52.3	31.0	9.4	5.9	1.5
2분위 (~40%)	2.48	30.8	26.2	16.2	19.1	7.8	2.43	30.1	26.6	18.8	19.5	5.0
3분위 (~60%)	2.77	20.9	24.2	21.1	26.7	7.1	2.69	21.1	24.0	25.4	24.4	5.1
4분위 (~80%)	2.89	14.8	22.3	27.9	29.5	5.6	2.87	16.8	21.6	26.3	29.4	6.0
5분위 (~100%)	2.82	13.8	24.9	32.4	22.9	5.9	2.80	15.5	23.8	31.2	24.8	4.8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전체	2.53	27.0	25.3	21.7	20.5	5.5	2.48	28.4	25.0	21.9	20.2	4.6
1분위 (~20%)	1.74	54.3	29.3	8.2	5.1	3.1	1.64	57.1	29.5	7.8	4.2	1.5
~ 5% 미만	2.85	68.7	25.1	3.4	2.6	0.2	1.50	66.9	22.4	6.1	2.7	2.0
5~10% 미만	1.40	55.1	32.0	4.5	3.9	4.6	1.65	53.5	34.6	6.9	4.1	1.0
10~20% 미만	1.92	46.8	30.0	12.5	7.0	3.8	1.69	54.0	30.4	9.1	5.1	1.4
2분위 (~40%)	2.42	31.0	26.7	18.8	17.5	6.0	2.40	30.0	28.1	19.2	17.8	4.9
3분위 (~60%)	2.81	19.4	23.8	21.8	27.8	7.1	2.69	22.8	23.3	22.5	26.2	5.2
4분위 (~80%)	2.87	16.6	21.2	28.7	27.1	6.5	2.87	16.8	20.3	29.2	27.6	6.1
5분위 (~100%)	2.82	13.7	25.3	31.1	24.9	5.0	2.82	15.4	23.7	30.8	25.0	5.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저분위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 분포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소득하위 5% 미만에서 3분기 기준 전년동분기 대비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 1인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50세 이상 중고령층 가구주 1.2인 가구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하위 5~10% 미만 가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경우 2017년 3분기 2.8%에서 2018년 3분기 5.3%로 다른 연령층 가구주 가구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본 분석에서 1인 가구 중 34세 이하 청년 가구주 가구의 표본수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적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3-16〉 저분위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5% 미만	34세 이하	0.0	0.4	0.5	0.0	0.0	4.7	0.2	0.8	0.0	0.0
	35~49세	5.0	2.0	1.6	2.0	1.4	4.0	1.3	1.0	2.2	0.7
	50~64세	14.6	3.8	0.5	0.9	0.2	17.0	4.7	1.7	1.2	0.7
	65세 이상	43.0	20.4	2.5	0.4	1.1	42.1	15.8	2.0	0.0	0.1
5~10% 미만	34세 이하	2.3	0.3	0.9	1.7	0.0	3.2	1.4	0.3	0.1	0.0
	35~49세	1.2	1.9	1.1	2.3	0.0	0.8	1.0	0.9	1.0	0.0
	50~64세	9.7	2.0	0.7	1.6	1.0	7.5	2.8	2.4	1.0	0.0
	65세 이상	50.6	20.3	1.4	0.4	0.8	50.4	24.0	2.2	0.5	0.5
10~20% 미만	34세 이하	1.2	0.1	0.4	0.2	0.0	2.7	0.4	1.5	1.5	0.0
	35~49세	3.0	1.3	2.7	1.7	2.0	2.5	1.7	2.1	2.6	0.9
	50~64세	10.9	9.0	3.9	0.7	0.4	9.1	5.7	3.4	1.4	0.8
	65세 이상	36.7	22.0	2.1	1.5	0.3	38.6	22.0	1.5	1.2	0.3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5% 미만	34세 이하	2.1	0.0	0.4	0.0	0.0	6.4	0.7	0.7	0.5	0.0
	35~49세	5.5	2.4	1.4	2.1	1.3	5.1	1.3	0.1	1.8	0.6
	50~64세	17.2	3.1	0.5	1.0	1.7	14.8	4.2	2.5	1.2	0.0
	65세 이상	41.7	18.0	0.2	0.3	1.3	44.3	13.1	1.8	0.7	0.3
5~10% 미만	34세 이하	2.5	0.4	0.0	1.8	0.0	3.8	1.3	0.5	0.5	0.0
	35~49세	0.9	1.1	2.1	2.0	1.1	2.8	1.6	1.4	2.6	0.8
	50~64세	2.7	4.0	0.6	0.0	0.2	8.3	4.5	2.0	0.6	0.6
	65세 이상	51.0	26.2	2.3	0.7	0.7	44.7	23.2	1.1	0.0	0.0
10~20% 미만	34세 이하	0.9	0.1	2.2	0.4	0.0	3.1	0.6	1.4	1.1	0.1
	35~49세	2.8	1.8	4.7	3.9	1.9	1.6	2.2	2.5	2.2	0.9
	50~64세	9.5	6.6	5.6	0.5	0.5	8.0	5.2	3.3	1.9	0.3
	65세 이상	34.4	19.6	3.5	0.9	0.2	39.6	23.1	2.2	0.7	0.3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5% 미만	34세 이하	0.5	0.0	1.3	0.3	0.0	3.7	0.7	0.3	0.0	0.2
	35~49세	6.1	2.5	0.9	2.0	0.2	4.2	0.6	1.2	1.8	0.3
	50~64세	14.4	2.1	0.8	0.0	0.0	16.6	3.9	2.7	0.3	1.2
	65세 이상	47.6	20.5	0.5	0.3	0.0	42.4	17.2	1.9	0.6	0.2
5~10% 미만	34세 이하	2.8	0.2	0.0	0.9	0.0	5.3	0.4	0.7	0.5	0.0
	35~49세	0.8	0.6	2.0	0.4	2.2	2.1	1.8	0.7	2.5	0.4
	50~64세	5.1	2.7	0.7	1.0	0.2	6.8	6.0	2.5	0.9	0.0
	65세 이상	46.4	28.5	1.8	1.7	2.3	39.2	26.4	3.0	0.2	0.4
10~20% 미만	34세 이하	1.2	0.5	0.6	1.5	0.0	2.5	0.8	1.0	0.8	0.0
	35~49세	2.9	1.4	2.2	4.7	2.0	1.4	2.1	1.9	1.9	1.1
	50~64세	10.0	7.3	6.0	0.6	1.6	9.1	5.0	4.0	2.2	0.3
	65세 이상	32.6	20.9	3.8	0.2	0.2	40.9	22.5	2.2	0.2	0.0

주: 해당하는 분위에서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비율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분위기를 100%로 산출한 비율(예: 박스 □ 표시)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다음에서는 전체 평균 취업인원수와 근로자 가구 분포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즉 아래에서는 근로자 가구 및 근로자 외 가구 비중, 근로자 가구 및 근로자 외 가구 별 취업인원수에 대한 분석하였다. 먼저 소득하위 20% 미만(1분위)이 취업자수는 1~3분기 시점 모두 감소한 모습이며 근로자가구의 비중 또한 1분기 5.2%p, 2분기 7.1%p, 3분기 5.0%p 감소하였다. 앞선 경상소득의 소득 구성원 비중 및 수준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전년동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취업인원수 및 근로자가구의 비중이 줄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3-17〉 취업자 수 및 근로자가구 분포

(단위: 명,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취업자수	비율
전체	1.19	100.0	1.16	100.0	1.24	100.0	1.21	100.0	1.24	100.0	1.20	100.0
근로자가구	1.49	55.7	1.50	52.7	1.50	58.4	1.50	55.3	1.49	57.9	1.49	55.5
근로자외가구	0.81	44.3	0.79	47.3	0.89	41.6	0.85	44.7	0.88	42.3	0.85	44.5
1분위(~20%)	0.35	100.0	0.31	100.0	0.48	100.0	0.35	100.0	0.46	100.0	0.37	100.0
근로자가구	1.11	19.8	1.15	14.6	1.14	27.8	1.08	20.7	1.09	25.5	1.08	20.5
근로자외가구	0.16	80.2	0.17	85.4	0.22	72.2	0.16	79.3	0.24	74.5	0.19	79.5
~10% 미만	0.24	100.0	0.2	100.0	0.31	100.0	0.21	100.0	0.31	100.0	0.24	100.0
근로자가구	1.11	14.1	1.11	9.3	1.07	17.2	1.06	11	1.09	17.5	1.06	11.4
근로자외가구	0.10	85.9	0.11	90.7	0.15	82.8	0.11	89	0.14	82.5	0.13	88.6
10~20% 미만	0.46	100.0	0.43	100.0	0.64	100.0	0.49	100.0	0.6	100.0	0.50	100.0
근로자가구	1.11	25.6	1.17	19.9	1.17	38.3	1.09	30.4	1.09	33.6	1.09	29.6
근로자외가구	0.24	74.4	0.24	80.1	0.32	61.7	0.23	69.6	0.36	66.4	0.26	70.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가구주 연령에 따라 취업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특히 중고령층 즉, 5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취업인원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경우 또한 가구내 취업자수가 감소한 모습으로 나타나나, 저분위의 경우 34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표본이 적을 수 있음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표 3-18〉 근로자 가구 및 근로자 외 가구 별 취업자 수

(단위: 명)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전체	34세 이하	1.12	1.06	1.12	1.09	1.13	1.09
	35~49세	1.42	1.38	1.43	1.39	1.43	1.41
	50~54세	1.68	1.67	1.78	1.67	1.70	1.65
	55~59세	1.58	1.64	1.59	1.72	1.63	1.67
	60~64세	1.30	1.31	1.33	1.34	1.33	1.29
	65세 이상	0.52	0.48	0.63	0.56	0.64	0.57
근로자 가구	34세 이하	1.22	1.25	1.22	1.27	1.23	1.27
	35~49세	1.48	1.43	1.48	1.43	1.48	1.43
	50~54세	1.71	1.78	1.82	1.74	1.77	1.72
	55~59세	1.66	1.78	1.69	1.77	1.71	1.72
	60~64세	1.57	1.54	1.56	1.56	1.51	1.58
	65세 이상	1.33	1.33	1.30	1.32	1.32	1.31
근로자외 가구	34세 이하	0.79	0.55	0.77	0.51	0.69	0.54
	35~49세	1.25	1.26	1.32	1.28	1.30	1.33
	50~54세	1.62	1.47	1.71	1.54	1.57	1.52
	55~59세	1.43	1.44	1.40	1.64	1.49	1.61
	60~64세	1.06	1.09	1.13	1.12	1.17	1.00
	65세 이상	0.30	0.30	0.33	0.30	0.33	0.31
1분위(~20%)		0.35	0.31	0.48	0.35	0.46	0.37
1분위 (~20%) 전체	34세 이하	0.41	0.41	0.64	0.39	0.55	0.29
	35~49세	0.60	0.67	0.76	0.69	0.74	0.64
	50~54세	0.63	0.68	0.84	0.55	0.83	0.67
	55~59세	0.74	0.57	0.66	0.60	0.70	0.80
	60~64세	0.68	0.48	0.55	0.43	0.60	0.44
	65세 이상	0.20	0.19	0.36	0.25	0.34	0.26
근로자 가구	34세 이하	1.00	1.12	1.00	1.00	1.04	1.00
	35~49세	1.06	1.19	1.06	1.09	1.03	1.07
	50~54세	1.13	1.18	1.30	1.00	1.21	1.02
	55~59세	1.08	1.10	1.04	1.16	1.00	1.20
	60~64세	1.19	1.20	1.12	1.13	1.17	1.07
	65세 이상	1.12	1.13	1.17	1.08	1.11	1.07
근로자외 가구	34세 이하	0.31	0.14	0.46	0.17	0.22	0.11
	35~49세	0.34	0.47	0.57	0.46	0.60	0.48
	50~54세	0.27	0.40	0.49	0.38	0.54	0.51
	55~59세	0.30	0.33	0.24	0.32	0.41	0.57
	60~64세	0.50	0.29	0.41	0.26	0.44	0.28
	65세 이상	0.09	0.11	0.12	0.09	0.14	0.10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10% 미만		0.24	0.20	0.31	0.21	0.31	0.24
~10% 미만 전체	34세 이하	0.45	0.21	0.30	0.17	0.20	0.11
	35~49세	0.40	0.43	0.56	0.48	0.44	0.46
	50~54세	0.43	0.40	0.46	0.49	0.47	0.42
	55~59세	0.66	0.46	0.48	0.52	0.46	0.54
	60~64세	0.32	0.19	0.34	0.21	0.44	0.29
	65세 이상	0.15	0.14	0.25	0.13	0.27	0.17

54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근로자 가구	34세 이하	1.00	1.56	1.00	1.00	1.00	1.00
	35~49세	1.04	1.14	1.00	1.08	1.00	1.07
	50~54세	1.29	1.00	1.00	1.00	1.00	1.00
	55~59세	1.03	1.00	1.00	1.10	1.00	1.00
	60~64세	1.12	1.05	1.00	1.00	1.00	1.00
	65세 이상	1.15	1.10	1.11	1.08	1.12	1.11
근로자외 가구	34세 이하	0.34	0.01	0.22	0.13	0.00	0.03
	35~49세	0.22	0.27	0.47	0.27	0.38	0.37
	50~54세	0.12	0.27	0.22	0.32	0.12	0.30
	55~59세	0.10	0.20	0.07	0.33	0.20	0.34
	60~64세	0.14	0.14	0.21	0.13	0.34	0.22
	65세 이상	0.07	0.08	0.09	0.06	0.10	0.07
10~20% 미만		0.46	0.43	0.64	0.49	0.60	0.50
10~20% 미만 전체	34세 이하	0.33	0.58	0.98	0.65	0.83	0.50
	35~49세	0.77	0.82	0.89	0.90	0.94	0.80
	50~54세	0.89	0.89	1.12	0.61	1.09	0.90
	55~59세	0.80	0.67	0.75	0.66	0.82	1.05
	60~64세	0.83	0.81	0.72	0.68	0.68	0.61
	65세 이상	0.26	0.24	0.49	0.37	0.42	0.36
근로자 가구	34세 이하	1.00	1.00	1.00	1.00	1.05	1.00
	35~49세	1.07	1.20	1.08	1.09	1.03	1.07
	50~54세	1.03	1.23	1.43	1.00	1.35	1.03
	55~59세	1.14	1.20	1.06	1.19	1.00	1.31
	60~64세	1.21	1.23	1.19	1.18	1.22	1.10
	65세 이상	1.11	1.15	1.20	1.08	1.10	1.06
근로자외 가구	34세 이하	0.27	0.30	0.96	0.27	0.55	0.24
	35~49세	0.49	0.63	0.68	0.73	0.86	0.62
	50~54세	0.66	0.56	0.77	0.44	0.89	0.80
	55~59세	0.43	0.44	0.35	0.31	0.58	0.83
	60~64세	0.68	0.55	0.59	0.46	0.50	0.37
	65세 이상	0.11	0.13	0.15	0.13	0.19	0.13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면, 분위별로 차이가 발생. 5분위 기준 1~2분위는 임시·일용 및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3분위 이상에서는 상용직의 비중이 높으며 분위가 높을수록 비중은 증가하였다. 3분기 기준으로 1분위에서는 상용직이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한 모습이다.

10분위로 구분하면, 소득 10% 미만 가구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임시직은 줄어들고 일용직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10~20% 미만에서도 상용직이 줄어들고 임시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볼 수 있다.

20분위로 더 세분해 보면, 소득 하위 5%에서 1~3분기 모두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

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또한 전년동분기 대비 임시직은 줄어들고 일용직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이 전년대비 나빠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저분위일수록 고령이라는 점에서 고령노인의 자영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우려된다.

〈표 3-19〉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 (5분위)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전체평균	52.3	16.2	6.5	4.5	18.5	-	2.0	54.3	13.6	6.0	6.5	17.8	0.1	1.8
1분위 (~20%)	10.0	45.5	19.6	0.3	21.4	-	3.2	10.7	34.1	20.0	1.9	30.6	0.0	2.6
~ 5% 미만	2.4	56.9	23.9	0.0	16.7	-	0.0	8.8	37.3	21.0	0.0	32.9	-	0.0
5~10% 미만	9.3	60.1	11.8	0.0	14.5	-	4.3	4.2	36.1	22.6	2.1	30.8	-	4.2
10~20% 미만	11.5	39.0	21.2	0.5	24.4	-	3.4	12.8	32.9	19.2	2.3	30.1	-	2.8
2분위 (~40%)	33.4	26.7	9.6	5.2	22.4	-	2.7	33.6	25.1	11.6	4.6	23.0	0.1	1.9
3분위 (~60%)	48.5	17.2	8.9	2.9	20.1	-	2.4	50.7	14.6	6.9	7.1	18.9	0.2	1.7
4분위 (~80%)	63.3	9.5	2.1	5.4	18.0	-	1.7	63.5	9.0	2.6	6.5	16.6	0.0	1.8
5분위 (~100%)	71.7	5.5	2.4	5.5	13.8	-	1.1	73.3	4.1	1.4	8.3	11.4	0.0	1.5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전체평균	50.4	17.7	7.3	4.2	18.3	-	2.1	52.6	15.8	6.5	5.8	17.3	0.1	1.8
1분위 (~20%)	10.7	49.2	17.7	2.4	17.5	-	2.7	7.9	51.9	17.0	1.0	18.3	-	3.9
~ 5% 미만	11.2	47.4	20.6	11.2	9.8	-	-	2.2	29.3	36.3	-	27.4	-	4.8
5~10% 미만	3.1	63.2	10.6	-	15.9	-	7.2	4.6	50.7	16.3	0.9	22.6	-	4.9
10~20% 미만	12.8	45.3	19.3	1.7	19.1	-	1.8	9.5	54.8	15.1	1.1	16.0	-	3.6
2분위 (~40%)	35.3	25.9	9.6	4.4	23.0	-	1.9	36.1	25.3	11.2	4.0	22.4	0.1	0.9
3분위 (~60%)	49.5	18.0	9.4	3.6	16.4	-	3.1	54.4	15.7	7.2	4.8	16.7	-	1.1
4분위 (~80%)	61.5	11.1	4.5	2.5	18.5	-	2.0	60.1	10.5	4.0	6.1	17.6	-	1.8
5분위 (~100%)	67.9	5.3	2.5	7.0	16.3	-	1.0	68.8	3.7	1.9	9.4	13.5	0.2	2.6
구분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전체평균	52.6	17.4	5.4	6.5	16.3	0.0	1.9	52.8	16.0	6.3	5.8	17.3	0.0	1.8
1분위 (~20%)	9.4	48.7	15.9	2.5	21.5	0.4	1.6	5.4	47.0	19.1	0.8	24.9	-	2.7
~ 5% 미만	6.6	49.0	16.8	2.9	22.1	-	2.8	4.4	23.3	26.8	2.6	42.9	-	-
5~10% 미만	4.1	63.0	9.8	7.7	13.8	1.7	-	4.7	37.5	27.8	1.8	25.0	-	3.2
10~20% 미만	11.7	43.9	17.8	0.6	24.0	-	2.0	5.7	52.6	15.5	0.3	23.1	-	2.9
2분위 (~40%)	38.9	28.0	8.0	5.0	17.3	-	2.9	33.0	27.2	11.1	5.0	22.6	-	1.1
3분위 (~60%)	52.1	15.9	5.2	6.8	18.2	-	1.8	52.6	16.4	6.9	5.0	18.0	-	1.0
4분위 (~80%)	61.6	11.4	2.8	6.7	15.4	-	2.1	61.2	10.4	3.3	6.9	15.9	0.2	2.2
5분위 (~100%)	70.5	4.8	2.3	8.5	13.0	-	0.9	73.9	3.4	1.5	7.4	11.6	-	2.2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가구주 연령분포에 따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직에 있는 비중이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시 및 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3-20〉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연령 분포

(단위: %)

전체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34세 이하	67.0	12.9	3.7	4.0	9.2	0.0	3.2	73.3	12.1	3.2	1.8	7.9	0.0	1.6
35~49세	65.3	8.7	3.3	5.5	15.4	0.0	1.7	66.2	7.2	3.3	7.1	14.5	0.0	1.8
50~64세	40.7	20.0	10.3	3.7	23.4	0.0	1.8	45.4	15.7	8.8	7.6	20.6	0.1	1.9
65세 이상	18.9	39.4	11.3	2.5	25.5	0.0	2.5	21.3	33.1	9.8	4.3	30.2	0.0	1.4
전체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34세 이하	68.9	12.2	4.2	3.1	6.9	-	4.6	70.7	16.4	3.7	0.9	7.0	-	1.2
35~49세	62.9	9.4	3.9	5.8	16.3	-	1.8	65.7	7.2	3.7	6.3	14.9	0.0	2.3
50~64세	43.2	17.6	10.8	3.4	23.5	-	1.6	46.1	14.6	9.4	7.5	20.7	0.1	1.6
65세 이상	15.3	48.3	12.2	1.9	20.1	-	2.3	16.7	46.8	9.4	3.2	22.6	-	1.3
전체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34세 이하	75.0	13.3	0.9	4.0	5.5	-	1.3	68.5	18.0	2.7	1.4	8.3	-	1.1
35~49세	64.9	8.7	2.8	8.2	13.6	-	1.8	65.6	7.5	3.4	6.6	14.8	-	2.1
50~64세	45.5	16.2	7.8	6.0	22.5	-	2.0	47.1	14.0	9.3	6.8	20.7	0.1	1.9
65세 이상	16.2	50.0	10.5	3.7	17.3	0.2	2.1	18.1	46.5	9.6	3.5	21.4	-	0.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65세 이상의 경우 전년 동분기 대비 임시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비중이 2018년 들어 증가 추세이며, 34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등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 가구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인다. 35세 이상 64세 이하 가구주 가구에서도 17년 1분기 대비 18년 1분기에서 다른 경제활동상태에 비해 자영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층 가구주 가구와 비슷한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고분위(소득 80~100%)의 경우 전 계층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상용직의 비중은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자영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3-21〉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연령 분포 (5분위)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20% 미만	34세 이하	25.1	13.1	-	5.5	28.8	-	27.4	31.0	36.8	21.1	-	4.9	-	6.2
	35~49세	23.5	28.3	23.0	0.8	18.6	0.0	5.8	14.3	24.2	18.7	7.5	31.0	0.0	4.2
	50~64세	11.0	41.1	23.1	0.0	24.8	0.0	0.0	13.8	31.0	22.0	0.0	30.8	0.0	2.4
	65세 이상	0.6	62.4	15.5	0.0	18.1	0.0	3.4	1.8	41.2	18.5	1.6	35.6	0.0	1.4
20~40% 미만	34세 이하	41.2	29.0	11.7	7.0	11.2	0.0	0.0	44.3	34.7	8.5	3.1	8.1	0.0	1.3
	35~49세	43.8	20.6	6.3	7.2	20.1	0.0	2.1	42.9	14.6	9.2	6.8	24.3	0.3	1.9
	50~64세	24.2	28.1	13.1	3.1	27.9	0.0	3.6	27.0	29.8	15.8	3.4	21.1	0.0	3.0
	65세 이상	20.3	36.6	10.4	3.0	25.7	0.0	4.1	20.1	33.2	10.9	3.0	32.4	0.0	0.4
40~60% 미만	34세 이하	66.3	15.8	0.6	3.0	7.6	0.0	6.8	77.2	9.6	1.3	1.8	9.8	0.0	0.4
	35~49세	59.1	9.8	5.6	4.0	20.0	0.0	1.6	62.2	6.9	4.0	8.6	15.9	0.0	2.5
	50~64세	30.4	24.8	16.2	1.8	24.6	0.0	2.3	36.1	18.9	12.4	7.4	23.7	0.6	1.0
	65세 이상	26.1	32.9	14.6	0.9	25.5	0.0	0.0	21.9	40.4	6.7	4.6	24.9	0.0	1.5
60~80% 미만	34세 이하	78.5	4.2	3.8	3.7	9.1	0.0	0.7	87.1	1.9	0.0	1.6	8.2	0.0	1.2
	35~49세	73.5	4.7	0.5	5.4	13.5	0.0	2.3	71.9	7.1	1.1	6.3	11.8	0.0	1.9
	50~64세	45.3	15.5	3.8	6.3	28.0	0.0	1.2	51.1	10.8	5.0	8.4	22.8	0.0	1.9
	65세 이상	27.1	33.7	6.6	4.1	28.5	0.0	0.0	35.3	23.0	4.9	5.1	29.5	0.0	2.2
80~100% 미만	34세 이하	88.8	0.0	0.0	2.6	7.5	0.0	1.1	90.0	0.2	0.0	1.2	5.6	0.0	3.0
	35~49세	80.5	2.4	0.3	6.4	10.0	0.0	0.5	82.4	1.7	0.0	6.6	8.7	0.0	0.8
	50~64세	63.0	9.0	4.9	4.9	16.8	0.0	1.5	63.3	6.7	3.1	10.9	14.3	0.0	1.7
	65세 이상	30.7	16.7	5.8	6.7	37.0	0.0	3.2	48.2	12.5	0.0	13.4	22.4	0.0	3.5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20% 미만	34세 이하	17.4	33.0	11.8	11.3	13.2	-	13.2	9.5	60.2	11.2	-	9.4	-	9.7
	35~49세	18.0	22.3	25.8	6.7	21.7	-	5.5	23.0	27.3	20.6	4.3	14.7	-	10.2
	50~64세	16.1	36.7	22.4	-	24.9	-	-	9.4	33.7	24.7	-	28.7	-	3.5
	65세 이상	4.0	68.6	12.5	0.8	12.3	-	1.8	1.1	69.9	12.4	0.4	15.3	-	0.9
20~40% 미만	34세 이하	65.5	12.3	12.1	4.7	5.4	-	-	51.2	32.2	7.6	0.8	8.2	-	-
	35~49세	43.0	19.8	5.3	6.9	23.0	-	2.0	49.6	11.3	9.1	6.7	22.1	0.2	1.0
	50~64세	25.9	30.3	12.7	2.1	26.5	-	2.6	31.9	25.9	15.9	3.5	22.4	-	0.5
	65세 이상	15.3	40.9	13.1	1.8	27.0	-	1.9	9.6	47.5	9.7	1.5	30.2	-	1.5
40~60% 미만	34세 이하	61.5	20.4	2.6	2.1	2.9	-	10.4	73.4	13.6	4.7	0.4	7.9	-	-
	35~49세	65.5	10.0	3.8	3.2	15.4	-	2.0	64.1	8.4	3.5	6.5	15.6	-	1.9
	50~64세	28.3	20.0	18.9	5.6	24.7	-	2.5	43.2	19.2	12.6	4.3	20.6	-	0.1
	65세 이상	18.2	47.0	17.5	1.9	15.5	-	-	26.4	40.2	9.5	3.0	18.9	-	2.0
60~80% 미만	34세 이하	78.3	6.5	1.1	1.1	10.5	-	2.5	89.2	4.3	-	-	5.4	-	1.1
	35~49세	72.0	5.3	2.5	3.8	14.0	-	2.4	71.7	5.7	1.4	5.5	13.9	-	1.8
	50~64세	51.4	14.4	7.2	0.9	25.2	-	1.0	44.5	13.5	7.6	8.6	23.7	-	2.3
	65세 이상	24.2	35.6	8.6	2.8	25.8	-	3.1	31.8	31.7	7.5	4.7	24.4	-	-
80~100% 미만	34세 이하	87.4	-	-	3.0	9.6	-	-	85.9	3.5	-	3.2	5.8	-	1.6
	35~49세	73.7	2.8	0.6	9.5	13.3	-	0.1	78.2	1.6	0.3	7.1	9.7	-	3.2
	50~64세	62.3	6.8	4.7	5.5	19.5	-	1.3	61.1	4.7	3.5	11.5	16.7	0.3	2.2
	65세 이상	34.7	21.1	5.4	4.2	26.7	-	7.9	45.0	10.7	1.4	16.2	23.7	-	3.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20분위로 좀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소득 5% 미만에서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 임시직 보다는 일용직 비중이 증가하였고, 자영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는 저년 동분기와 비교시 자영자의 비중은 2.2%p 증가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용직의 경우 큰 폭(11.5%p)으로 증가한 모습이다. 소득 10% 이상 20% 미만 분위를 세분하여 보더라도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의 자영자 비율은 전년 동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3-22〉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연령 분포 (20분위)

(단위: %)

구분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5% 미만	34세 이하	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35~49세	0.0	0.0	70.0	0.0	30.0	0.0	0.0	17.7	22.5	8.9	0.0	50.9	0.0	0.0
	50~64세	8.3	66.5	13.3	0.0	12.0	0.0	0.0	0.0	27.4	22.8	0.0	49.8	0.0	0.0
	65세 이상	0.0	71.4	16.0	0.0	12.6	0.0	0.0	0.0	57.8	27.5	0.0	14.8	0.0	0.0
5~10% 미만	34세 이하	25.6	20.3	0.0	0.0	11.6	0.0	42.5	0.0	100.0	0.0	0.0	0.0	0.0	0.0
	35~49세	4.7	48.5	24.7	0.0	22.2	0.0	0.0	0.0	27.5	55.1	0.0	17.4	0.0	0.0
	50~64세	12.8	72.8	9.7	0.0	4.7	0.0	0.0	10.5	27.9	31.4	0.0	23.3	0.0	6.8
	65세 이상	0.0	59.9	12.6	0.0	27.6	0.0	0.0	0.0	39.8	10.4	4.5	42.1	0.0	3.2
10~15% 미만	34세 이하	0.0	0.0	0.0	100.0	0.0	0.0	0.0	12.6	75.3	12.1	0.0	0.0	0.0	0.0
	35~49세	8.6	62.8	5.3	0.0	11.2	0.0	12.3	9.8	41.1	10.7	6.7	19.9	0.0	11.8
	50~64세	11.2	27.6	33.4	0.0	27.7	0.0	0.0	12.6	26.7	24.3	0.0	33.0	0.0	3.4
	65세 이상	0.0	74.1	10.3	0.0	8.5	0.0	7.1	2.6	36.5	23.5	3.7	33.8	0.0	0.0
15~20% 미만	34세 이하	35.6	0.0	0.0	0.0	64.4	0.0	0.0	30.0	19.3	31.6	0.0	8.4	0.0	10.8
	35~49세	40.7	13.5	19.8	1.6	18.1	0.0	6.4	19.9	11.0	19.9	12.4	36.2	0.0	0.7
	50~64세	10.3	27.8	25.0	0.0	36.9	0.0	0.0	20.9	36.3	16.1	0.0	26.2	0.0	0.5
	65세 이상	1.5	50.5	20.6	0.0	23.8	0.0	3.7	3.0	37.9	17.5	0.0	40.2	0.0	1.4
구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5% 미만	34세 이하												100.0		
	35~49세	4.4	33.7	28.0	29.4	4.4	-	-	13.3	26.4	13.0	-	26.8	-	20.4
	50~64세	25.5	33.4	26.6	-	14.4	-	-	-	31.5	36.6	-	28.8	-	3.1
	65세 이상	-	72.4	8.6	10.6	8.4	-	-	-	32.4	55.3	-	12.3	-	-
5~10% 미만	34세 이하	-	43.2	-	-	-	-	56.8	-	29.1	30.9	-	-	-	40.0
	35~49세	19.8	-	1.0	-	47.3	-	32.0	15.6	46.8	15.3	-	10.0	-	12.3
	50~64세	5.7	38.9	40.9	-	14.5	-	-	4.3	37.4	22.1	-	36.2	-	-
	65세 이상	-	80.6	7.2	-	12.1	-	-	-	63.4	11.5	2.0	23.1	-	-
10~15% 미만	34세 이하	46.9	12.5	14.8	-	25.8	-	-	-	95.7	-	-	4.3	-	-
	35~49세	13.1	54.7	23.5	-	8.8	-	-	24.2	27.1	20.6	-	28.2	-	-
	50~64세	18.0	32.8	10.0	-	39.3	-	-	11.6	43.4	28.4	-	16.7	-	-
	65세 이상	4.2	68.7	11.9	-	9.4	5.7	-	-	84.1	8.3	-	7.5	-	-
15~20% 미만	34세 이하	-	46.3	16.0	28.6	9.1	-	-	19.6	51.5	14.3	-	6.0	-	8.6
	35~49세	22.1	14.4	31.2	5.1	24.4	-	2.9	28.3	16.1	24.9	9.7	8.6	-	12.6
	50~64세	13.5	40.7	26.2	-	19.6	-	-	14.6	26.0	19.2	-	32.2	-	7.9
	65세 이상	8.3	56.9	18.6	-	16.2	-	-	2.7	65.4	11.3	-	18.6	-	2.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앞의 분석을 간단히 정리하면, 전년(2017년) 1분기 대비 2018년 1분기의 분위별 소득분포와 가구특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동분기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저분위의 경우 그 감소폭은 크게 나타나며, 소득 20% 미만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급 비율을 20분위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소득 5% 미만의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비율이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하였고, 35~49세, 50~64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사회수혜금과 사회적현물이전 수급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35~64세 가구주 가구에서는 소득 5% 미만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소득 항목별로 10% 내외의 수급 비율을 보였으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계층이 아닌 저소득 중고령 및 청년 가구주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가구주 평균연령을 분위별로 보면, 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나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높은 분위(5분위, 80~100%)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18년 1분기 기준 49.3세로 1분위와 비교시 17.5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전년 동분기 대비 분위별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비율을 비교하면, 저분위 가구일수록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 임시직 비율보다 일용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령층 가구주 가구에서 자영자의 비율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 특성별 소득분배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취약계층 및 빈곤층 보호를 위한 소득보장 방안에 대해 파악 가능하다. 저분위의 가구주 연령, 가구주 종사상지위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여부와 평균급여액 비교시 저분위의 경우 60~70% 이상이 65세 노인가구주였으며, 이들 중에서도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일용직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가 또, 기타(비경제활동 등)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위기를 세분화함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 이외의 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표본수가 현저히 적은 한계로 분위 구분에 대해 연구진행 과정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표 3-23〉 저분위 가구주 특성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수급여부

(단위: %)

분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종사상지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사회적 헌물이전	세금 환급금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사회적 헌물이전	세금 환급금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5%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	-	-	-	-	0.0	0.0	100.0	0.0	0.0
		비임금근로자	0.0	0.0	0.0	0.0	0.0	-	-	-	-	-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5-49세	임금근로자	0.0	0.0	0.0	0.0	0.0	0.0	0.0	18.2	0.0	0.0
		비임금근로자	0.0	0.0	100.0	0.0	0.0	0.0	0.0	20.3	31.3	0.0
		기타	13.5	8.1	2.7	19.8	0.0	4.2	5.8	14.9	2.4	0.0
	50-64세	임금근로자	0.0	0.0	0.0	8.0	0.0	0.0	1.8	2.1	39.3	0.0
		비임금근로자	88.8	0.0	0.0	0.0	0.0	5.8	0.0	0.0	0.0	0.0
		기타	10.6	3.9	3.4	8.9	0.0	12.3	2.6	7.3	10.0	0.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10.9	73.6	0.0	0.0	0.0	6.3	84.9	0.0	20.4	0.0
		비임금근로자	0.0	46.0	0.0	0.0	0.0	0.0	100.0	0.0	0.0	0.0
		기타	22.3	85.3	4.9	15.1	0.0	14.5	85.6	3.6	11.9	0.1
5-10%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0.0	0.0	0.0	0.0	0.0	0.0	53.5	0.0	53.5	0.0
		비임금근로자	0.0	0.0	100.0	0.0	0.0	-	-	-	-	-
		기타	0.0	0.0	23.0	0.0	0.0	0.0	0.0	2.2	2.2	0.0
	35-49세	임금근로자	0.0	0.0	43.1	9.7	0.0	45.4	45.4	52.1	42.8	0.0
		비임금근로자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23.9	39.4	36.0	23.7	0.0	0.0	11.8	11.5	17.0	0.0
	50-64세	임금근로자	4.3	5.8	2.5	1.8	0.0	7.8	12.2	11.5	41.7	0.0
		비임금근로자	0.0	0.0	0.0	49.2	0.0	0.0	0.0	0.0	0.0	0.0
		기타	13.6	9.4	36.4	21.0	0.0	30.2	12.9	31.0	30.5	0.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54.8	90.0	0.0	37.8	0.0	24.0	95.5	5.3	4.2	0.0
		비임금근로자	30.4	100.0	18.6	35.8	0.0	53.8	78.1	0.0	17.0	0.0
		기타	43.7	88.7	21.7	30.9	0.0	41.3	90.2	19.3	17.0	0.0
분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종사상지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사회적 헌물이전	세금 환급금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사회적 헌물이전	세금 환급금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5%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	-	-	-	-	-	-	-	-	-
		비임금근로자	-	-	-	-	-	0.0	0.0	0.0	0.0	0.0
		기타	0.0	0.0	11.7	8.6	0.0	0.0	0.0	6.2	0.0	0.0
	35-49세	임금근로자	0.0	0.0	0.0	0.0	0.0	0.0	0.0	24.7	0.0	25.3
		비임금근로자	0.0	0.0	0.0	87.0	0.0	0.0	0.0	0.0	100.0	0.0
		기타	13.2	16.3	19.2	3.4	0.0	1.9	1.3	17.2	4.0	0.0
	50-64세	임금근로자	0.0	0.0	0.0	0.0	0.0	6.8	0.0	0.0	33.4	0.0
		비임금근로자	44.9	0.0	0.0	0.0	0.0	5.9	0.0	0.0	0.0	0.0
		기타	15.9	0.7	2.4	6.1	0.0	19.0	2.0	6.9	5.1	0.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16.9	77.5	0.0	0.0	0.0	0.0	82.5	41.1	0.0	0.0
		비임금근로자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기타	29.3	80.4	6.5	21.5	0.0	18.8	84.9	5.5	8.1	0.0
5-10%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0.0	0.0	0.0	0.0	0.0	0.0	0.0	0.0	21.6	0.0
		비임금근로자	-	-	-	-	-	-	-	-	-	-
		기타	0.0	0.0	0.0	0.0	0.0	0.0	8.9	6.2	0.0	0.0
	35-49세	임금근로자	0.0	0.0	0.0	95.2	0.0	0.0	0.0	20.1	31.8	0.0
		비임금근로자	0.0	0.0	11.8	28.6	0.0	0.0	29.3	70.7	29.3	0.0
		기타	16.7	0.0	33.6	22.8	0.0	0.0	2.9	32.7	14.6	0.0
	50-64세	임금근로자	11.6	12.9	15.1	10.3	0.0	7.8	0.0	5.6	31.7	0.0
		비임금근로자	0.0	0.0	0.0	0.0	0.0	0.0	0.0	0.0	13.3	0.0
		기타	49.2	17.0	26.1	16.8	0.0	26.8	7.7	26.1	18.8	0.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33.8	97.3	12.4	16.9	0.0	10.9	95.8	3.8	23.7	0.0
		비임금근로자	33.4	100.0	35.9	28.7	0.0	48.1	100.0	0.0	44.0	0.0
		기타	32.1	88.3	25.4	30.1	0.0	45.4	91.8	18.6	14.9	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표 3-24〉 저분위 가구주 특성에 따른 공적이전소득 평균액

(단위: 원/월)

분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종사상지위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 환급금	공적 연금	기초 연금	사회 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 환급금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5%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	-	-	-	-	0	0	900,000	0	0
		비임금근로자	0	0	0	0	0	-	-	-	-	-
		기타	0	0	0	0	0	0	0	0	0	0
	35-49세	임금근로자	0	0	0	0	0	0	0	5,646	0	0
		비임금근로자	0	0	150,000	0	0	0	0	48,625	27,931	0
		기타	34,093	16,521	277	6,519	0	1,130	3,739	28,458	430	0
	50-64세	임금근로자	0	0	0	3,173	0	0	3,640	4,640	16,622	0
		비임금근로자	252,743	0	0	0	0	21,469	0	0	0	0
		기타	33,927	7,914	1,410	14,417	0	31,532	5,625	11,481	7,198	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12,882	203,623	0	0	0	12,587	197,392	0	1,645	0
		비임금근로자	0	149,807	0	0	0	0	256,901	0	0	0
		기타	38,239	201,698	10,398	3,594	0	28,619	191,042	3,788	4,409	14
5-10%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0	0	0	0	0	0	110,301	0	34,232	0
		비임금근로자	0	0	69,093	0	0	-	-	-	-	-
		기타	0	0	35,674	0	0	0	0	15,573	453	0
	35-49세	임금근로자	0	0	171,411	2,509	0	79,950	84,037	239,684	34,192	0
		비임금근로자	0	0	0	0	0	0	0	0	0	0
		기타	47,888	79,447	122,207	65,475	0	24,119	93,287	4,638	0	0
	50-64세	임금근로자	8,038	12,700	4,436	532	0	23,716	25,148	12,363	25,029	0
		비임금근로자	0	0	0	3,939	0	0	0	0	0	0
		기타	34,238	26,311	117,585	10,784	0	73,375	16,558	114,644	24,886	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116,592	223,988	0	45,095	0	35,516	242,038	13,041	125	0
		비임금근로자	48,290	237,646	7,424	1,205	0	173,158	179,637	0	4,148	0
		기타	97,769	201,302	40,580	16,598	0	93,636	210,443	39,124	7,193	0
분위	가구주 연령	가구주 종사상지위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5%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	-	-	-	-	-	-	-	-	-
		비임금근로자	-	-	-	-	-	0	0	0	0	0
		기타	0	0	19,288	2,369	0	0	0	23,961	0	0
	35-49세	임금근로자	0	0	0	0	0	0	0	7,652	0	95,597
		비임금근로자	0	0	0	13,922	0	0	0	0	15,675	0
		기타	26,413	32,679	49,855	2,613	0	3,785	1,909	33,834	140	0
	50-64세	임금근로자	0	0	0	0	0	12,046	0	0	5,562	0
		비임금근로자	127,925	0	0	0	0	21,665	0	0	0	0
		기타	42,515	1,493	3,236	7,984	0	48,463	4,102	18,000	1,288	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33,728	221,053	0	0	0	0	172,910	16,418	0	0
		비임금근로자	0	259,736	0	0	0	0	278,955	0	0	0
		기타	60,530	182,998	9,170	8,353	0	35,656	193,979	4,999	3,035	0
5-10%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0	0	0	0	0	0	0	0	4,224	0
		비임금근로자	-	-	-	-	-	-	-	-	-	-
		기타	0	0	0	0	0	0	18,731	26,788	0	0
	35-49세	임금근로자	0	0	0	51,413	0	0	0	29,181	19,011	0
		비임금근로자	0	0	17,692	2,005	0	0	61,438	282,976	8,729	0
		기타	31,745	0	127,336	6,984	0	0	6,165	266,279	8,521	0
	50-64세	임금근로자	33,409	26,623	4,492	16,623	0	14,037	0	12,235	10,939	0
		비임금근로자	0	0	0	0	0	0	0	0	20,360	0
		기타	97,050	35,267	121,280	7,915	0	121,629	14,189	85,831	22,052	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48,632	258,879	16,050	4,580	0	20,379	226,982	1,549	3,742	0
		비임금근로자	52,928	246,994	18,607	8,199	0	93,337	241,918	0	14,234	0
		기타	76,292	209,610	66,349	19,768	0	107,438	214,015	43,801	7,395	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2017년 1,2분기 대비 2018년 1,2분기의 저분위의 가구주 특성에 따른 비율 비교 시, 가구주의 종사상지위가 기타(비경제활동인구 등)인 비율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50~64세 가구주 가구에서 상승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3-25〉 저분위 가구주 특성별 비율 변화

(단위: %)

분위	가구주연령	가구주 종사상지위	2017년 1분기(A)	2018년 1분기(B)	증감(B-A)
5%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0.0	0.8	0.8
		비임금근로자	0.2	0.0	-0.2
		기타	0.7	5.0	4.3
	35-49세	임금근로자	1.4	1.1	-0.3
		비임금근로자	0.6	1.1	0.5
		기타	9.9	6.9	-3.0
	50-64세	임금근로자	3.2	2.4	-0.8
		비임금근로자	0.4	2.4	2.0
		기타	16.3	20.4	4.1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5.7	4.5	-1.2
		비임금근로자	0.8	0.8	0.0
		기타	60.8	54.6	-6.2
5-10%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1.0	0.6	-0.4
		비임금근로자	0.3	0.0	-0.3
		기타	3.8	4.5	0.7
	35-49세	임금근로자	2.6	1.3	-1.3
		비임금근로자	0.7	0.3	-0.4
		기타	3.1	2.3	-0.8
	50-64세	임금근로자	9.8	4.5	-5.3
		비임금근로자	0.5	1.5	1.0
		기타	4.7	8.3	3.6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4.5	3.9	-0.6
		비임금근로자	1.7	3.6	1.9
		기타	67.3	73.3	6.0

분위	가구주연령	가구주 종사상지위	2017년 2분기(A)	2018년 2분기(B)	증감(B-A)
5%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0.0	0.0	0.0
		비임금근로자	0.0	0.4	0.4
		기타	2.5	7.8	5.3
	35-49세	임금근로자	2.5	0.7	-1.8
		비임금근로자	1.3	0.4	-0.9
		기타	8.8	7.8	-1.0
	50-64세	임금근로자	5.1	2.8	-2.3
		비임금근로자	0.9	1.2	0.3
		기타	17.5	18.7	1.2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4.4	2.2	-2.2
		비임금근로자	1.0	0.3	-0.7
		기타	56.0	57.7	1.7
5-10% 미만	34세 이하	임금근로자	0.8	0.7	-0.1
		비임금근로자	0.0	0.0	0.0
		기타	3.8	5.2	1.4
	35-49세	임금근로자	0.7	3.9	3.2
		비임금근로자	1.6	0.5	-1.1
		기타	4.9	4.8	-0.1
	50-64세	임금근로자	3.4	4.0	0.6
		비임금근로자	0.6	2.3	1.7
		기타	3.5	9.5	6.0
	65세 이상	임금근로자	17.5	7.6	-9.9
		비임금근로자	2.4	2.6	0.2
		기타	60.9	58.8	-2.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위의 분석을 토대로 2017년 동분기 대비 2018년의 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분위가 낮을수록 가구주 연령이 고령으로 65세 이상으로 나타나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하향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분석한 결과, 분위별로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5분위 기준 1~2분위는 임시·일용 및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3분위 이상에서는 상용직의 비중이 높으며 분위가 높을수록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분위별 가구원수 분포를 보면, 저분위 일수록 평균가구원수가 적고, 1~2인 가구가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분위별로 공적이전소득 수준을 보면 시기별 및 분위별 차이를 보였다. 5분위 기준 1분위(20% 미만) 계층에서는 공적이전소득 중 기초연금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2분위 이상에서는 공적연금의 금액이 증가하였다. 5분위의 경우 1분기에는 세금환급금이 많았지만 이후 분기에는 공적연금이 주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음. 3분기 이후 3분위 이상에서 2018년에 사회수혜금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추가된 아동수당 및 근로장려금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의 여부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분기자료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1분위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적이전 혹은 사적이전 소득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3분기 들어서 소득 20~50% 미만에서는 공적이전 및 사적이전소득이 모두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2018년 하반기에 있었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인상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4분기(3개월) 자료에 모두 포함됨에 따라 4분기 분석을 통해 기초연금 확대 및 아동수당 시행 등 저소득 지원 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4 장

가구특성별 빈곤동태 분석

제1절 생애주기별 빈곤동태

제2절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

제3절 저소득 가구 특성 및 분위이동 특성

4

가구특성별 빈곤동태 분석 <<

제1절 생애주기별 빈곤동태

빈곤동태 분석의 목적은 취약집단의 빈곤실태를 장기적 시각에서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함은 물론 새로운 정책설계와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발굴하는데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빈곤의 동태 분석은 청년, 중장년, 노인 등 각 인구집단의 빈곤추이와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정책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KOWEPS) 1차 조사~13차 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13개년도 조사에 모두 응답한 사례로 균형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으며, 빈곤의 기준은 상대빈곤선을 적용하여 공공부조 전 가처분 소득의 중위 40%, 50%, 60%를 활용하였다. 최종 차수인 13차 년도의 종단 가중치를 활용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빈곤동태는 개인을 분석 대상으로 함에 따라, 가구가중치에 가구원 수를 곱한 개인가중치를 산출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생애주기의 구분은 2017년(13차 조사) 기준 연령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35세 이상 49세 이하를 중년으로, 50세 이상 64세 이하를 중고령,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청년과 노인은 각각 19~24세, 25~34세,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빈곤 동태는 2016년 및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첫째, 생애주기에 따른 유형별 빈곤의 동태적 변화와 둘째, 최근 5개년도의 빈곤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빈곤 유형은 장기 빈곤, 반복 빈곤, 일시 빈곤, 비빈곤으로 구분하였다. 1~13차까지 각 년도의 빈곤 여부를 판단하여, 5회 이상의 빈곤을 경험한 경우를 장기 빈곤, 2~4회의 빈곤을 경험한 경우를 반복 빈곤, 13차 기간 동안 1회만 빈곤을 경험한 경우를 일시 빈곤, 13차 기간 동안 빈곤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경우를 비빈곤으로 규정하였다. 빈곤 지위의 변화는 최근 5개년(8차~13차) 조사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년도와 그 이듬해의 빈곤 지위 이동 양상을 분석하였다.

1. 생애주기에 따른 유형별 빈곤의 동태적 변화

생애주기에 따른 유형별 빈곤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 본 결과, 세대에 따라 다른 양상이 확인되었다. 예측되는 바와 같이 장기 빈곤 경험률은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비율 또한 큰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반복 빈곤의 경우에도 중위 60%를 기준으로 한 청년(19~34세)의 경우(17.97%)을 제외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반복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빈곤노인, 특히 반복된 빈곤이나 장기 빈곤에 처한 노인에 대한 높은 정책적 보호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청년(19~34세)과 중년(35~49세)은 비빈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층과 중년층의 경우 OECD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장기빈곤과 반복빈곤을 합할 경우, 다시 말해 2회 이상의 빈곤을 경험한 비율이 약 25~33%에 이른다는 점은 청년기와 중년기의 빈곤문제 또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고령층(50~64세)의 경우 빈곤기준에 따라 그 양상이 상이하였다.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는 장기 빈곤을 경험한 개인이 가장 많았지만(18.29%),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는 반복빈곤 경험률(17.18%)이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일시 빈곤 경험률(12.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장기 빈곤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고령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에 대한 이중 부담과 가장 가난한 세대인 노인층으로 들어서고 있는 중고령 세대의 생애주기 과업과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표 4-1〉 유형별 빈곤의 동태적 변화 (2017년 연령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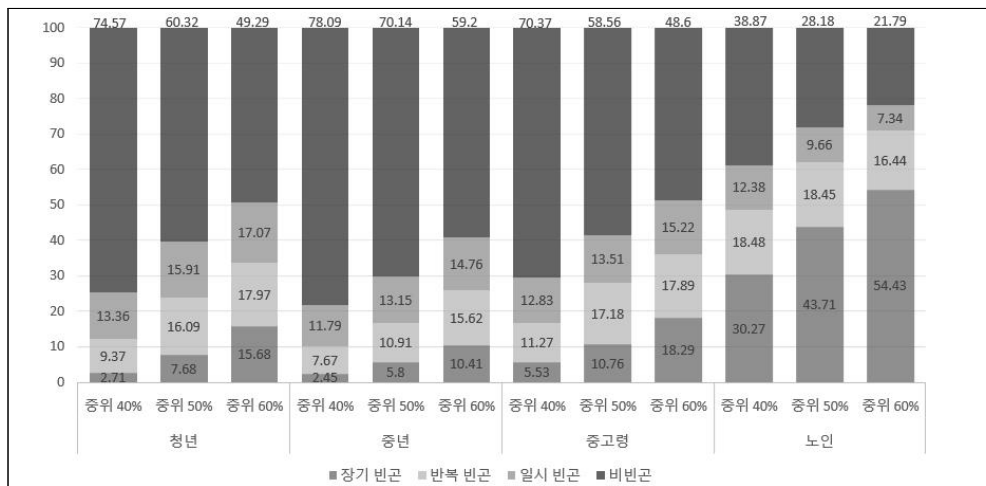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장기 빈곤	반복 빈곤	일시 빈곤	비빈곤
청년 (19~34세)	중위 40%	2.71	9.37	13.36	74.57
	중위 50%	7.68	16.09	15.91	60.32
	중위 60%	15.68	17.97	17.07	49.29
중년 (35~49세)	중위 40%	2.45	7.67	11.79	78.09
	중위 50%	5.80	10.91	13.15	70.14
	중위 60%	10.41	15.62	14.76	59.20
중고령 (50~64세)	중위 40%	5.53	11.27	12.83	70.37
	중위 50%	10.76	17.18	13.51	58.56
	중위 60%	18.29	17.89	15.22	48.60
노인 (65세 이상)	중위 40%	30.27	18.48	12.38	38.87
	중위 50%	43.71	18.45	9.66	28.18
	중위 60%	54.43	16.44	7.34	21.79

주: 1) 빈곤선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의 중위 60%, 50%, 4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 유형별 빈곤의 동태적 변화 (2017년 연령기준)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청년과 노인의 경우, 연령을 세분하여 빈곤의 동태적 변화가 어떠한 지를 살펴보았다. 청년은 19~24세로, 25~34세로 세분하였으며, 노인은 65~74세, 7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청년의 경우, 19~24세의 빈곤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

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24세의 장기빈곤 경험률(22.51%)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기의 빈곤이 청년기에 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그림 4-2]에 따르면, 19~24세는 장기 빈곤 경험률이, 25~34세는 일시 빈곤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2〉 청년의 빈곤경험 (2017년 연령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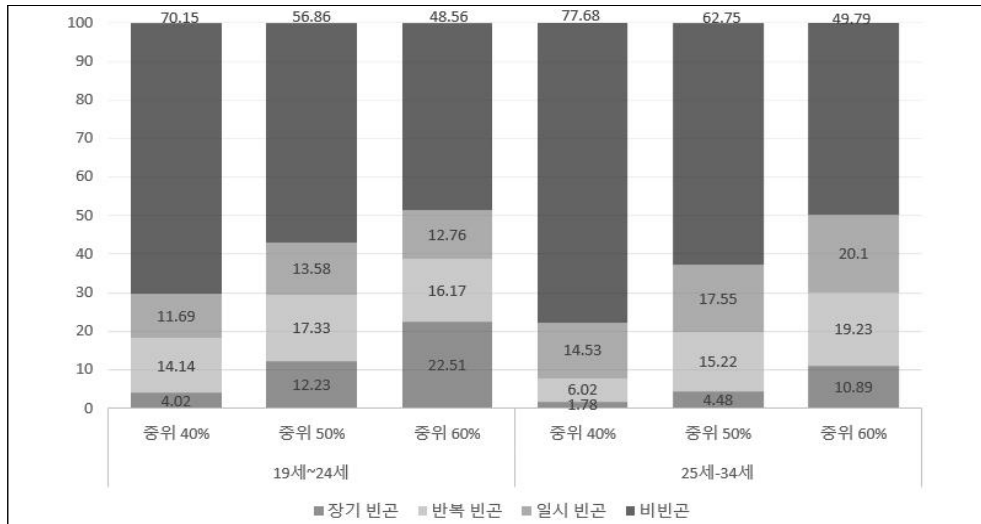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장기 빈곤	반복 빈곤	일시 빈곤	비빈곤
19~24세	중위 40%	4.02	14.14	11.69	70.15
	중위 50%	12.23	17.33	13.58	56.86
	중위 60%	22.51	16.17	12.76	48.56
25~34세	중위 40%	1.78	6.02	14.53	77.68
	중위 50%	4.48	15.22	17.55	62.75
	중위 60%	10.89	19.23	20.10	49.79

주: 1) 빈곤선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의 중위 60%, 50%, 4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2] 19~24세 청년의 유형별 빈곤 경험률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노인의 경우에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장기빈곤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의 기준과 관계없이, 장기 빈곤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65~74세의 경우에는 빈곤의 기준에 따라 경험의 양상이 다소 상이하였다.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는 비빈곤을 제외하고 반복 빈곤(19.89%), 장기 빈곤(17.50%), 일시 빈곤(14.00%)의 순으로,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는 장기 빈곤(29.86%), 반복 빈곤(21.91%), 일시 빈곤(12.25%)의 순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65~74세의 경우에도 장기 빈곤 경험률(40.94%)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복 빈곤을 경험하였다는 응답도 21.32%에 달하였다(표 4-3, 그림 4.3).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난한 노인의 빈곤 해소가 시급하며, 노인의 탈빈곤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빈곤에 처한 고령 노인들의 구체적 어려움을 밝히고 해소방안을 다차원적 전략을 통해 강구해야 함은 물론, 반복 빈곤에 처한 노인들이 장기빈곤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65~74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및 일자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견고히 보완하여 노인의 4고(빈곤, 고독, 무위, 질병)에 대처하고, 고령노인이 되었을 때 처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표 4-3〉 노인의 빈곤경험 (2017년 연령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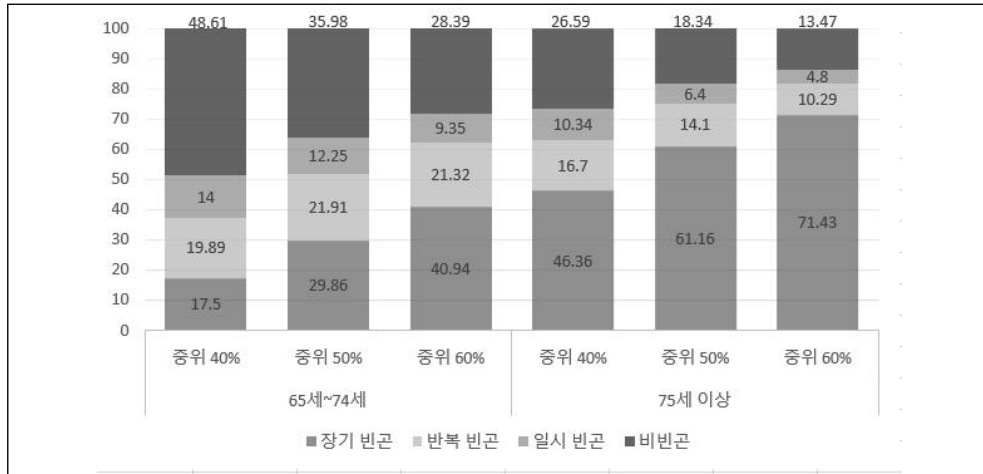
구분		장기 빈곤	반복 빈곤	일시 빈곤	비빈곤
65~74세	중위 40%	17.50	19.89	14.00	48.61
	중위 50%	29.86	21.91	12.25	35.98
	중위 60%	40.94	21.32	9.35	28.39
75세 이상	중위 40%	46.36	16.70	10.34	26.59
	중위 50%	61.16	14.10	6.40	18.34
	중위 60%	71.43	10.29	4.80	13.47

주: 1) 빈곤선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의 중위 60%, 50%, 4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3] 75세 이상 노인의 유형별 빈곤 경험률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2. 생애주기에 따른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생애주기별 최근 5개년도의 빈곤 지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청년(19~34세)의 빈곤 지위 유지 추이는 빈곤선과 관계없이 유사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12차→13차)에는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5년간 빈곤유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1차(2015년)→12차(201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빈곤→빈곤 추락 비율은 대체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 중위 60%의 경우에는 11차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11차→12차에서 0.5%포인트 증가하였으며, 12차→13차에 이르러 다시 4%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비빈곤→빈곤으로의 추락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빈곤이 유지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청년의 탈빈곤 정책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4-4〉 청년(19-34세)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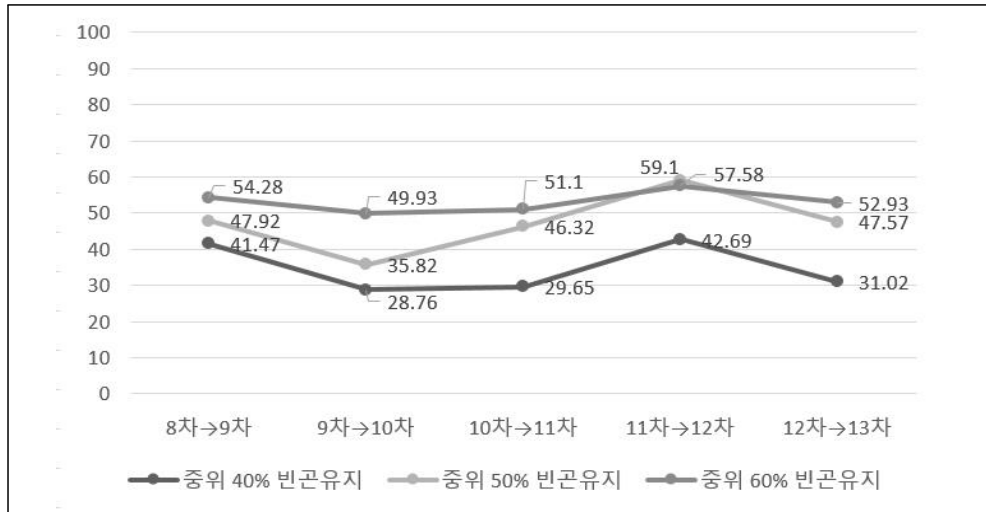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9차	9차→10차	10차→11차	11차→12차	12차→13차
중위 40%	빈곤	빈곤	41.47	28.76	29.65	42.69	31.02
		비빈곤	58.53	71.24	70.35	57.31	68.98
	비빈곤	빈곤	2.82	2.78	2.28	2.19	2.01
		비빈곤	97.18	97.22	97.72	97.81	97.99
중위 50%	빈곤	빈곤	47.92	35.82	46.32	59.10	47.57
		비빈곤	52.08	64.18	53.68	40.90	52.43
	비빈곤	빈곤	5.22	4.23	4.10	3.70	2.80
		비빈곤	94.78	95.77	95.90	96.30	97.20
중위 60%	빈곤	빈곤	54.28	49.93	51.10	57.58	52.93
		비빈곤	45.72	50.07	48.90	42.42	47.07
	비빈곤	빈곤	7.67	5.88	5.27	5.71	4.65
		비빈곤	92.33	94.12	94.73	94.29	95.35

주: 1) 빈곤선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의 중위 60%, 50%, 4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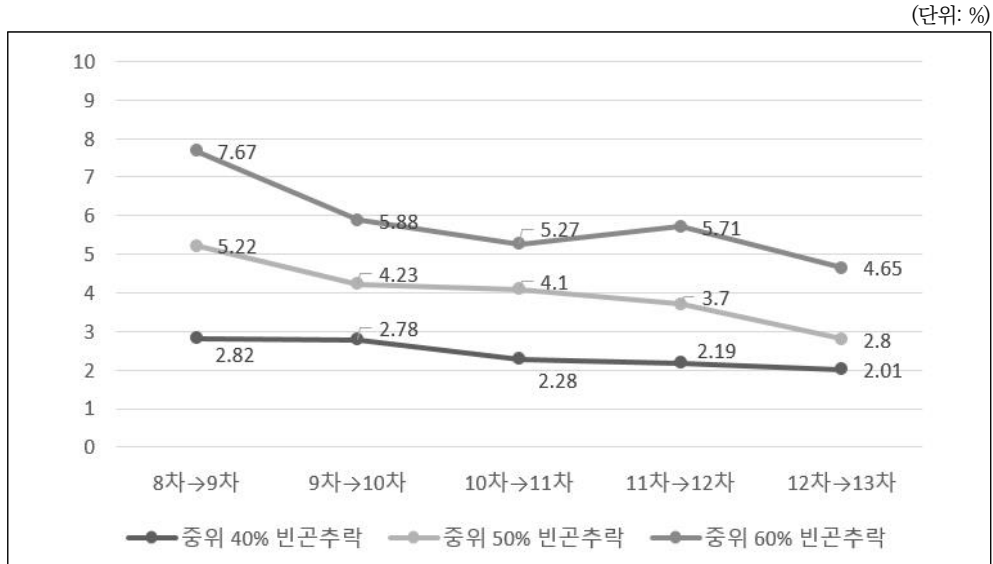
〔그림 4-4〕 청년(19-34세)의 빈곤 유지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5] 청년(19~34세)의 빈곤 추락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중년기(35~49세)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은 중위 40%의 경우 9차부터 증가경향을 보이다가 12차 조사 → 13차 조사에서 감소하였다. 중위 50%와 60%의 경우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빈곤 지위에서 빈곤지위로 추락하는 비율은 소폭의 증감이 있으나 대체로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고령(50~64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서 그 다음해로 빈곤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의 비율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추락하는 경우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10차→11차의 변화에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위 60%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12차→13차에 이르러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중년(35-49세)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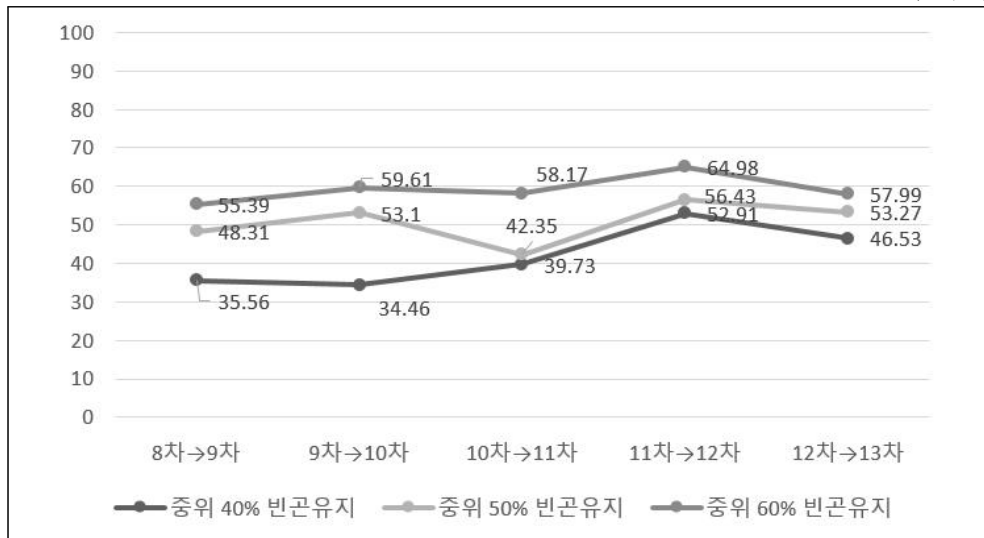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9차	9차→10차	10차→11차	11차→12차	12차→13차
중위 40%	빈곤	빈곤	35.56	34.46	39.73	52.91	46.53
		비빈곤	64.44	65.54	60.27	47.09	53.47
	비빈곤	빈곤	2.14	1.69	1.99	1.74	1.87
		비빈곤	97.86	98.31	98.01	98.26	98.13
중위 50%	빈곤	빈곤	48.31	53.10	42.35	56.43	53.27
		비빈곤	51.69	46.90	57.65	43.57	46.73
	비빈곤	빈곤	3.26	2.86	2.34	3.72	3.28
		비빈곤	96.74	97.14	97.66	96.28	96.72
중위 60%	빈곤	빈곤	55.39	59.61	58.17	64.98	57.99
		비빈곤	44.61	40.39	41.83	35.02	42.01
	비빈곤	빈곤	4.59	4.16	3.90	4.13	3.53
		비빈곤	95.41	95.84	96.10	95.87	96.47

주: 1) 빈곤선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의 중위 60%, 50%, 4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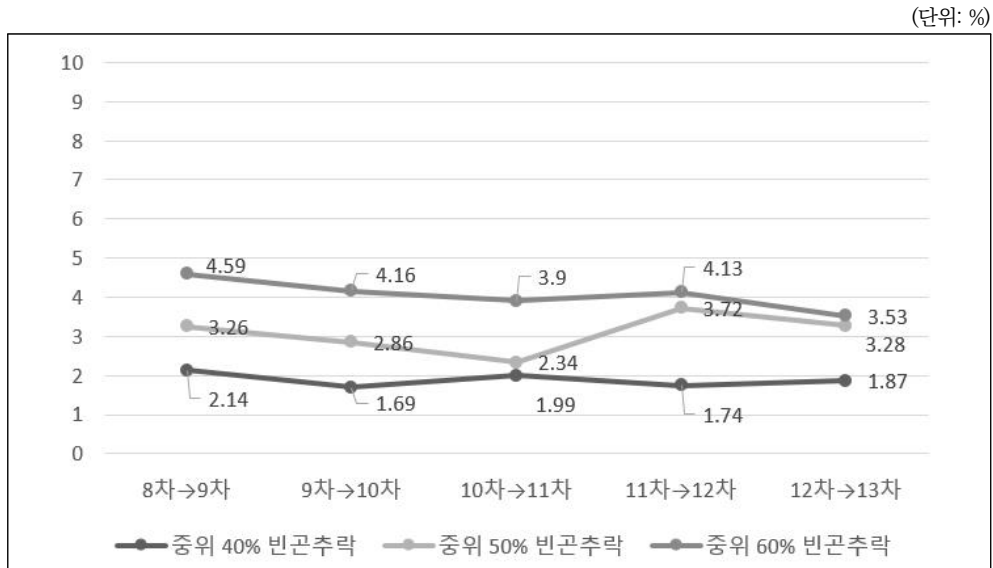
〔그림 4-6〕 중년(35-49세)의 빈곤 유지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7] 중년(35-49세)의 빈곤 추락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표 4-6〉 중고령(50-64세)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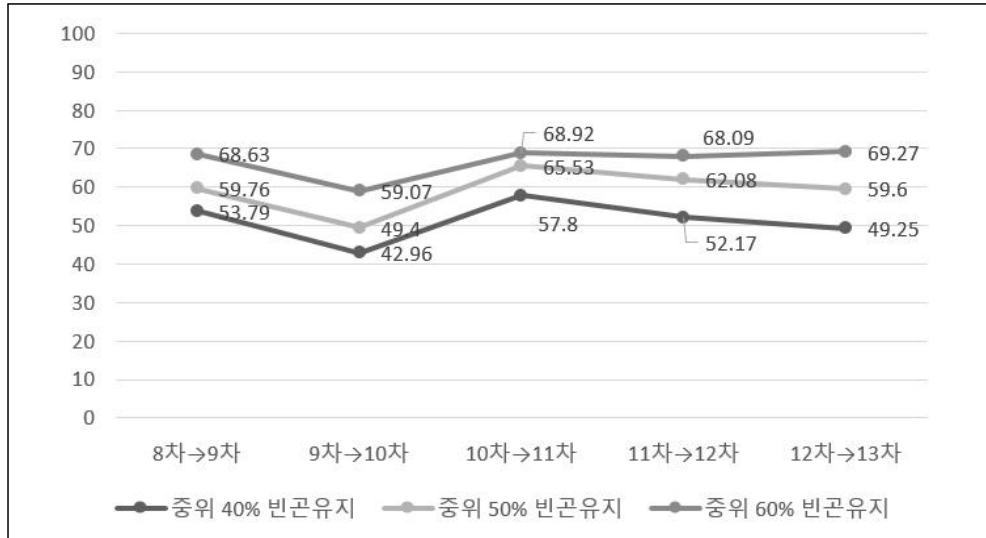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9차	9차→10차	10차→11차	11차→12차	12차→13차
중위 40%	빈곤	빈곤	53.79	42.96	57.80	52.17	49.25
		비빈곤	46.21	57.04	42.20	47.83	50.75
	비빈곤	빈곤	4.70	3.32	3.80	3.43	2.47
		비빈곤	95.30	96.68	96.20	96.57	97.53
중위 50%	빈곤	빈곤	59.76	49.40	65.53	62.08	59.60
		비빈곤	40.24	50.60	34.47	37.92	40.40
	비빈곤	빈곤	7.95	4.34	5.84	4.79	4.09
		비빈곤	92.05	95.66	94.16	95.21	95.91
중위 60%	빈곤	빈곤	68.63	59.07	68.92	68.09	69.27
		비빈곤	31.37	40.93	31.08	31.91	30.73
	비빈곤	빈곤	9.95	5.86	7.06	5.84	5.84
		비빈곤	90.05	94.14	92.94	94.16	94.16

주: 1) 빈곤선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의 중위 60%, 50%, 4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8] 중고령(50~64세)의 빈곤 유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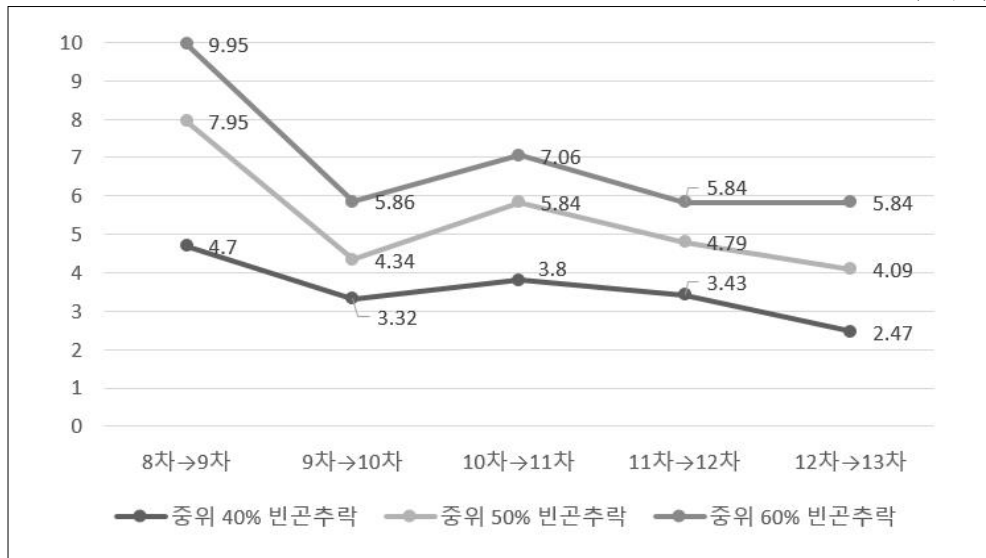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9] 중고령(50~64세)의 빈곤 추락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노인은 빈곤지위를 유지하는 비율과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추락하는 비율이 청년기와 중년기, 중고령기에 비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세대와 달리, 노인의 경우에는 12차→13차에서 빈곤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의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개입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반면,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중위 40%와 50%의 경우에는 8차에서 9차, 9차에서 10차, 10차에서 11차의 경우 감소하였으나 11차에서 12차로 오면서 다시 증가하였으며, 12차에서 13차에서 다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위 60%의 경우에는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추락하는 비율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차에서 11차에서 약 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후 다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7〉 노인(65세 이상)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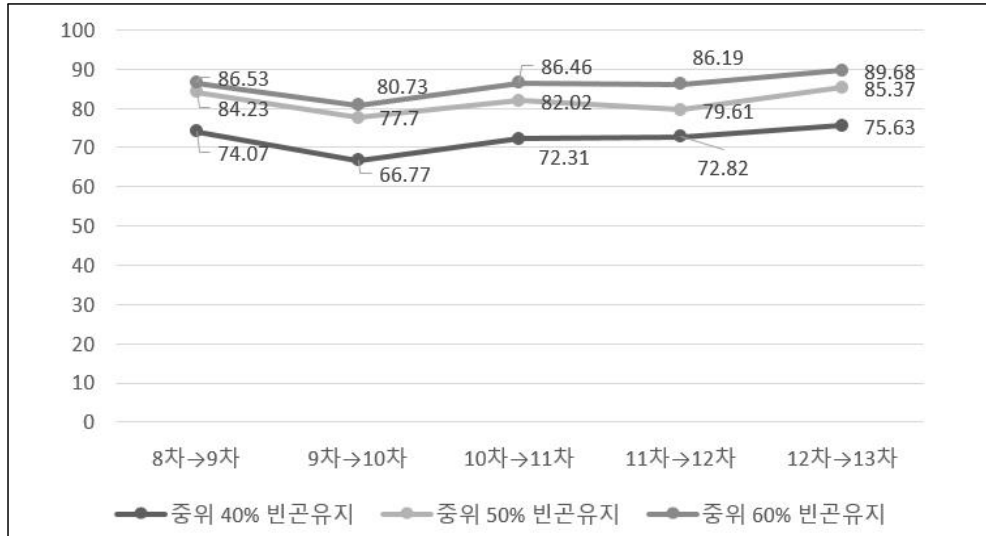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9차	9차→10차	10차→11차	11차→12차	12차→13차
중위 40%	빈곤	빈곤	74.07	66.77	72.31	72.82	75.63
		비빈곤	25.93	33.23	27.69	27.18	24.37
	비빈곤	빈곤	14.33	11.33	10.56	12.35	10.58
		비빈곤	85.67	88.67	89.44	87.65	89.42
중위 50%	빈곤	빈곤	84.23	77.70	82.02	79.61	85.37
		비빈곤	15.77	22.30	17.98	20.39	14.63
	비빈곤	빈곤	15.60	14.29	13.32	14.50	13.87
		비빈곤	84.40	85.71	86.68	85.50	86.13
중위 60%	빈곤	빈곤	86.53	80.73	86.46	86.19	89.68
		비빈곤	13.47	19.27	13.54	13.81	10.32
	비빈곤	빈곤	18.49	16.13	18.27	14.54	14.25
		비빈곤	81.51	83.87	81.73	85.46	85.75

주: 1) 빈곤선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의 중위 60%, 50%, 4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0] 노인(65세 이상)의 빈곤 유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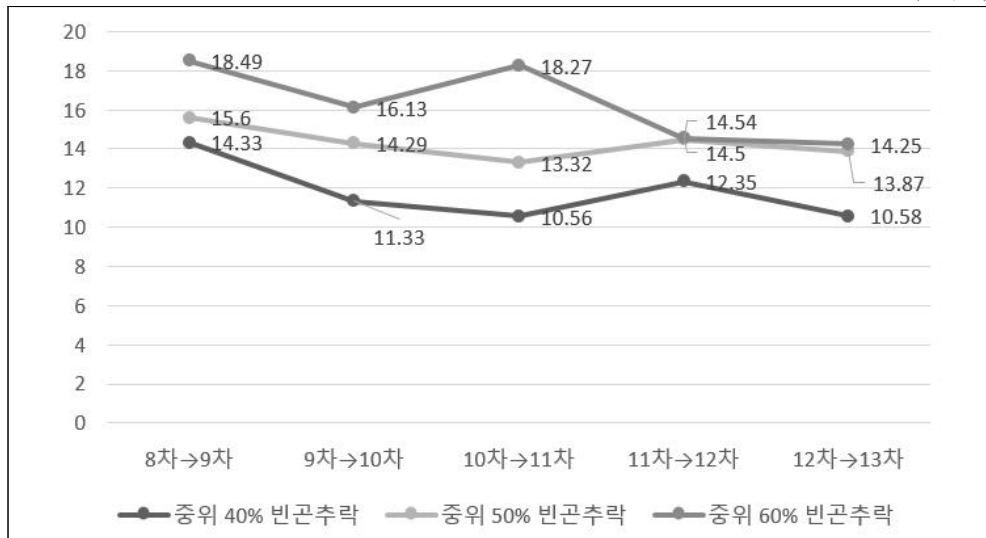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1] 노인(65세 이상)의 빈곤 추락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청년과 노인의 연령을 세분화하여 빈곤 지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각각 <표 4-8>와 <표 4-9>와 같다. 19~24세의 경우 중위40%, 50%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는 빈곤

지위 유지비율은 감소추세에서 10차→11차, 11차→12차에 이르러 증가하였으며, 12차→13차에서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위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빈곤 지위 유지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비빈곤에서 빈곤으로 추락하는 경우의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34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5~34세의 빈곤 지위 유지경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19~24세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19~24세와는 달리 25~34세의 비빈곤→빈곤으로의 추락은 10차→11차 조사를 기점으로 최근까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년세대의 어려움은 세부 연령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근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정교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4-8〉 19~24세, 25~34세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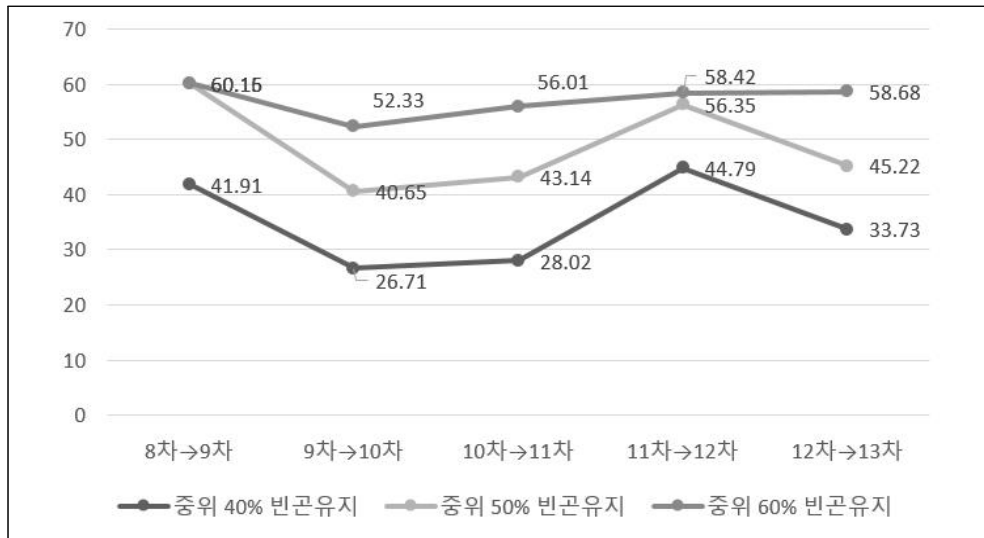
구분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9차	9차→10차	10차→11차	11차→12차	12차→13차
19~24세	중위 40%	빈곤	빈곤	41.91	26.71	28.02	44.79	33.73
		비빈곤	비빈곤	58.09	73.29	71.98	55.21	66.27
		빈곤	빈곤	3.46	3.12	2.95	2.65	1.19
		비빈곤	비빈곤	96.54	96.88	97.05	97.35	98.81
	중위 50%	빈곤	빈곤	60.16	40.65	43.14	56.35	45.22
		비빈곤	비빈곤	39.84	59.35	56.86	43.65	54.78
		빈곤	빈곤	5.66	4.68	6.16	5.18	2.51
		비빈곤	비빈곤	94.34	95.32	93.84	94.82	97.49
25~34세	중위 60%	빈곤	빈곤	60.15	52.33	56.01	58.42	58.68
		비빈곤	비빈곤	39.85	47.67	43.99	41.58	41.32
		빈곤	빈곤	8.81	8.55	8.14	6.27	3.12
		비빈곤	비빈곤	91.19	91.45	91.86	93.73	96.88
	중위 40%	빈곤	빈곤	47.60	46.95	44.24	56.07	45.93
		비빈곤	비빈곤	52.40	53.05	55.76	43.93	54.07
		빈곤	빈곤	6.99	4.07	3.32	5.34	5.69
		비빈곤	비빈곤	93.01	95.93	96.68	94.66	94.31
	중위 50%	빈곤	빈곤	32.56	29.00	50.24	62.92	50.52
		비빈곤	비빈곤	67.44	71.00	49.76	37.08	49.48
		빈곤	빈곤	4.95	3.93	2.62	2.62	3.00
		비빈곤	비빈곤	95.05	96.07	97.38	97.38	97.00
	중위 60%	빈곤	빈곤	40.72	31.57	31.27	40.19	28.10
		비빈곤	비빈곤	59.28	68.43	68.73	59.81	71.90
		빈곤	빈곤	2.41	2.54	1.78	1.84	2.60
		비빈곤	비빈곤	97.59	97.46	98.22	98.16	97.40

주: 1) 빈곤선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의 중위 60%, 50%, 4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2] 19-24세의 빈곤 유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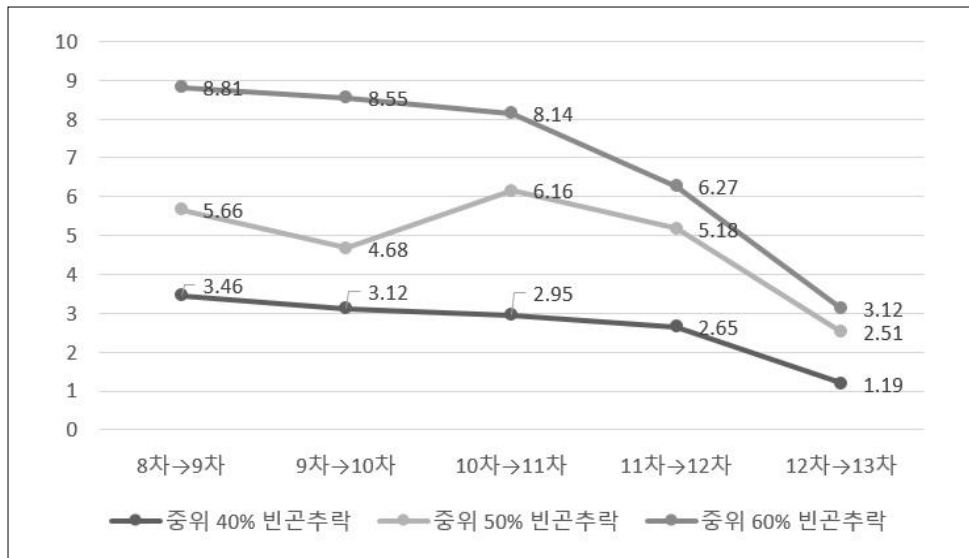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3] 19-24세의 빈곤 추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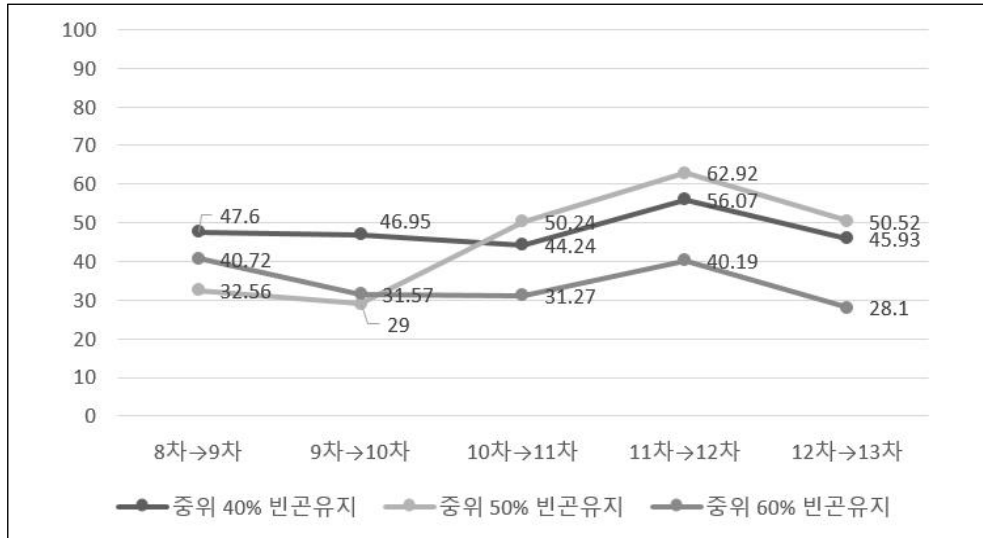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4] 25-34의 빈곤 유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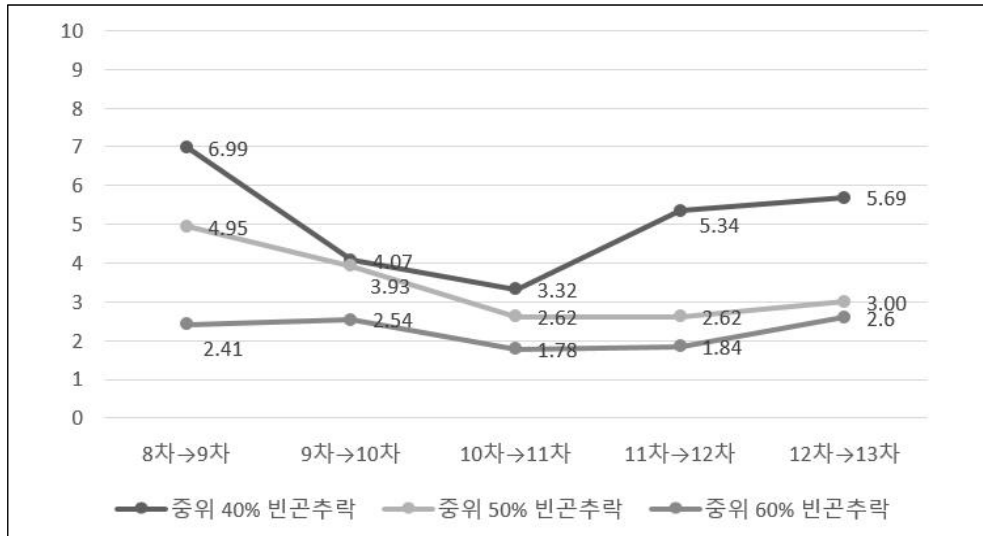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5] 25-34세의 빈곤 추락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노인의 연령을 65~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노인의 경우 빈곤 지위를 유지하는 비율은 세분화된 연령과 빈곤기준과 관계없이 10차 조사를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노인 빈곤의 진행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번 시작된 빈곤은 돌이킬 수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고령이 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장기화되는 것이다. 한편, 빈곤으로의 추락은 연령 구분과 빈곤선과 관계없이 소폭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4-9> 65~74세, 75세 이상의 최근 5개년도 빈곤 지위 변화 (2017년 연령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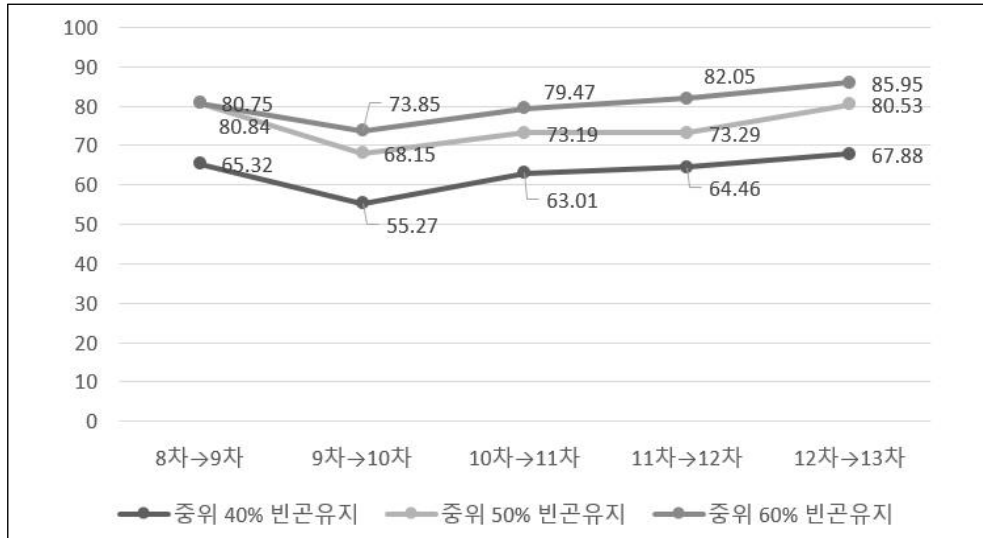
구분	이전 상태		이후 상태	8차→9차	9차→10차	10차→11차	11차→12차	12차→13차
65~74세	중위 40%	빈곤	빈곤	65.32	55.27	63.01	64.46	67.88
			비빈곤	34.68	44.73	36.99	35.54	32.12
		비빈곤	빈곤	9.83	8.98	9.20	9.13	8.87
			비빈곤	90.17	91.02	90.80	90.87	91.13
	중위 50%	빈곤	빈곤	80.84	68.15	73.19	73.29	80.53
			비빈곤	19.16	31.85	26.81	26.71	19.47
		비빈곤	빈곤	12.16	12.38	12.86	12.49	12.56
			비빈곤	87.84	87.62	87.14	87.51	87.44
	중위 60%	빈곤	빈곤	80.75	73.85	79.47	82.05	85.95
			비빈곤	19.25	26.15	20.53	17.95	14.05
		비빈곤	빈곤	15.83	15.13	17.44	14.31	12.87
			비빈곤	84.17	84.87	82.56	85.69	87.13
75세 이상	중위 40%	빈곤	빈곤	65.32	55.27	63.01	64.46	67.88
			비빈곤	34.68	44.73	36.99	35.54	32.12
		비빈곤	빈곤	9.83	8.98	9.20	9.13	8.87
			비빈곤	90.17	91.02	90.80	90.87	91.13
	중위 50%	빈곤	빈곤	80.84	68.15	73.19	73.29	80.53
			비빈곤	19.16	31.85	26.81	26.71	19.47
		비빈곤	빈곤	12.16	12.38	12.86	12.49	12.56
			비빈곤	87.84	87.62	87.14	87.51	87.44
	중위 60%	빈곤	빈곤	80.75	73.85	79.47	82.05	85.95
			비빈곤	19.25	26.15	20.53	17.95	14.05
		비빈곤	빈곤	15.83	15.13	17.44	14.31	12.87
			비빈곤	84.17	84.87	82.56	85.69	87.13

주: 1) 빈곤선은 공공부조 이전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가처분소득/√가구원수)의 중위 60%, 50%, 40%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6] 65-74세의 빈곤 유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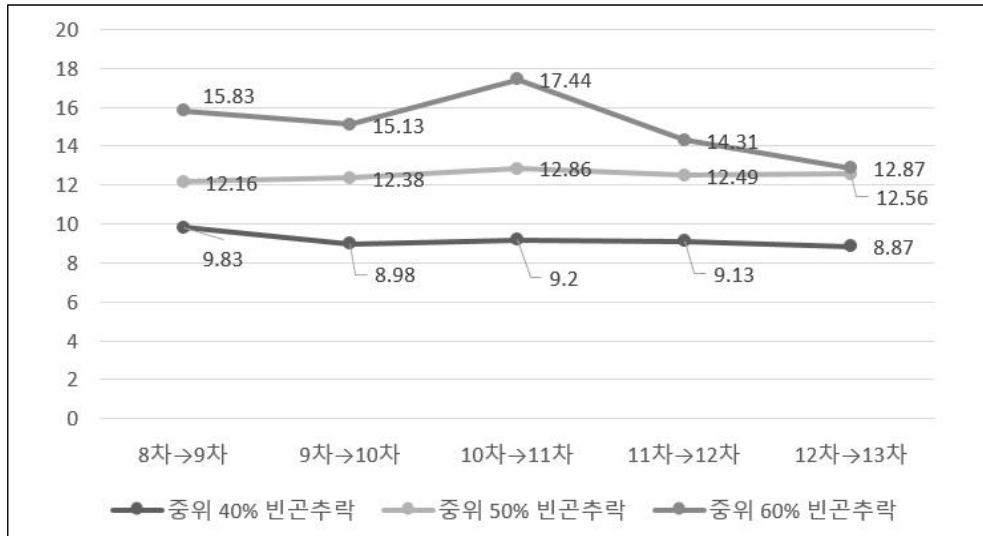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7] 65-74세의 빈곤 추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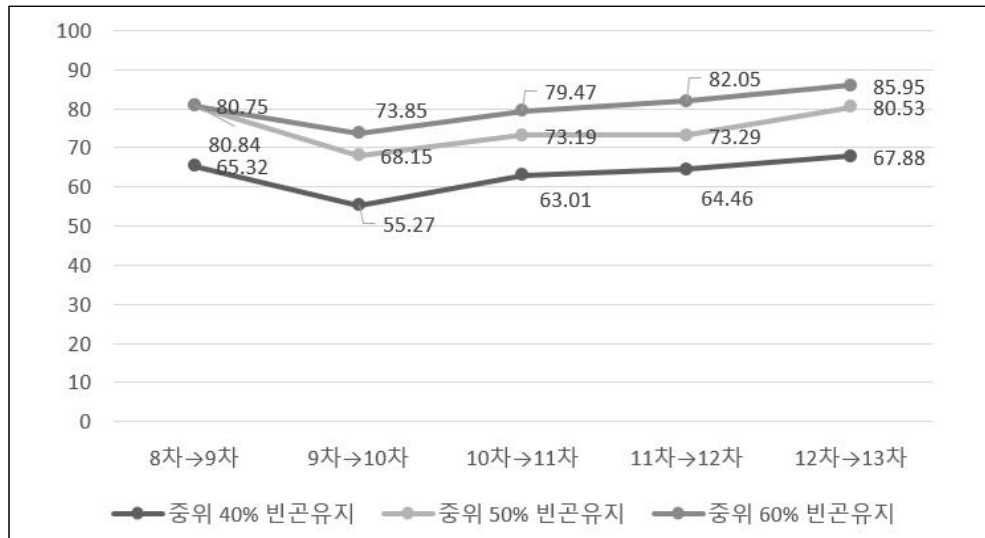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8] 75세 이상의 빈곤 유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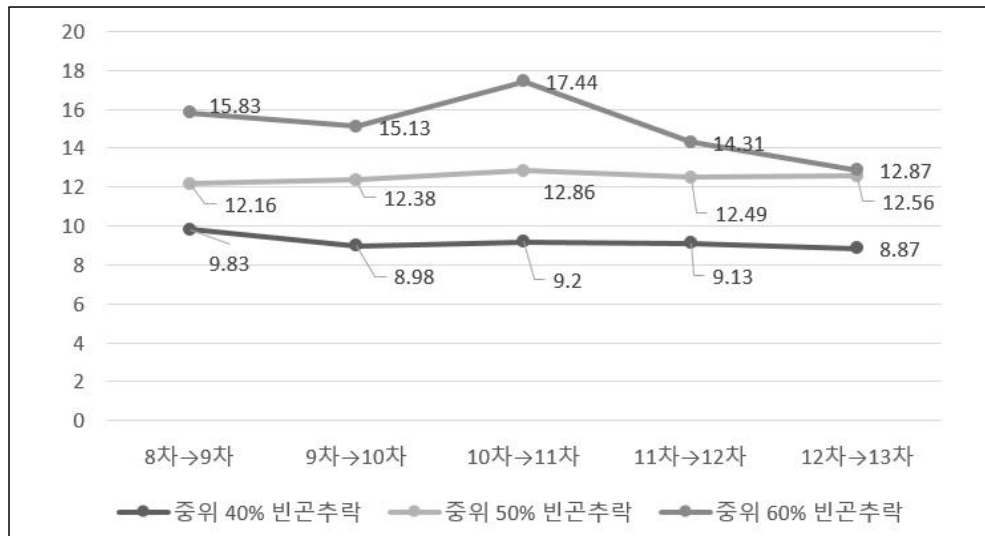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그림 4-19] 75세 이상의 빈곤 추락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제2절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소득 변화

1.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노동시장의 환경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배경에는 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있다. 정보 및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경제화에 따라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줄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발달에 따라 인간의 정신노동도 일부 대체하면서 전통적인 지식 노동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의 변수도 있다. 나라 사이의 자본과 상품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지면서, 산업화한 국가에 있던 제조업 기반이 중국 등 신흥 공업국가들로 이동했다. 기존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분야 일자리에 수요가 이미 줄었다. 기술 변화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가 국가, 산업, 기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혹은 깃 이코노미(Gig economy)의 전개와 함께 노동시장에는 이른바 플랫폼노동, 클라우드워크 등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이와 같은 노동은 전통적인 노동의 개념에 포착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우버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버 운전자 노동자성을 둘러싼 세계적인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전통적인 직업범주 및 사회보장의 테두리 밖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인구가 등장하고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 개발국들과 저임금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임 노동자들의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말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현재 벌어지는 변화의 양상은 노동자, 특히 저임노동 인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 양상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불안정노동의 증가다. 여기에는 영세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프랜차이즈점 업주, 하청 및 재하청노동자, 특수근로형태종사자 등 전통적인 저임 노동인구 외에도 앱노동자, 클라우드 워커,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불리는 유형의 불안정 노동인구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다. 둘째, 이와 같은 변화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정규직, 대기업 종사자들과 불안정노동인구 사이의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현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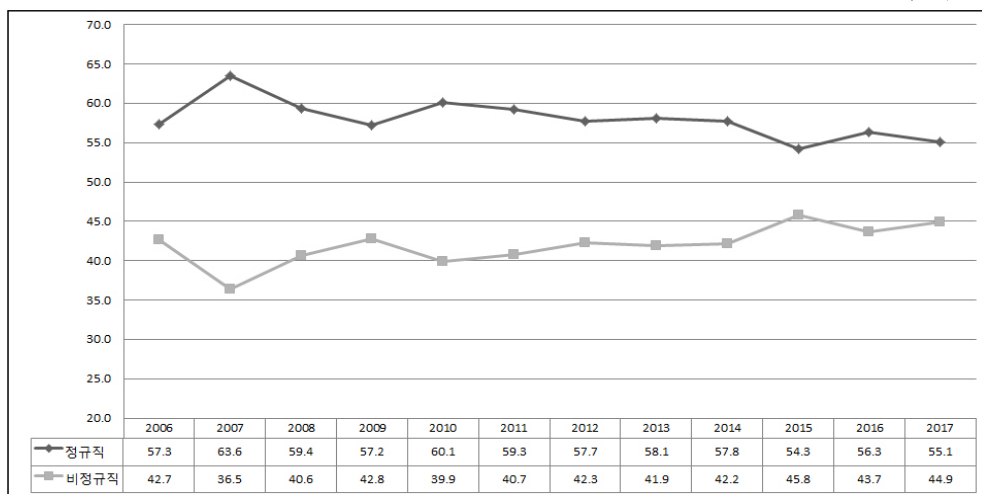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의 양상이 지난 10년 사이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감한다.

2. 노동시장 변화의 양상

가장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변화 양상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동태적으로 살펴봤다.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동안 정규직의 비율은 완만하게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그만큼 완만하게 늘어났다. 복지패널이 제시하는 비정규직의 비율(2017년 기준 44.9%)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서 제시하는 수준(2018년 현재 기준 35% 미만)보다 높다. 또,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가 제시하듯이, 2006년 이후 정규직의 비율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과도 다른 수치다. 이 대목에서는 비정규직 규모의 추계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 있다는 점(김유선, 2017),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나타난 통계가 간접고용 근로자 및 임금-비임금노동의 경계에 있는 근로자를 감안하지 않아서 비정규직 노동인구를 과소추계 했을 가능성(장지연, 2017)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확산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른바 ‘기간제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만들어졌지만, 그 효과는 매우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비정규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0] 정규직과 비정규직 변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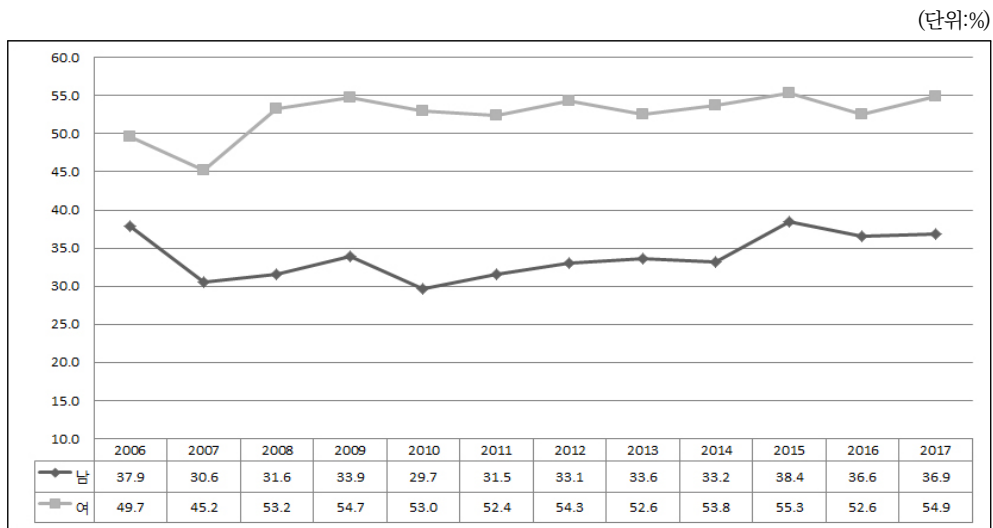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비정규직의 문제를 인구 집단 별로 살펴보면, 노동시장 안에서도 성별, 학력에 따른 차별의 양상이 드러난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은 [그림 4-21]에서 같이 시각적으로도 도드라지는데, 그 차별의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06~2017년 사이 비정규직 남성의 비율은 1% 포인트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5.2% 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남녀 사이 비정규직 비율의 격차도 11.8%에서 18.0%로 크게 벌어졌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추세만 한정해놓고 본다면,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차별은 여성노동자들에게 거의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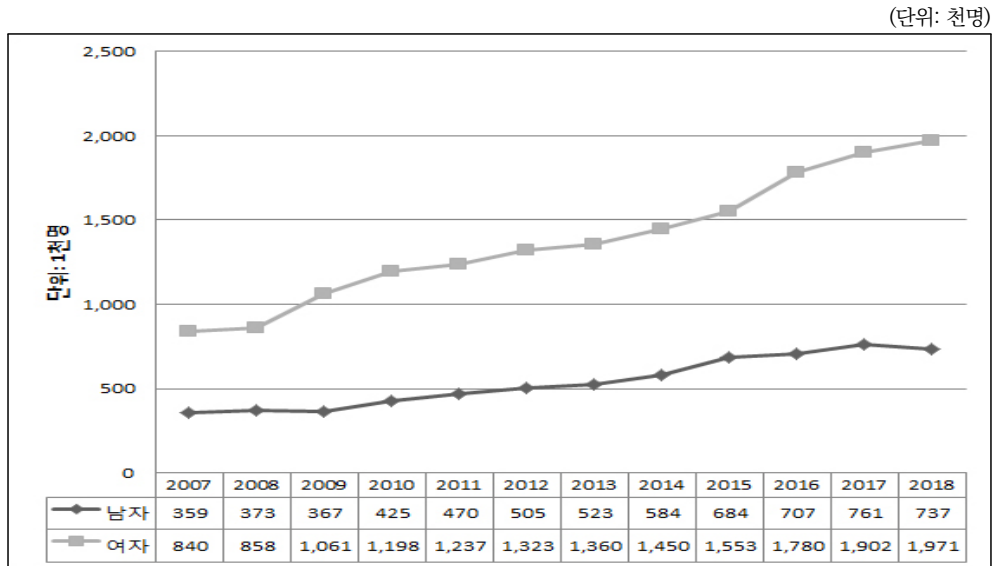
[그림 4-21] 성별에 따른 비정규직 추이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특히, 가장 취약한 노동 인구 가운데 하나인 시간제 노동자의 성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성별을 불문하고 증가의 양상은 크지만, 남성 시간제 노동자가 30만명 넘게 증가하는 사이, 여성 시간제 노동자는 100만명이 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2] 성별 시간제 노동자 인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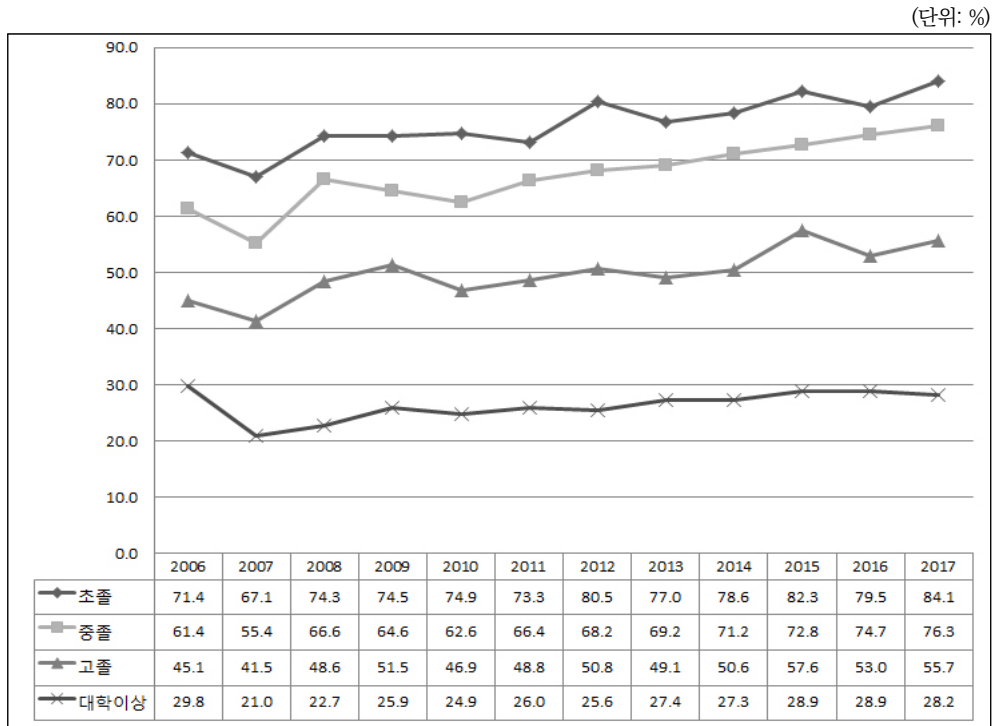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년도.

다음으로 교육수준별 비정규직 종사 비율을 살펴보면,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 종사 비율은 지난 10여년 사이에 소폭 줄어든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노동자들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증가율은 대체로 크게 나타나는데, 지난 2006~2017년 사이 초등학교 졸업 학력자 (12.7 % 포인트 증가), 중학교 졸업 학력자 (14.9% 포인트 증가),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 (10.6% 포인트 증가)의 비정규직 비율이 최소한 10% 포인트 늘었다. 반면,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노동인구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1.6% 포인트 감소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노동자의 10명 가운데 8명꼴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반면, 대졸 졸업자들 가운데는 3명만 비정규직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추동되는 노동시장의 변화 속에서 저학력자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불안정화하고, 고학력자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는 성별과 학력을 기준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림 4-23] 학력 수준에 따른 비정규직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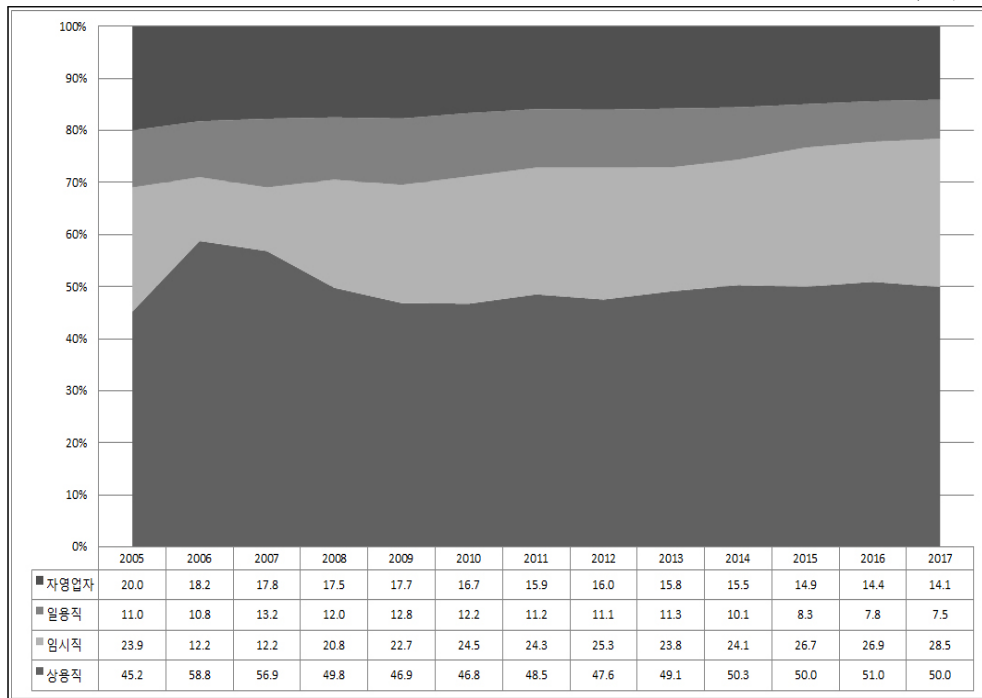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노동시장의 분화를 조금 더 상세히 보기 위해서 경제활동의 참여 형태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만을 골라내서 네 집단을 묶어낸 뒤의 각 집단의 비중 변화 추이를 보면([그림 4-24]), 상용직의 비율은 지난 2006년 크게 늘어난 뒤 (58.8%), 지난 2017년에는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줄었다. 일용직 (3.5% 포인트 감소)과 자영업자(5.9% 포인트 감소)의 비중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근로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수준인 임시직 노동자의 비중은 2005~2006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대폭 줄어든 이후에는 꾸준히 늘었다.

[그림 4-24] 자영업자,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의 상대적 인구 비중의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위의 통계에서 분리해서 포착하지 못하는 인구 집단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임금 근로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를 들 수 있다.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원, 학원강사 등이다. 특고의 규모는 조사에 따라 49만4천명에서 많게는 229만7천명까지로 추산되고 있다(황덕순, 2017). 또, 디지털이코노미의 등장으로 등장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심지어는 실업자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하지만, 그 수는 추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황덕순, 2017). 이른바 ‘디지털 특고’라고도 불리는 이 집단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고려 대상이 되지만, 관련 통계가 없는 현실적인 한계 탓에 본고에서 직접적인 분석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 이들 집단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를 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직 등으로 분류했을 것이므로, 이들의 통계는 불완전하게나마 복지패널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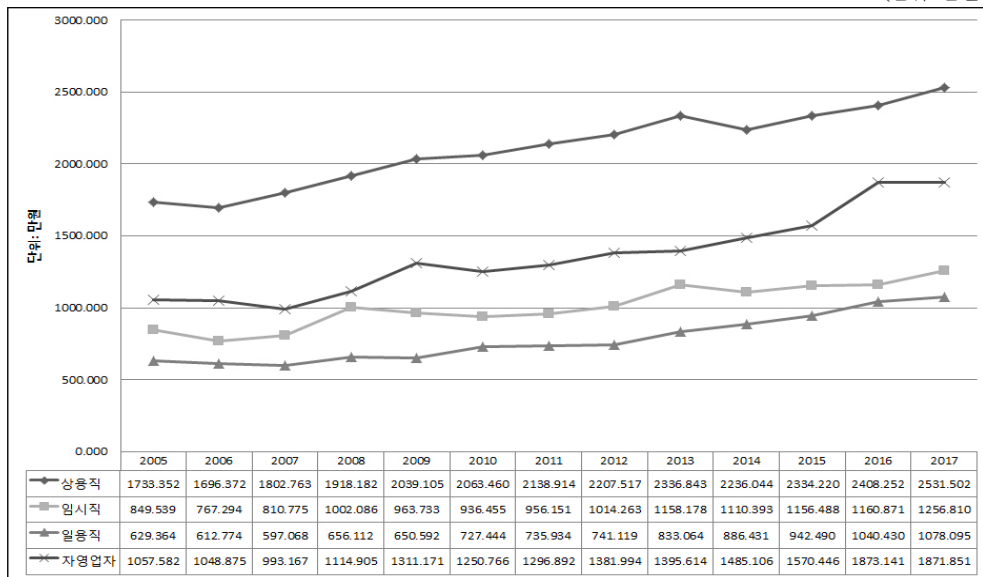
3. 소득분배 변화의 양상

지난 2005~2017 사이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 등 네 집단의 평균 근로 소득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상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 수준을 1로 볼 때, 일용직은 0.36, 자영업자 0.61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그 수준이 각각 0.42(일용직 노동자)와 0.73(자영업자)로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앞서 살펴 본대로, 일용직 노동자의 상대적인 비중이 줄어들고, 자영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자영업 인구가 감소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 인구에 견줘 상대적으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임시직 노동자 인구의 경우, 상용직 노동자에 비교한 근로소득 수준이 0.49배에서 0.50배로 격차가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액수 기준으로 보면, 두 집단 사이 임금 격차는 883만원에서 1274만원으로 늘었다. 자영업의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자영업에서 퇴장한 인구 가운데 다수가 임시직으로 진입하면서, 임시직의 소득 수준 증가세가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4-25]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자의 평균 근로소득의 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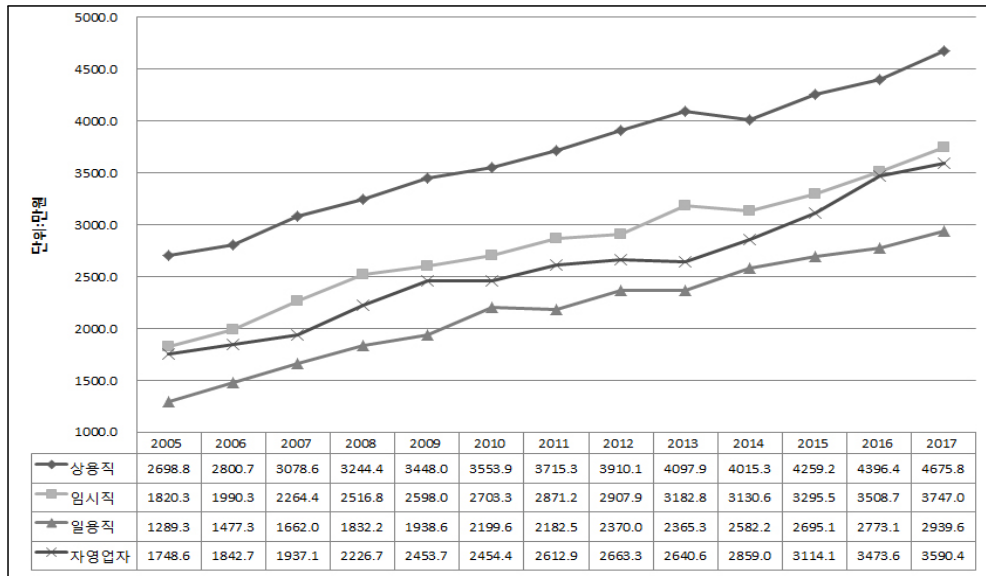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그림 4-26] 경제활동 유형별 균등화 경상소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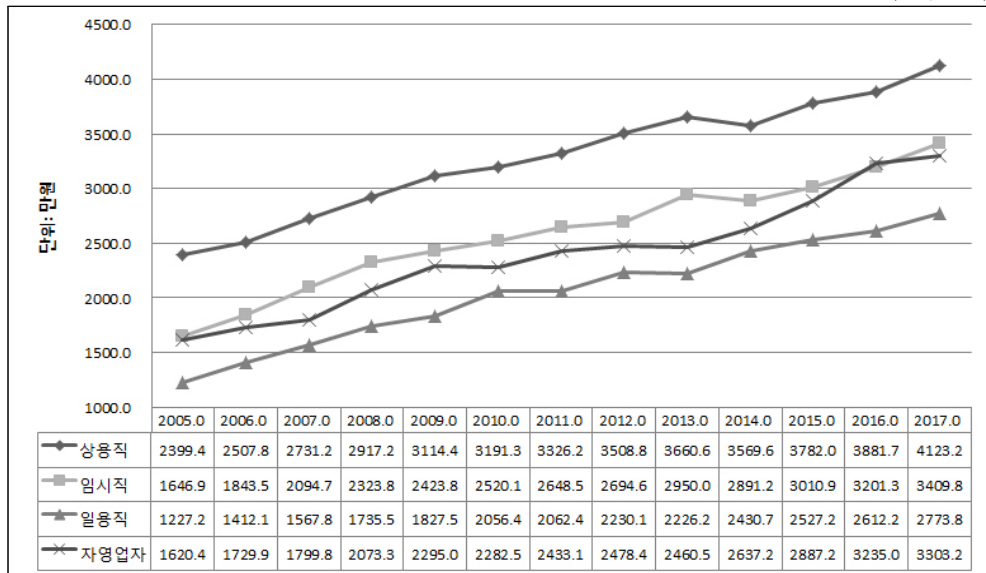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그림 4-27] 경제활동 유형별 균등화 가처분소득 변화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경제활동 유형별로 살펴본 가구 균등화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의 추이에서 도드라지는 점은 지난 2005~2017년 사이 임시직과 자영업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좁아지기 시작해서 지난 2016년에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자영업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줄면서 그 인구 가운데 일부가 임시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영업 폐쇄에 따라 임시직 소득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자영업 가구 소득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을 개연성이 있다.

경제활동 유형별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얼마나 받는지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 통틀어 미가입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유형별 격차는 매우 큰데, 산재보험의 경우, 상용직의 미가입률(3.4%)이 임시직(42.7%)나 일용직(70.3%)보다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용직의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률이 2005년 22.0%에서 2017년 3.4%로 크게 낮아졌지만, 일용직의 경우 같은 기간 미가입률이 75.5%에서 70.3%로 소폭 하락했을 뿐이다. 고용보험의 경우도 일용직 노동자의 10명 가운데 일곱 (69.8%)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에서 종사한다고 밝혔다. 임시직의 미가입률도 42.0%인 것에 견주면, 상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9.1% 수준이다.

〈표 4-10〉 경제활동 유형별 사회보험 미가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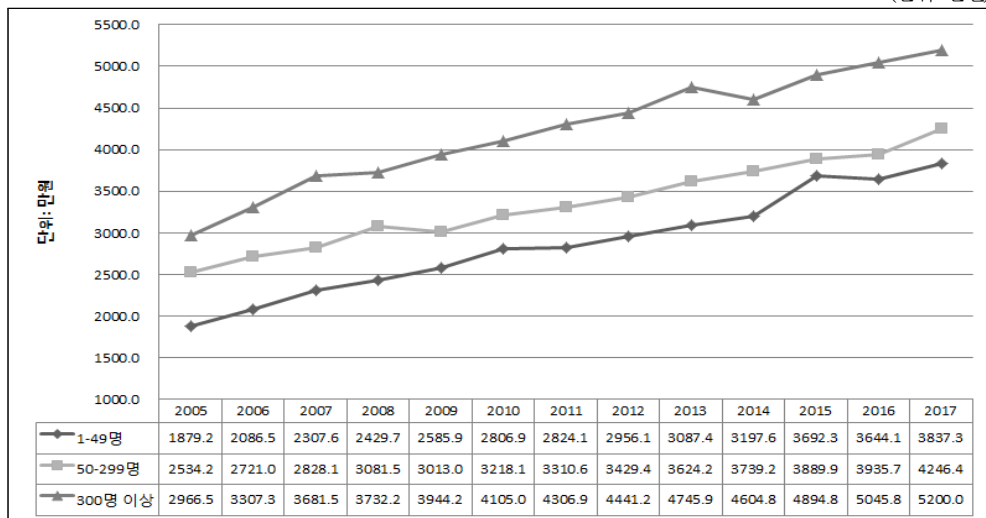
산재보험 미가입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용직	22.0	31.2	30.1	7.7	8.7	7.6	7.4	6.1	5.1	5.7	4.5	3.5	3.4
임시직	64.4	67.8	65.3	55.0	49.6	50.8	51.4	47.4	44.7	47.8	44.5	44.5	42.7
일용직	75.5	77.6	77.2	71.3	74.9	78.6	76.4	77.7	66.2	69.6	74.7	70.3	70.3
고용보험 미가입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용직	9.4	9.8	10.7	10.3	11.2	11.6	10.9	10.7	9.6	9.8	9.5	9.3	9.1
임시직	62.6	64.0	65.0	55.1	49.2	51.2	49.7	45.8	43.9	47.7	44.1	44.1	42.0
일용직	78.5	73.3	74.2	74.6	76.1	79.4	75.1	77.1	69.8	71.6	75.3	74.3	69.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자영업자의 경우, 다른 유형과의 수평적인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2.0%, 고용보험 가입률이 2.5% 수준이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료를 낼만한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주일수록 보험가입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이병희 외, 2017).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을 노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소득탈루율이 높은 자영업자로서는 사회보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앞서 자영업자의 소득 수준의 증가 경향이 상용직이나 다른 노동자 그룹과 견줘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나타난 경향은 있지만, 자영업자 안에서도 일종의 양극화가 벌어지는 양상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자영업자 내부에서 저소득 자영업자 비율이 늘어나는 점(이병희 외, 2017)을 고려하면,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집단이 다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4-28] 대/중/소 기업에 종사하는 가구 유형에 따른 균등화 경상소득 추이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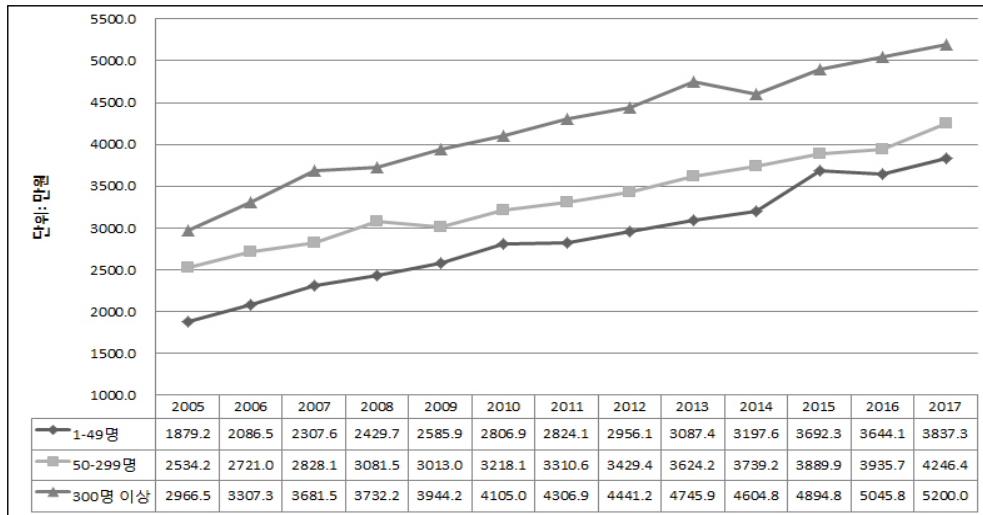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추가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사이의 소득 격차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보면, 50~299명이 종사하는 중간 규모 기업 종사자의 가구 소득이 2005년에는 대기업 종사 노동자 가구 소득에 가까운 편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규모 기업(1~49명)에서 일하는 노동자 가구의 소득에 수렴했다. 이를테면, 경

상소득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 종사 노동자 가구의 소득을 1로 놓았을 때, 2005년에는 중기업 가구의 소득이 0.85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0.81로 감소했다.

[그림 4-29] 대/중/소 기업에 종사하는 가구 유형에 따른 균등화 가처분소득 추이

(단위: 만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같은 기간, 소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소득은 0.63배에서 0.73배로 개선된 것과는 대조되는 추세다. 바꾸어 말하면, 대기업 종사 가구의 소득이 중/소기업 종사자의 가구의 소득 수준에 크게 앞서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보아도,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 가구의 소득은 대기업 종사 노동자 가구에 견줄 때 상대적으로 개선된 반면, 중견기업 종사 노동자 가구의 소득 추이는 상대적으로 둔화했다.

종합해서 보면, 노동 환경 변화는 노동시장의 분화를 불러왔고,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별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불안정 노동이 여성,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심화하고 있다. 둘째, 자영업자와 일용직에 견줘 임시직의 소득 증가가 정체하고 있다. 셋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불안정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사실상 배제돼있다. 넷째, 기업 규모를 놓고 보면, 대/소기업보다 중견기업 종사자의 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본고는 특고와 디지털 특고와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의 소득 추이에 대한 분석을 하지는 못했다. 통계가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제3절 저소득 가구 특성 및 분위이동 특성

이 절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하여 저분위 가구의 특성과 분위이동(=social mobility) 특성에 대해 세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횡단조사임으로 당해연도의 저분위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는 유리하지만, 낮은 소득분위에 어느 정도 머무르고 있는지, 장기간 저분위에 머무르고 있는 가구 혹은 개인의 특성은 무엇인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조사가 진행되어 최근인 2017년까지의 조사결과가 공개되어 있으며, 동자료를 활용시 우리나라 저분위 가구의 소득이동성은 물론 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저분위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분석하기 이전 기본 자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소득분위를 구성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였으며, 균등화 방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소득을 균등화하였다. 분석단위는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서는 별도로 개인화된 패널 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개인화된 조사자료에 별도의 개인화 가중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낮은 분위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간은 조사기준 시점인 2005~2017년의 13개년도 자료를 머지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분석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 10분위를 구분후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소득 하위 10% 미만)에 오랜 기간 혹은 단기간 남아 있는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사년수가 13개년도의 방대한 자료라는 점에서 이를 한번에 코딩하는 것은 쉽지 않아 기간을 두 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선택 기간은 2005~2010년으로 둘째 기간은 2011~2017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속에서 소득 하위 1분위에 머문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장기, 2~3년이면 반복, 1년이면 단기, 한번도 머물지 않았다면 소득 10% 이상의 네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은 저분위 개인의 소득이동성 정도와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균등화 가처분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여 소득 하위 20% 미만을 기준으로 13개 조사차수를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분석은 소득 하위 10% 미만을, 두 번째 분석은 소득하위 20%로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 분석에서는 저분위 가구의 동태적 변화와 그 특성을 세세하게 분석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분석은 소득이동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표본수가 필요하기에 소득 하위 20%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1. 저분위 가구 특성

2010년 이전 우리나라 저소득 개인의 특성을 보면, 2005~2010년 사이 4년 이상 소득 하위 10% 미만에 장기간 포함되어 있던 경험을 가진 개인은 18.3%, 반복적으로 소득 하위 10% 미만에 속한 경우는 16.4%, 일시적으로 머문 경우는 17.3%로 분석되었다. 전체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약 50%에 해당되는 개인이 어떠한 사유로든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에 머무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정적 소득을 가지지 않은 개인의 경우 언제든지 소득 하위 10% 미만을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 기간 저분위를 경험한 개인의 특성을 보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저분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05~2010년 사이 저분위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은 50.4%이었지만 여성은 46.1%로 남성이 약 4% 포인트 정도 높았다. 반복과 일시적으로 저분위를 경험할 비율은 남녀 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4년 이상 저분위를 경험할 가능성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분위를 경험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34세 미만, 35~49세에서는 저분위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62.5%, 65.6%로 높았지만, 50대로 넘어가면 그 수준이 급격히 줄어들어 50~64세는 38.2%, 65세 이상은 18.3%로 크게 낮아지고 있다. 이미 많은 분석과 연구를 통해 50대 이후 중고령층, 노인계층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보여진 바가 있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저분위에 장기간 머무르는 비율도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고연령층의 경우 저분위로 떨어지면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교육수준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분위를 경험할 비율이 초졸 이하와 대학 이상에서 두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저분위를 경험할 비율에서는 초졸 이하와 대학 이상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으로 인한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실업자 혹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는 저분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두 배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금근로자는 62.8%,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30.7%, 34.9%로 임금근로자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저분위를 경험할 가능성과 경험해도 장기간 머무를 가능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소득분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표 4-11〉 소득 하위 10% 미만 특성 (2005~2010)

(단위: %)

구분		장기	반복	일시	소득 10% 이상
전체		18.3	16.4	17.3	48.0
성별	남성	16.1 (40.3)	16.2 (45.2)	17.4 (46.0)	50.4 (47.9)
	여성	20.1 (59.7)	16.5 (54.8)	17.2 (54.0)	46.1 (52.1)
연령	34세 미만	5.9 (10.8)	12.1 (25.0)	19.6 (38.3)	62.5 (44.0)
	35~49	6.0 (7.8)	11.8 (17.1)	16.7 (23.0)	65.6 (32.5)
	50~65	19.3 (18.8)	21.9 (23.9)	20.6 (21.2)	38.2 (14.2)
	65세 이상	46.7 (62.6)	22.7 (34.0)	12.4 (17.5)	18.3 (9.4)
교육수준	초졸 이하	34.4 (65.4)	20.6 (43.9)	14.1 (28.9)	31.0 (23.1)
	중졸	17.9 (13.8)	17.7 (15.3)	18.5 (15.3)	45.9 (13.8)
	고졸	8.9 (15.3)	14.3 (27.7)	17.9 (33.2)	58.8 (39.7)
	대학이상	5.7 (5.6)	11.9 (13.1)	21.6 (22.6)	60.9 (23.4)
노동시장 참여형태	임금근로자	6.7 (11.7)	11.4 (23.5)	19.2 (38.5)	62.8 (48.2)
	정규직	2.9 (18.5)	6.9 (28.1)	17.0 (39.8)	73.3 (51.2)
	비정규직	10.2 (81.5)	13.9 (71.9)	20.5 (60.3)	55.5 (48.8)
	자영자	19.2 (13.0)	21.1 (16.8)	17.0 (13.2)	42.7 (12.6)
	실업자	14.2 (1.1)	23.4 (2.0)	31.7 (2.7)	30.7 (1.0)
	비경제활동	29.7 (74.3)	19.6 (57.7)	15.9 (45.6)	34.9 (38.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두 번째 시기인 2011~2017년 가장 최근 시점에서의 저분위 경험을 분석해 보면, 4년 이상 저소득 분위에 포함되어 있던 개인은 27.3%로 전기인 2005~2010년 18.3%에 비해 9%포인트 높았다. 반복 경험은 18.9%, 일시경험은 15.3%로 일시경험을 제외하고는 2010년 이전에 비해 2010년 이후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고 저분위에서의 탈출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약 60%에 해당되는 개인이 저분위에 머무른 경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2010년 이전에 비해 분배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추론해 보면, 2018년 분배 상황이 나빠진 것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닌 장기간 지속되어 왔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구조 악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저분위 경험자 특성을 보면 2010년 이전과 동일하게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저분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은 43.0%, 여성은 34.8%로 여성이 분배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역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분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34세 미만, 35~49세에서는 54.6%, 56.6%로 비슷했지만, 50~64세는 34.0%, 65세 이상은 17.9%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저분위에 오랜 기간 머무르는 비율도 65세 이상은 51.9%로, 노인들이 쉽게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 현상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65세 노인의 소득보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은 이전 기간과 유사하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분위를 경험할 비율이 높았으며, 전기와 동일하게 초졸 이하와 대학 이상에서 차이가 두배 정도 나고 있다. 장기간 저분위에 머무르는 비율에서는 다소 격차를 줄였지만,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살펴 보면, 임금근로자가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서는 저분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약 두배 정도 낮았으며,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비정규직이 저분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기간 저분위 경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2005~2010년 사이에는 3.5배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6.2배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동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소득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분위 혹은 저소득에 속한 비정규직을 위한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표 4-12〉 소득 하위 10% 미만 특성 (2011~2017)

(단위: %)

구분		장기	반복	일시	소득 10% 이상
전체		27.3	18.9	15.3	38.5
성별	남성	23.4 (38.4)	18.6 (44.0)	15.0 (44.2)	43.0 (50.1)
	여성	30.5 (61.6)	19.3 (56.0)	15.5 (55.9)	34.8 (49.9)
연령	34세 미만	9.1 (8.7)	17.3 (24.3)	18.8 (32.3)	54.6 (37.2)
	35~49	12.9 (9.1)	16.1 (16.4)	14.5 (18.3)	56.6 (28.3)
	50~65	24.9 (19.8)	21.1 (24.0)	20.0 (18.4)	34.0 (19.2)
	65세 이상	51.9 (62.4)	20.4 (35.3)	9.8 (21.0)	17.9 (15.3)
교육수준	초졸 이하	45.5 (55.6)	19.5 (34.2)	11.1 (24.4)	24.0 (21.0)
	중졸	27.4 (14.7)	21.1 (16.3)	14.2 (13.7)	37.4 (14.4)
	고졸	18.6 (22.1)	18.0 (30.8)	16.4 (35.0)	47.0 (39.9)
	대학이상	10.9 (7.6)	18.6 (18.7)	21.3 (26.8)	49.3 (24.8)
노동시장 참여형태	임금근로자	12.5 (14.2)	17.4 (29.4)	19.5 (42.5)	50.6 (46.7)
	정규직	3.1 (8.0)	9.4 (19.8)	14.9 (27.3)	72.6 (50.4)
	비정규직	19.2 (92.1)	20.7 (80.3)	21.5 (72.7)	38.6 (49.6)
	자영자	25.9 (7.6)	24.6 (10.8)	18.6 (10.4)	30.9 (7.4)
	실업자	9.9 (0.7)	20.0 (2.0)	25.5 (3.3)	44.6 (2.5)
	비경제활동	40.1 (77.5)	20.2 (57.9)	11.9 (43.8)	27.8 (43.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과의 비교를 위해 소득 수준이 바로 윗 단계인 소득 하위 10~20% 미만 계층의 특성을 함께 분석하였다. 아래 표를 통해 그 차이를 보면 2010년 이전에서는 소득 하위 10~20% 미만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30.1%로, 동기간 소득 하위 10% 미만을 경험하지 않은 48.0%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에 비해서는 소득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분위

를 경험한 기간을 분석한 경우에도 유사하여 4년 이상 소득 하위 10~20% 미만에 포함 되어 있던 경험은 9.9%로 소득 하위 10% 미만의 18.3%와 비교해 절반정도 줄어들었지만, 반면에 반복 및 일시적으로 소득하위 10~20% 미만을 경험할 비율은 31.4%와 28.6%로 소득 하위 10% 미만에 비해서는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저분위(소득하위 10% 미만)에 비해서는 소득 하위 10~20% 미만의 계층은 소득분위 변동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 기간 개인의 특성을 보면 소득 하위 10%에 비해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2005~2010년 사이 소득 하위 10%를 경험하지 않은 남성은 29.5%, 여성은 30.6%로 약 1% 포인트 정도만 차이가 있었다. 소득 하위 10~20% 미만에 머무른 기간 경험에서도 남녀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연령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연령대에서 2분위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50~65세가 가장 낮은 22.1%이었으며 다른 연령대는 약 30~30% 중반 수준이었다. 저분위에 장기간 머무르는 비율은 모든 연령대가 비슷했지만 65세 이상이 가장 낮은 8.8%로 분석되었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소득 하위 10%에 머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소득이 높은 곳에 머무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2분위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교육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동 분위에 장기간 머문 비율이 높은 것은 중졸 이하로 13.9% 수준이었다. 역시 모든 교육수준에서 소득 하위 10~20% 미만을 경험하는 반복과 일시 비율이 높았다. 앞에서 분석한 소득 하위 10% 미만의 계층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실업자 혹은 자영자에 비해서는 동 분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서는 차이가 있어 정규직은 39.7%, 비정규직은 24.9%로 14.8%포인트 정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좀 더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불안정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소득 안정성에서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소득 하위 10% 미만에 비해서는 소득 하위 10~20% 미만의 경우 장기간 동 분위기를 경험하기 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분위로의 이동성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어느 분위로 이동이 주로 많은 지는 다음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표 4-13〉 소득 하위 10~20% 미만 특성 (2005~2010)

(단위: %)

구분		장기	반복	일시	2분위 제외
전체		9.9	31.4	28.6	30.1
성별	남성	10.3 (47.4)	32.0 (46.6)	28.2 (45.1)	29.5 (44.8)
	여성	9.6 (52.7)	30.9 (53.4)	28.9 (54.9)	30.6 (55.2)
연령	34세 미만	10.3 (35.1)	28.8 (31.1)	31.3 (37.1)	29.6 (33.2)
	35~49	9.8 (23.5)	26.2 (19.9)	27.9 (23.2)	36.1 (28.5)
	50~65	10.9 (19.6)	37.8 (21.5)	29.3 (18.3)	22.1 (13.1)
	65세 이상	8.8 (21.9)	35.3 (27.6)	25.0 (21.5)	30.9 (25.2)
교육수준	초졸 이하	9.6 (34.5)	33.5 (37.4)	25.6 (32.1)	31.2 (36.8)
	중졸	13.9 (20.1)	37.4 (16.9)	25.3 (12.8)	23.4 (11.2)
	고졸	9.6 (31.0)	28.7 (29.0)	29.8 (33.8)	31.9 (34.1)
	대학이상	7.8 (14.4)	29.2 (16.8)	33.3 (21.4)	29.7 (18.0)
노동시장 참여형태	임금근로자	9.4 (33.0)	29.9 (32.7)	29.3 (35.6)	31.4 (37.6)
	정규직	8.5 (41.4)	22.4 (32.9)	29.4 (44.5)	39.7 (55.9)
	비정규직	9.6 (58.6)	36.4 (67.1)	29.1 (55.5)	24.9 (44.1)
	자영자	9.2 (12.4)	37.1 (15.7)	30.7 (14.4)	23.1 (10.7)
	실업자	9.3 (1.4)	39.8 (1.8)	32.6 (1.7)	18.4 (0.9)
	비경제활동	10.6 (53.2)	31.9 (49.8)	27.8 (48.9)	29.7 (5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2010년 이후 소득 하위 10~20% 미만 계층의 특성을 보면, 2010년 이전에 비해서는 동 분위에 장기간 머무르는 비율이 22.3%로 2010년 이전의 9.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반면에 일시 경험비율과 2분위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2010년 이후는 2010년 이전에 비해서 분위 변동성은 낮아지고, 동

분위에 머무르는 기간이 오래되고 있다는 것으로, 조심스럽지만 소득 하위 10% 미만과 연계해 보면, 2010년 이후 소득이 낮은 분위에 머무를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에는 개인능력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일부 이기는 하지만 소득분위가 점차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은 아니지 하는 우려를 해볼 수 있다.

동 기간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보면 역시 2010년 이전과 동일하게 남성과 여성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소득 하위 10~20% 미만을 경험한 비율에서도 장기, 반복 및 일시 모두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남녀 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연령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2분위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50~65세가 가장 낮은 18.3%로 2010년 이전 22.1%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다른 연령대도 모두 2010년 이전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을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점은 34세 미만, 35~49세 이하에서 장기간 소득 하위 10~20% 미만을 경험하는 비율이 24.8%, 23.1%로 2010년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전제 장기간 체험자 중에서도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연령대는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하고 많은 소득활동을 통해 본인은 물론 가족 혹은 자녀 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세대임에도 낮은 분위를 장기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장기적으로 고령자의 노후소득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를 위한 소득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2분위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역시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반복 및 일시적으로 동 분위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2010년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참여형태를 기준으로 보면, 일부 노동시장 참여형태에서 분위 고착화의 우려를 볼 수 있다. 자영자와 실업자의 경우 다른 분위를 경험한 비율이 2010년 이후 13.7%와 7.9%로 2010년 이전 23.1%, 18.4%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2010년 이후의 경기 위축 현상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계층에 먼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2010년 이전 동 분위가 아닌 다른 분위를 경험할 비율이 24.9%에서 2010년 이후에는 16.8%로 줄어들고 있다.

전반적으로 2010년 이전에 비해 2010년 이후 저분위(소득 하위 20% 미만)를 기준으로 다른 분위로의 이동가능성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각각의 분위에서 장기간 머무르는 비율이 증가하는 분위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4〉 소득 하위 10~20% 미만 특성 (2011~2017)

(단위: %)

구분		장기	반복	일시	2분위 제외
전체		22.3	32.4	19.8	25.4
성별	남성	23.2 (46.6)	32.4 (44.9)	19.6 (44.3)	24.8 (43.7)
	여성	21.6 (53.4)	32.4 (55.1)	20.0 (55.7)	26.0 (56.3)
연령	34세 미만	24.8 (29.2)	33.1 (26.8)	20.6 (27.2)	21.5 (22.2)
	35~49	23.1 (20.0)	27.2 (16.2)	17.9 (17.4)	31.9 (24.2)
	50~65	22.9 (22.2)	38.7 (25.9)	20.1 (22.0)	18.3 (15.6)
	65세 이상	19.5 (28.6)	30.8 (31.2)	20.2 (33.5)	29.5 (38.1)
교육수준	초졸 이하	21.3 (31.9)	27.5 (28.4)	21.6 (36.6)	29.6 (39.2)
	중졸	21.9 (14.4)	36.6 (16.6)	18.8 (14.1)	22.7 (13.1)
	고졸	23.9 (34.6)	34.6 (34.7)	18.9 (31.2)	22.6 (28.9)
	대학이상	22.2 (19.0)	34.5 (20.4)	18.6 (18.2)	24.7 (18.8)
노동시장 참여형태	임금근로자	22.0 (32.8)	34.6 (35.0)	20.7 (34.1)	22.8 (30.4)
	정규직	17.9 (28.9)	23.9 (24.6)	21.8 (37.3)	36.5 (54.0)
	비정규직	23.9 (71.1)	39.6 (75.4)	19.7 (62.7)	16.8 (46.0)
	자영자	23.4 (9.0)	35.5 (9.3)	27.4 (11.7)	13.7 (4.7)
	실업자	21.8 (1.9)	41.3 (2.5)	29.0 (2.8)	7.9 (0.6)
	비경제활동	22.3 (56.3)	31.0 (53.2)	18.3 (51.4)	28.4 (64.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2. 저분위 가구 소득이동성 및 분위 이동자 특성

이하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을 조사 기간을 기준으로 세 기간(2007~2009, 2011~2013, 2015~2017)으로 구분한 후 해당 기간 3개년 사이 소득분위가 높아진 경우와 낮아진 경

우로 구분하여 소득이동성의 정도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분위를 10분위가 아닌 5분위로 구분하였다.

소득분위가 상승한 것의 가정은 첫째년에 비해 둘째년도 분위가 상승한 경우, 둘째년에 첫째년도와 동일 혹은 하락한 분위이지만, 셋째년도의 분위가 첫째년도에 비해 높아진 경우를 분위가 상승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동일하게 분위가 하락한 경우는 첫째년에 비해 둘째년도 분위가 하락한 경우, 둘째년 분위에 비해 첫째년도와 동일 혹은 하락한 분위로, 셋째년도에도 분위가 첫째년도에 비해 하락한 경우를 분위가 하락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3개년 간 각 분위별 합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별로 소득 분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이 수치를 조정할 수 있다.

아래 표를 통해 지난 11년 간 우리나라의 소득분위 이동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분위(소득 하위 20% 미만)에서 소득분위가 상승한 비율은 2007~2009년 31.6%에서 2011~2013년에는 28.2%, 2015~2017년에는 25.2%로 계속 해서 줄어들고 있다.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소득이 낮을수록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 혹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3개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분석한 소득 하위 10% 미만, 소득 하위 10~20% 미만의 분위 변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2분위(소득 20~40% 미만)에서는 2007~2009년 32.0%에서 2011~2013년에는 33.6%, 2015~2017년 35.8%로 소폭이지만 분위가 상승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2007~2009년 분위상승에 비해 하락비율이 높았다면, 2011~2013년은 비슷한 수준을 2015~2017년은 하락보다는 상승 비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2분위(소득 하위 20~40%미만)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다른 3분위 이상에서는 소득분위가 상승한 경우보다 하락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 하위 20~40% 미만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분위가 하락한 경우는 2분위에서는 2007~2009년 35.2%에서 2011~2013년 33.4%, 2015~2017년 31.8%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3분위 이상의 소득에서는 2007~2009년 사이에는 40% 가까이 혹은 이상의 분위 하락 비율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차이는 있지만 2010년 이후에도 역시 소폭의 변화가 있지만 분위하락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1분위와 다르게 소득 2분위 이상에서는 분위 간 이동이 다소 활발하게 혹은 높은 비율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15〉 3개년 간 소득 분위 이동 비교

(단위: %)

구분	2007~2009		2011~2013		2015~2017	
	분위상승	분위하락	분위상승	분위하락	분위상승	분위하락
1분위	31.6	-	28.2	-	25.2	-
2분위	32.0	35.2	33.6	33.4	35.8	31.8
3분위	28.5	42.9	31.0	41.2	28.2	39.5
4분위	22.3	43.1	21.5	45.9	21.9	41.8
5분위	-	32.8	-	35.3	-	30.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표 4-16〉 3개년 간 소득 분위 이동성 (2007~2009)

(단위: %)

구분		2009년				
2007년	2008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1분위	56.3	<u>11.2</u>	<u>1.7</u>	<u>0.6</u>	<u>0.2</u>
	2분위	6.4	<u>8.7</u>	<u>2.9</u>	<u>0.6</u>	<u>0.1</u>
	3분위	0.7	2.6	<u>2.6</u>	<u>1.3</u>	<u>0.3</u>
	4분위	0.4	0.5	0.7	<u>0.9</u>	<u>0.4</u>
	5분위	0.0	0.0	0.2	0.5	<u>0.1</u>
2분위	1분위	<u>10.6</u>	7.2	<u>2.8</u>	<u>0.6</u>	<u>0.1</u>
	2분위	<u>9.5</u>	25.8	<u>7.3</u>	<u>3.4</u>	<u>0.6</u>
	3분위	<u>2.6</u>	<u>6.9</u>	<u>9.6</u>	<u>3.7</u>	<u>0.6</u>
	4분위	<u>0.3</u>	<u>0.8</u>	<u>2.6</u>	<u>2.2</u>	<u>0.7</u>
	5분위	<u>0.1</u>	<u>1.0</u>	<u>0.2</u>	<u>0.6</u>	<u>0.4</u>
3분위	1분위	<u>2.3</u>	<u>1.7</u>	1.1	<u>0.9</u>	<u>0.3</u>
	2분위	<u>4.1</u>	<u>9.0</u>	8.1	<u>2.7</u>	<u>0.8</u>
	3분위	<u>2.0</u>	<u>7.7</u>	19.8	<u>9.0</u>	<u>1.2</u>
	4분위	<u>0.7</u>	<u>1.8</u>	<u>10.4</u>	<u>8.5</u>	<u>3.3</u>
	5분위	<u>0.1</u>	<u>0.6</u>	<u>0.8</u>	<u>1.7</u>	<u>1.8</u>
4분위	1분위	<u>0.7</u>	<u>1.2</u>	<u>0.0</u>	0.2	<u>0.5</u>
	2분위	<u>0.7</u>	<u>2.9</u>	<u>2.8</u>	1.2	<u>0.1</u>
	3분위	<u>0.7</u>	<u>4.1</u>	<u>8.1</u>	6.6	<u>2.3</u>
	4분위	<u>0.8</u>	<u>2.5</u>	<u>8.9</u>	26.9	<u>10.2</u>
	5분위	<u>0.5</u>	<u>0.6</u>	<u>2.2</u>	<u>6.4</u>	<u>9.2</u>
5분위	1분위	<u>0.6</u>	<u>0.3</u>	<u>0.0</u>	<u>0.0</u>	0.5
	2분위	<u>0.0</u>	<u>0.6</u>	<u>0.9</u>	<u>0.8</u>	0.3
	3분위	<u>0.1</u>	<u>1.0</u>	<u>1.4</u>	<u>2.4</u>	1.8
	4분위	<u>0.9</u>	<u>0.7</u>	<u>1.2</u>	<u>6.8</u>	6.4
	5분위	<u>0.3</u>	<u>0.9</u>	<u>1.8</u>	<u>12.1</u>	58.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표 4-17〉 3개년 간 소득 분위 이동성 (2011~2013)

(단위: %)

구분		2013년				
2011년	2012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1분위	61.1	<u>10.3</u>	<u>1.5</u>	<u>0.5</u>	<u>0.6</u>
	2분위	6.8	<u>7.9</u>	<u>3.2</u>	<u>0.5</u>	<u>0.1</u>
	3분위	1.1	1.9	<u>1.9</u>	<u>0.9</u>	<u>0.0</u>
	4분위	0.3	0.3	0.3	<u>0.4</u>	<u>0.3</u>
	5분위	0.0	0.0	0.0	0.2	<u>0.1</u>
2분위	1분위	<u>9.1</u>	8.7	<u>2.1</u>	<u>0.8</u>	<u>0.0</u>
	2분위	<u>8.2</u>	24.5	<u>10.7</u>	<u>2.3</u>	<u>0.9</u>
	3분위	<u>2.2</u>	<u>8.6</u>	<u>8.5</u>	<u>2.6</u>	<u>0.4</u>
	4분위	<u>0.4</u>	<u>0.9</u>	<u>2.7</u>	<u>3.0</u>	<u>1.2</u>
	5분위	<u>0.0</u>	<u>0.3</u>	<u>0.7</u>	<u>0.3</u>	<u>1.1</u>
3분위	1분위	<u>2.0</u>	<u>2.1</u>	0.1	<u>0.2</u>	<u>0.2</u>
	2분위	<u>3.2</u>	<u>10.2</u>	7.9	<u>2.9</u>	<u>0.4</u>
	3분위	<u>1.4</u>	<u>10.1</u>	19.9	<u>9.8</u>	<u>1.0</u>
	4분위	<u>0.7</u>	<u>2.2</u>	<u>6.2</u>	<u>9.6</u>	<u>4.6</u>
	5분위	<u>0.1</u>	<u>0.0</u>	<u>1.1</u>	<u>1.9</u>	<u>2.3</u>
4분위	1분위	<u>0.6</u>	<u>0.6</u>	<u>0.5</u>	0.3	<u>0.3</u>
	2분위	<u>1.0</u>	<u>2.4</u>	<u>2.0</u>	1.6	<u>0.2</u>
	3분위	<u>0.9</u>	<u>2.6</u>	<u>10.0</u>	7.7	<u>2.3</u>
	4분위	<u>0.3</u>	<u>3.0</u>	<u>11.6</u>	23.2	<u>7.7</u>
	5분위	<u>0.6</u>	<u>0.6</u>	<u>1.1</u>	<u>8.1</u>	<u>11.0</u>
5분위	1분위	<u>0.1</u>	<u>0.2</u>	<u>0.0</u>	<u>0.0</u>	0.0
	2분위	<u>0.1</u>	<u>0.3</u>	<u>1.5</u>	<u>0.3</u>	0.5
	3분위	<u>0.0</u>	<u>0.5</u>	<u>1.4</u>	<u>2.0</u>	2.3
	4분위	<u>0.6</u>	<u>1.3</u>	<u>2.5</u>	<u>9.5</u>	6.4
	5분위	<u>0.8</u>	<u>0.9</u>	<u>2.1</u>	<u>11.2</u>	55.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표 4-18〉 3개년 간 소득 분위 이동성 (2015~2017)

(단위: %)

구분		2017년				
2015년	2016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	1분위	65.5	<u>8.5</u>	<u>1.8</u>	<u>0.1</u>	<u>0.1</u>
	2분위	6.5	<u>7.2</u>	<u>1.9</u>	<u>2.0</u>	<u>0.1</u>
	3분위	0.5	2.0	<u>0.8</u>	<u>1.4</u>	<u>0.4</u>
	4분위	0.1	0.1	0.1	0.5	<u>0.3</u>
	5분위	0.2	0.1	0.0	0.1	<u>0.1</u>
2분위	1분위	<u>7.7</u>	5.2	<u>1.9</u>	<u>1.0</u>	<u>0.1</u>
	2분위	<u>9.0</u>	27.5	<u>10.9</u>	<u>2.8</u>	<u>0.3</u>
	3분위	<u>2.2</u>	<u>6.8</u>	<u>11.5</u>	<u>3.0</u>	<u>1.0</u>
	4분위	<u>0.3</u>	<u>1.3</u>	<u>3.3</u>	<u>1.9</u>	<u>0.6</u>
	5분위	<u>0.0</u>	<u>0.2</u>	<u>0.4</u>	<u>0.6</u>	<u>0.8</u>

구분		2017년				
2015년	2016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3분위	1분위	<i>0.9</i>	<i>2.4</i>	0.5	<i>0.1</i>	<i>0.0</i>
	2분위	<i>1.6</i>	<i>11.5</i>	7.0	<i>2.1</i>	<i>0.5</i>
	3분위	<i>1.0</i>	<i>8.6</i>	24.7	<i>7.5</i>	<i>2.1</i>
	4분위	<i>0.2</i>	<i>1.9</i>	<i>9.2</i>	<i>10.9</i>	<i>1.3</i>
	5분위	<i>0.1</i>	<i>0.2</i>	<i>0.2</i>	<i>1.7</i>	<i>3.7</i>
4분위	1분위	<i>0.8</i>	<i>0.6</i>	<i>0.2</i>	0.1	<i>0.0</i>
	2분위	<i>1.0</i>	<i>2.5</i>	<i>2.6</i>	1.1	<i>0.5</i>
	3분위	<i>1.5</i>	<i>3.9</i>	<i>6.9</i>	7.7	<i>1.1</i>
	4분위	<i>0.7</i>	<i>3.4</i>	<i>8.4</i>	27.5	<i>8.5</i>
	5분위	<i>0.4</i>	<i>0.4</i>	<i>0.8</i>	<i>7.7</i>	<i>11.8</i>
5분위	1분위	<i>0.2</i>	<i>0.7</i>	<i>0.4</i>	<i>0.2</i>	0.0
	2분위	<i>0.1</i>	<i>0.4</i>	<i>0.3</i>	<i>0.1</i>	0.3
	3분위	<i>0.1</i>	<i>0.9</i>	<i>0.9</i>	<i>2.1</i>	0.7
	4분위	<i>0.3</i>	<i>0.4</i>	<i>1.5</i>	<i>8.7</i>	8.6
	5분위	<i>0.5</i>	<i>0.8</i>	<i>2.5</i>	<i>9.7</i>	59.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이하에서는 소득 하위 20%(1분위)에서 소득분위가 상승한 경우, 소득 하위 20~40% 미만(2분위)에서 소득분위가 하락한 경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분석해 보았다.

소득 하위 1분위에서 상위 분위로 소득 분위가 상승한 비율은 세 기간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체 분석대상 개인을 기준으로 2007~2009년 6.1%, 2011~2013년 5.5%, 2015~2017년 4.9%로 감소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분위가 상승하는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았다. 남녀 간 점유비율에서도 여성이 좀 더 높아서 50%대를 넘어서고 있다.

연령별로는 비교 세 기간 큰 차이 없이 소폭으로 변하고 있지만, 2015~2017년 사이 노인 중 소득분위가 증가한 경우가 3.9%대로 낮아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 상승 여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수준에서는 다른 학력대에 비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비록 소득 하위 1분위(소득 20% 미만) 미만이지만 분위상승의 가능성은 가장 높은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시장 참여형태에서는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여시 소득 하위 20% 미만에서 그 이상의 분위로의 이동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세 비교 기간 모두 분위가 높아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없이 고

정적 수입이 들어오는 경우 분위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분위 상승의 변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았으며, 반면에 실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즉 일자리를 얻어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저분위에서 고분위로의 이동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보면 저분위에 속한 계층에게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주어진다면,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 경우 분위 상승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9〉 소득 하위 1분위(소득 20% 미만)에서 상위분위로 이동자 특성

(단위: %)

구분		2007~2009		2011~2013		2015~2017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전체		6.1		5.5		4.9	
성별	남성	5.9 (47.7)	5.9 (47.7)	5.2 (46.9)	5.2 (46.9)	4.8 (48.5)	4.8 (48.5)
	여성	6.4 (52.3)	6.4 (52.3)	5.8 (53.1)	5.8 (53.1)	5.0 (51.5)	5.0 (51.5)
연령	34세 미만	5.9 (46.6)	5.9 (42.5)	5.6 (45.1)	5.8 (43.0)	4.9 (39.9)	4.8 (36.2)
	35~49	6.0 (26.3)	6.1 (27.0)	4.9 (23.3)	4.9 (22.6)	3.8 (19.9)	3.9 (20.4)
	50~65	5.9 (15.3)	5.6 (16.3)	6.0 (20.5)	5.7 (21.4)	5.3 (23.7)	5.0 (23.4)
	65세 이상	7.5 (11.7)	7.8 (14.2)	5.6 (11.0)	5.6 (13.0)	6.6 (16.5)	3.9 (20.0)
교육수준	초졸 이하	7.8 (27.3)	7.6 (26.6)	6.8 (24.3)	6.6 (22.3)	6.3 (22.0)	6.2 (21.2)
	중졸	8.8 (14.1)	8.9 (16.1)	7.8 (15.9)	7.2 (14.7)	6.1 (13.8)	5.5 (11.8)
	고졸	6.1 (31.4)	6.1 (31.1)	6.5 (37.2)	6.7 (37.5)	6.0 (36.7)	5.8 (36.6)
	대학이상	4.3 (23.6)	4.6 (26.2)	3.4 (22.7)	3.5 (25.6)	3.4 (27.6)	3.6 (30.4)
노동시장 참여형태	임금근로자	4.7 (32.5)	6.1 (43.1)	3.5 (29.4)	5.6 (46.8)	3.2 (29.9)	5.1 (48.5)
	정규직	3.3 (49.4)	4.0 (40.7)	1.8 (36.0)	3.5 (42.1)	1.7 (32.7)	3.1 (38.8)
	비정규직	7.0 (50.6)	9.0 (59.3)	5.6 (64.0)	7.8 (57.9)	4.9 (67.3)	7.2 (61.2)
	자영자	7.7 (18.1)	7.5 (17.8)	5.8 (14.6)	5.7 (13.9)	5.5 (13.8)	5.6 (13.3)
	실업자	15.1 (8.7)	5.1 (1.2)	22.1 (4.3)	3.3 (1.0)	13.5 (3.9)	5.2 (1.9)
	비경제활동	6.3 (40.7)	5.8 (37.9)	6.9 (51.7)	5.3 (38.3)	6.8 (52.4)	4.9 (36.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소득 2분위(소득 20~40% 미만)에서 소득 1분위(소득 2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의 특징은 어떠한가. 전체적인 세 비교 기간 분위가 하락한 비율은 7.1%→7.0%→6.5%로 줄어들고 있었다.

분위 하락한 경우 특성을 보면 2013년 이전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분위하락 가능성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분위하락 비율이 소폭이지만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에서 분위가 하락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에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시장 참여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일 경우 분위하락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2017년 이후에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반면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분위가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20〉 소득 2분위(소득 20~40% 미만)에서 소득 1분위(소득 20% 미만)로 하락한 이동자 특성
(단위: %)

구분		2007~2009		2011~2013		2015~2017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전체		7.1		7.0		6.5	
성별	남성	6.9 (48.1)	6.9 (48.1)	6.4 (47.1)	6.4 (47.1)	6.6 (50.1)	6.6 (50.1)
	여성	7.4 (51.9)	7.4 (51.9)	7.1 (52.9)	7.1 (52.9)	6.4 (50.0)	6.4 (50.0)
연령	34세 미만	6.7 (44.9)	6.8 (41.7)	6.2 (40.4)	6.3 (38.3)	6.4 (39.6)	6.4 (36.2)
	35~49	6.9 (26.0)	6.8 (25.8)	5.7 (22.3)	5.7 (21.7)	5.2 (20.3)	5.2 (20.7)
	50~65	8.0 (17.7)	7.7 (19.1)	7.7 (21.6)	6.9 (21.3)	7.7 (25.9)	7.2 (25.8)
	65세 이상	8.5 (11.5)	8.6 (13.4)	9.7 (15.7)	9.9 (18.7)	7.5 (14.3)	7.9 (17.3)
교육수준	초졸 이하	9.0 (27.3)	9.1 (27.3)	7.9 (23.2)	7.8 (21.2)	7.7 (20.7)	8.1 (20.9)
	중졸	7.3 (12.9)	7.6 (11.8)	9.3 (15.4)	9.6 (15.7)	7.6 (13.4)	8.2 (13.4)
	고졸	8.4 (37.6)	8.6 (37.3)	7.8 (36.4)	7.9 (36.0)	7.2 (34.0)	7.1 (33.6)
	대학이상	4.7 (22.3)	4.8 (23.6)	4.5 (24.9)	4.6 (27.1)	5.1 (31.9)	5.0 (32.2)
노동시장 참여형태	임금근로자	5.8 (34.9)	5.6 (34.5)	5.9 (38.9)	5.4 (36.3)	6.0 (43.0)	5.0 (37.2)
	정규직	4.5 (54.4)	3.1 (35.7)	4.5 (50.9)	3.6 (41.5)	3.6 (38.0)	3.5 (42.9)
	비정규직	7.8 (45.6)	8.5 (64.3)	7.7 (49.1)	8.2 (58.6)	8.4 (62.0)	6.9 (57.1)
	자영자	8.5 (17.1)	8.3 (17.0)	8.6 (17.3)	8.4 (16.6)	8.1 (15.6)	8.3 (15.6)
	실업자	11.2 (5.6)	8.6 (1.8)	7.6 (1.2)	7.6 (1.8)	7.5 (1.7)	16.2 (4.7)
	비경제활동	7.6 (42.4)	8.1 (46.7)	7.2 (42.7)	7.8 (45.3)	6.8 (39.8)	7.3 (42.5)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각 년도.

지금까지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소득 하위 10% 미만, 소득 하위 10~20% 미만에 속한 개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소득 5분위를 기준으로 최근까지 소득이동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틀과 내용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며, 분석틀을 변경할 경우 다소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틀을 기반하여 살펴보면, 기존 빈곤 혹은 불평등 연구 등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노인, 여성이면서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소득 하위 10% 미만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며, 이러한 현상이 2010년 이전에 비해 2010년 이후에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불안정하거나 참여가 어려운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소득이 낮은 계층에 포함된 경우가 높았다. 무엇보다 최근의 경향은 2010년 이전에 비해 2010년 이후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저분위에 고연령층이 포함되는 경향도 있지만,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청장년층에서도 저분위에 속하거나 오랜 기간 머무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일정 학력수준과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소득 분위 변동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저분위층의 특성을 분석하면서 2018년에 나타난 소득분배 악화 요인이 단기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현상으로 2010년 이후 지속해서 분배 구조가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10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분배구조 악화 원인에 대한 분명한 진단과 더불어 이를 개선하여 소득분배가 좋아지기 위한 정책개발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견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보면,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저분위에서 고분위로의 소득이동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는 노동시장 참여의 길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차적으로는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소득활동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속에서 노동시장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무슨 소득보장정책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5 장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제2절 정책제언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우리연구는 2018년 들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기준 소득분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구체적으로 소득분배 실태와 악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주요 연구내용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분석을 통한 소득분배 동향과 악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분배악화 현상이 단순히 2018년 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장기적 영향 혹은 다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으로 빈곤동태, 노동시장, 저소득층의 소득변화 등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는 분석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이 무엇인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리 연구의 주요한 연구내용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변화를 세부적(특히 저소득층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미 사전분석(홍민기, 2018)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과 같이 2017년과 2018년에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표본틀의 경우 2017년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2018년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설문방식, 표본 규모 등의 변화도 많이 발생하였으며, 홍민기(2018)는 위와 같은 변화가 가계동향조사 조사결과에 준 영향에 대해 발표한 바가 있다.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통한 주요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18년 경상소득은 2017년 1분기 363.8만원 → 2018년 1분기 385.0만원(5.8% 증), 2017년 2분기 350.7만원 → 2018년 2분기 368.7만원(5.1% 증), 2017년 3분기 368.6만원 → 2018년 3분기 385.9만원(4.7% 증)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평균 소득은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다른 분위와 다르게 저소득인 1분위(소득 하위 20% 미만)의 소득감소폭이

1분기는 $\Delta 2.8\%$ 에서 2~3분기는 $\Delta 10.2\%$, $\Delta 8.4\%$ 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균등화 가처분소득 5% 미만의 경우에는 2017년 1분기 30.2만원 \rightarrow 2018년 1분기 28.8만원($\Delta 4.6\%$), 2017년 2분기 33.8만원 \rightarrow 2018년 2분기 29.3만원($\Delta 13.3\%$), 2017년 3분기 33.0만원 \rightarrow 2018년 3분기 31.5만원($\Delta 4.5\%$)로 역시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소득층 혹은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저분위층의 소득감소 원인에 대한 논쟁이 2018년에 발생한 사안이었다.

저분위에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이 충분히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2018년 상반기의 경우 2017년 대비 공적이전소득이 감소부문을 충분히 보완해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특징적으로 2018년 만을 기준으로 볼 때는 공적이전소득이 분기별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정부분 데이터 변경에 의한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도 있다.

공적이전소득을 세분해 보면, 65세 이상중 공적연금의 경우 소득분위가 60% 이상의 계층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사회수혜금은 저분위 중에서 34세 이하 혹은 35~49세 사이의 가구주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주요한 소득보장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었으며, 사회수혜금은 고용 및 산재 보험 등의 급여를 통해 저분위 청장년층(50대 이하)의 가구들에게 주요한 생계를 유지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미만 저분위의 경우 60~70%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1~2인가구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2017년과 2018년 주목할 변화는 34세 이하, 1인 청년가구가 저분위에서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34세 이하 1인가구로 소득 하위 20% 이하의 비율이 2017년 1분기 1.2% \rightarrow 2018년 1분기 3.3%, 2017년 2분기 1.6% \rightarrow 2018년 1분기 4.1%, 2017년 3분기 1.4% \rightarrow 2018년 1분기 3.5%로 늘어나고 있었다.

가구주 기준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보면 2017년과 2018년 사이 저분위에서는 노인이 많은 점을 반영하듯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었다. 즉 노인으로 비경제활동상태인 경우 충분한 소득활동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살펴본 2018년은 2017년 대비 저분위에서 소득

이 감소하였으며, 우선적으로 노인계층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오랜 기간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추가적으로는 새롭게 청년 독거가구가 조금이지만 증가하고 있어 청년층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것 이외의 분석은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진행하였다. 가계동향조사가 횡단기준으로 2017년과 2018년의 소득변화를 분석하였다면, 이후의 빈곤 동태, 노동시장 변화, 저소득층 소득분위 이동은 장기간의 변화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패널분석이 기초가 되었다. 먼저 생애주기에 따른 유형별 빈곤 동태 변화를 보면, 장기 빈곤 경험률은 65세 이상 노인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하여 가장 높았으며, 청년층(19~34세)과 중년층(35~49세)은 비빈곤 집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청년층과 중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장기빈곤과 반복빈곤을 합할 경우 약 25~33%에 이른다는 점에서 청년기와 중년기의 빈곤문제 또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과 노년기의 연령을 세분해 분석해 보면, 청년의 경우 25~34세보다는 19~24세의 빈곤 경험률이 높았으며, 특히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9~24세의 장기빈곤 경험률(22.51%)이 높이 추정되었다. 노인의 경우에는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장기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애주기에 따른 최근 5개년도의 빈곤 지위 변화를 분석시, 청년(19~34세)의 경우, 빈곤으로 추락은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빈곤지위가 유지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년의 계층이동, 특히 탈빈곤이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중고령(50~64세)의 경우에는, 전년도에서 그 다음해로 빈곤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의 비율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노동시장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기술 발전과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경제화에 따라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저학력,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해 보면 지난 2006년 이후 11년 동안 정규직의 비율은 완만하게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그만큼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성별에서 차이를 보여 남성의 비율은 1% 포인트 줄어드는 반면,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5.2% 포인트 증가해, 남녀 사이 비정규직 비율의 격차도 11.8%에서 18.0%로 크게 벌어졌다. 또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증가율은 대체로 크게 증가하였다. 임금에서 노동시장

참여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여 2005년 상용직 노동자의 근로소득 수준을 1로 볼 때, 일용직은 0.36배, 자영업자 0.61배였으나, 2017년에는 그 수준이 각각 0.42배(일용직 노동자)와 0.73배(자영업자)로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격차는 유지되고 있다. 기업 규모에서도 차이를 보여, 경상소득 기준으로, 대기업 종사 노동자 가구의 소득을 1로 놓았을 때, 2005년에는 중기업 가구의 소득이 0.85배 수준이었지만, 2017년에는 0.81배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소기업에 종사 가구의 소득은 0.63배에서 0.73배로 소폭 개선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내의 지속적인 분화 현상은 다양한 차별의 양상을 드러내어 불안정 노동이 여성, 저학력층에 집중되고, 심화하고 있었다. 또한 자영업자와 일용직에 전취 임시직의 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를 놓고 보면, 대/소기업보다 중견기업 종사자의 소득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저소득층 혹은 저분위층을 대상으로 소득이동 및 그 특성을 분석해 보면, 소득 하위 10% 미만 계층의 특징을 보면, 2010년 이전과 2010년 이후 많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4년 이상 소득 하위 10% 미만에 장기간 포함되어 있던 비율은 18.3%, 반복적으로 소득 하위 10% 미만에 속한 경우는 16.4%, 일시적으로 머문 경우는 17.3%로 분석되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4년 이상 저소득 분위에 포함되어 있던 비율은 27.3%로 2005~2010년 비해 9%포인트 높아졌다. 2010년 이전에 비해서 2010년 이후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고 저분위에서의 탈출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엇보다 시사점은 최근 분배문제가 2010년대 들어 나타난 현상으로 2018년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닌 장기간 지속되어 왔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배구조 악화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분위 계층에 속한 개인 특성을 보면, 분석기간과 상관없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분위를 경험한 비율이 높아졌다. 장기간 저분위를 경험할 비율은 초졸 이하와 대학 이상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발생해 학력간 격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하위 10% 미만에서는 노동시장 참여형태도 영향을 주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저분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여러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대부분의 계층(노인, 저학력, 여성 등)이 소득 하위 10%의 저분위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반면에 소득하위 10~20% 미만 계층에서는 소득 하위 10% 계층에 비해 소득분위 변동성이 높았지만 2010년 이전과 이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2010년 이전에 비해서는 동 분위에 장기간 머무르는 비율이 22.3%로 2010년 이전의 9.9%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으며, 일시 경험비율과 소득 하위 10~20%미만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2010년 이전에 비해 최근 분위 변동성이 낮아진 것이다. 특성에서는 소득 하위 10%에 비해 남성과 여성 간, 연령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소득 하위 20%미만 미경험 비율에서 정규직은 39.7%, 비정규직은 24.9%로 14.8%포인트 정도로 비정규직이 소득 하위 10~20% 미만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1년 간 우리나라 소득분위 이동성 분석에서도 소득 하위 20% 미만에서 소득분위가 상승한 비율은 2007~2009년 31.6%에서 2011~2013년에는 28.2%, 2015~2017년에는 25.2%로 계속 해서 줄어들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 혹은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3개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정책제언

우리 연구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현재 상황에서 주요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그룹별 특화된 소득보장 프로그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한 세그룹은 첫째가 65세 이상 노인계층이며, 이중에서도 75세 이상 고령층, 노인독거 및 노인부부가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다. 둘째는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정부정책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중고령층과 청년으로 특히 청년층에서는 1~2인 청년가구들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언제든 시장상황 혹은 개인 및 가구 여건에 따라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비정형적이고 불안정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세그룹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언해 보고자 한다.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었지만 여전히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 특히 75세 이상 고령노인과 노인독거, 노인부부를 들 수 있다. 이들 노인세대를 위해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기초연금의 지원 예정 기간을 앞당겨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8년 9월 기초연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19년 4월에는 소득 하위 2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의 70% 이하까지 확대는 2021년에야 가능하다. 고령계층의 빈곤 및 소득취약성을 고려 할 때, 동 지원조건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산의 조정이 가능하다면 올해 입법을 통해 2020년부터 조기에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등을 조정하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는 생계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1~2인 가구의 소득이 낮다는 점에서 가구균등화지수를 조정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이 우선시 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급여조정으로 인해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연구를 통해 이들 노후소득 보장제도간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국민연금 내 납부 예외 등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신규 취약계층인 중고령층, 청년독거 가구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들 계층은 시장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지만,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단기적으로는 새로운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속적 소득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의 우선 선발,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직업재교육 체계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중고령층이 급격히 소득활동이 절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과 같이 정년폐지, 계속 고용, 정년연장 등 다양한 패키지를 고려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0대 이상으로 조기퇴직자에 대해서는 신규 일자리 교육을 통해 중견 혹은 중소기업으로 연계함으로써 그 가족에 대한 생계보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과도하거나 무리한 자영업 창업으로의 유도는 민간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자영업 종사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생활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취업이 우선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마지막 셋째 그룹인 비정형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자 즉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우선 되어야 하지만, 노동시장 환경과 일자리 특성에 따라 정규직화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강화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최소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며, 중장기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에 기여한 좋은 기업에 대한 조세, 투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며, 질 좋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청년 실업문제 해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의 방안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경우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단점으로 지적되는 임금축소, 노동조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신욱 외(2018),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외(2013), 소득분배 악화의 산업구조적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선(201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KLSI Issue Paper, 제 1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태완 외(2017), 기준중위소득 안정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외(2009), 2009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경준, 전병유, 신석하, 김태완, 유한욱, 이주미(2018), 소득양극화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여유진, 김미곤, 구인회, 김수정, 윤자영, 허순임, 최준영(2015),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병희 외(2017),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이정우(2010), 불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

이준구(2003),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서울: 다산출판사.

장지연 (2017),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구조 도입, 복지동향, 222호, 25-32.

황덕순 외(2017),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2018), 가계동향조사 2018년 자료의 특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득분배 현황과 정책 대응 토론회.

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통계청.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 보도자료(2018.09.18.)

통계청. 각 년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통계청. 각 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 년도. 한국복지패널, 원자료.

통계청, KOSIS

부 록

〈부표 1〉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변화 (10분위)

(단위: 만원/월)

1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10% 미만	44.3	8.1	3.0	0.6	23.7	8.9	42.9	5.0	2.4	0.5	23.0	11.9
10~20% 미만	97.9	26.8	14.0	1.1	38.2	17.8	95.2	24.1	13.1	1.5	36.5	20.0
20~30% 미만	167.1	79.6	37.6	1.3	27.6	21.0	158.6	68.2	31.1	1.2	31.6	26.5
30~40% 미만	236.0	131.3	64.5	1.5	27.4	11.3	226.2	121.8	53.7	1.4	27.7	21.7
40~50% 미만	284.9	175.6	64.3	1.7	24.4	19.0	285.1	165.1	63.0	1.7	32.5	22.8
1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10% 미만	49.6	10.4	5.2	0.4	24.8	8.8	45.2	8.1	2.6	0.4	22.7	11.4
10~20% 미만	107.9	37.1	17.3	1.1	36.4	16.1	96.2	26.7	10.9	1.3	38.7	18.6
20~30% 미만	176.8	90.2	40.3	1.3	27.1	18.0	163.7	74.4	31.4	1.5	31.9	24.5
30~40% 미만	237.3	139.3	59.7	0.6	23.4	14.4	238.8	144.1	49.0	1.2	27.3	17.2
40~50% 미만	292.6	197.3	55.2	1.1	25.3	13.8	290.5	180.7	62.1	0.9	27.9	19.0
1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10% 미만	50.3	8.9	5.9	0.5	26.7	8.3	49.2	6.9	4.3	0.5	24.5	13.0
10~20% 미만	111.7	36.5	20.3	1.4	37.6	15.9	99.1	24.3	14.1	1.1	39.7	19.8
20~30% 미만	169.9	84.7	39.4	1.0	29.6	15.2	167.6	74.3	34.2	1.2	34.8	23.1
30~40% 미만	241.2	148.5	50.0	0.8	26.9	15.0	241.8	132.8	55.1	1.2	32.5	20.3
40~50% 미만	294.6	170.6	76.6	1.4	27.3	18.7	294.1	183.1	54.2	0.9	33.3	22.5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2〉 전가구 분위별 경상소득 구성원별 소득변화 (20분위)

(단위: 만원/월)

2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 5% 미만	30.2	5.2	1.2	0.4	18.5	4.9	28.8	3.4	1.2	0.6	15.9	7.8
5~10% 미만	58.5	11.1	4.7	0.9	28.9	12.9	56.7	6.6	3.7	0.5	30.2	15.9
10~15% 미만	81.7	19.1	9.6	0.2	35.8	17.1	81.6	18.2	9.1	1.5	34.2	18.6
15~20% 미만	114.3	34.6	18.6	1.9	40.6	18.6	108.9	30.0	17.2	1.6	38.7	21.5
2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 5% 미만	33.8	6.7	2.4	0.6	18.1	5.9	29.3	3.6	0.7	0.5	16.2	8.2
5~10% 미만	64.9	14.0	8.0	0.2	31.2	11.5	61.2	12.6	4.6	0.4	29.2	14.5
10~15% 미만	90.3	26.1	12.6	1.1	36.0	14.5	81.3	18.9	6.3	1.2	37.4	17.4
15~20% 미만	125.6	48.1	22.0	1.1	36.8	17.6	111.1	34.5	15.5	1.4	40.0	19.7
2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경상소득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사적이전
~ 5% 미만	33.0	4.9	4.0	0.5	20.2	3.4	31.5	2.7	2.0	0.6	18.3	8.0
5~10% 미만	67.5	12.9	7.7	0.5	33.3	13.1	66.9	11.1	6.7	0.4	30.8	17.9
10~15% 미만	95.4	24.5	17.9	2.1	35.6	15.3	85.8	17.8	9.9	1.4	39.3	17.3
15~20% 미만	127.9	48.4	22.7	0.6	39.7	16.6	112.5	30.9	18.3	0.8	40.1	22.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3〉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구성비

(단위: %)

2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 5% 미만	15.5	75.6	3.0	5.9	-	12.2	75.2	6.5	6.1	0.0
5~10% 미만	22.0	59.9	12.8	5.3	-	21.5	63.4	10.1	4.9	-
10~15% 미만	22.3	50.4	21.1	6.2	-	22.5	51.1	21.7	4.5	0.3
15~20% 미만	35.1	38.8	17.5	6.5	2.2	28.1	46.7	17.1	7.7	0.4
20~30% 미만	28.2	38.1	19.0	12.6	2.1	35.7	35.4	16.1	9.9	2.9
30~40% 미만	33.9	24.0	18.5	11.6	12.1	29.6	32.3	17.4	11.9	8.8
40~50% 미만	32.7	19.2	19.4	10.7	18.0	39.4	19.2	20.2	6.6	14.7
2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 5% 미만	20.8	68.0	5.3	6.0	-	15.9	73.7	6.5	3.6	0.3
5~10% 미만	17.2	64.8	12.5	5.5	-	21.1	60.5	13.0	5.5	-
10~15% 미만	25.1	50.8	19.3	4.7	0.1	22.2	53.9	19.4	4.5	-
15~20% 미만	30.7	43.1	18.3	.8	0.1	25.6	47.6	19.4	6.2	1.3
20~30% 미만	31.1	36.7	16.7	12.8	2.8	32.5	40.9	15.9	10.1	0.6
30~40% 미만	36.1	23.8	24.1	14.5	1.6	30.7	31.3	22.6	12.0	3.3
40~50% 미만	35.1	22.5	22.1	14.2	6.1	41.5	21.1	21.6	11.6	4.3
2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 5% 미만	20.3	66.1	8.9	4.6	-	18.8	68.6	8.3	4.2	-
5~10% 미만	20.4	63.5	10.8	5.2	0.1	20.5	61.5	13.9	4.2	-
10~15% 미만	26.1	45.4	21.2	7.3	-	21.2	51.8	22.1	4.9	-
15~20% 미만	34.9	41.5	18.2	5.3	-	29.3	46.0	18.8	6.0	-
20~30% 미만	31.9	42.2	14.1	11.5	0.2	29.5	36.4	23.4	10.6	0.0
30~40% 미만	35.6	27.4	24.8	12.2	-	31.5	27.9	31.5	9.2	0.0
40~50% 미만	35.3	23.7	27.9	13.1	-	34.4	18.4	41.2	6.0	-

주: 기타이전소득은 사회수혜금과 사회적 현물이전의 합임. 세금은 세금환급금을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4〉 전가구 분위별 주요 공적이전소득 수준

(단위: 만원/월)

5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14.2	5.1	5.9	1.2	4.1	15.5	5.4	5.3	1.3	4.8
1분위 (~20%)	9.1	13.9	6.3	1.7	0.0	8.1	14.1	6.3	1.3	0.0
2분위 (~40%)	11.6	6.4	7.2	1.8	0.4	13.1	7.4	6.6	2.2	0.3
3분위 (~60%)	14.3	2.5	6.4	1.1	2.5	17.1	3.2	7.0	1.5	2.2
4분위 (~80%)	16.1	2.0	6.9	1.0	5.2	16.6	1.7	3.9	1.1	5.5
5분위 (~100%)	20.0	0.9	2.5	0.5	12.1	22.4	0.7	2.8	0.7	16.1
5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14.5	5.1	5.6	1.1	0.6	16.6	5.6	5.9	1.1	0.4
1분위 (~20%)	8.4	14.0	6.6	1.6	0.0	8.0	14.3	7.2	1.2	0.1
2분위 (~40%)	11.5	5.9	6.1	1.6	0.2	12.5	7.4	7.3	2.2	0.1
3분위 (~60%)	14.6	3.0	6.6	1.1	0.2	17.1	3.2	5.2	1.1	0.4
4분위 (~80%)	17.2	2.2	6.7	1.2	0.7	20.0	2.0	5.3	0.9	0.5
5분위 (~100%)	20.6	0.7	2.0	0.2	1.9	25.2	1.1	4.6	0.2	1.1
5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14.6	5.3	6.0	1.4	0.0	17.3	6.0	7.3	1.2	0.1
1분위 (~20%)	9.8	13.8	7.0	1.5	0.0	8.8	14.9	7.1	1.3	-
2분위 (~40%)	12.4	6.7	7.0	2.2	0.0	14.6	7.8	9.3	2.0	0.0
3분위 (~60%)	15.7	3.0	7.8	1.1	0.1	18.3	3.6	8.4	1.3	-
4분위 (~80%)	16.8	2.1	6.4	2.0	0.0	19.1	2.4	8.0	0.9	0.0
5분위 (~100%)	18.1	0.6	1.8	0.2	0.1	25.8	1.3	3.4	0.8	0.4
1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10% 미만	5.5	14.6	2.5	1.1	-	5.2	14.3	2.9	0.7	0.0
10~20% 미만	12.6	13.2	10.1	2.3	0.1	11.0	13.9	9.7	1.8	0.1
20~30% 미만	9.4	8.1	8.2	1.7	0.2	13.2	8.3	7.9	2.0	0.1
30~40% 미만	13.9	4.7	6.3	1.9	0.6	13.0	6.5	5.3	2.3	0.5
40~50% 미만	13.6	3.2	4.9	1.2	1.5	18.4	4.0	7.0	1.6	1.4
1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10% 미만	5.4	15.0	3.3	1.1	-	5.5	13.5	3.1	0.6	0.0
10~20% 미만	11.4	13.0	9.8	2.1	0.1	10.6	15.0	11.2	1.8	0.1
20~30% 미만	10.8	7.5	6.2	2.3	0.2	13.3	8.8	7.6	2.2	0.1
30~40% 미만	12.1	4.2	6.1	0.9	0.1	11.8	6.1	7.1	2.2	0.1
40~50% 미만	13.4	3.6	6.5	1.6	0.2	16.5	3.4	5.8	1.7	0.4
1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10% 미만	6.6	15.5	3.6	0.9	0.0	6.4	14.3	3.1	0.7	-
10~20% 미만	13.0	12.1	10.4	2.1	-	11.3	15.5	11.1	1.8	-
20~30% 미만	11.9	8.4	6.7	2.5	0.0	13.8	9.1	9.6	2.2	0.0
30~40% 미만	12.9	4.9	7.4	1.8	-	15.4	6.5	8.9	1.7	0.0
40~50% 미만	15.5	3.5	7.3	1.0	-	18.3	3.8	9.8	1.4	-
2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현물이전	세금환급금
~ 5% 미만	3.4	13.8	0.7	0.5	-	2.3	11.7	1.4	0.5	0.0
5~10% 미만	7.6	15.5	4.3	1.6	-	8.1	16.8	4.3	0.9	-
10~15% 미만	8.9	14.3	10.6	2.0	-	8.4	14.1	10.0	1.6	0.1
15~20% 미만	16.3	12.1	9.5	2.5	0.1	13.6	13.8	9.3	2.1	0.0

2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 5% 미만	4.6	11.8	1.1	0.7	-	3.1	11.8	1.1	0.2	0.1
	5~10% 미만	6.2	18.1	5.5	1.5	-	7.9	15.2	5.1	0.9	-
	10~15% 미만	10.4	14.6	9.3	1.6	0.1	9.6	16.3	9.9	1.7	-
	15~20% 미만	12.4	11.3	10.4	2.7	0.0	11.6	13.8	12.5	2.0	0.1
2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 5% 미만	5.2	12.6	1.8	0.6	-	4.2	12.1	1.4	0.6	-
	5~10% 미만	8.0	18.5	5.4	1.3	0.0	8.5	16.6	4.9	0.8	-
	10~15% 미만	11.1	12.9	9.2	2.4	-	9.9	16.1	11.7	1.6	-
	15~20% 미만	14.8	11.4	11.7	1.8	-	12.7	14.8	10.5	2.1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5〉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5분위)

(단위: 만원/월)

5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34세 이하	3.7	0.4	5.8	0.4	4.6	0.5	0.3	5.3	1.2	4.2
	35~49세	1.7	1.3	4.9	1.2	7.8	1.8	1.3	4.4	1.3	9.7
	50~64세	15.2	1.5	4.8	0.8	2.7	17.1	1.4	4.7	1.0	3.9
	65세 이상	33.7	16.0	8.3	2.0	0.3	34.3	16.7	7.1	1.8	0.3
20% 미만	34세 이하	-	-	2.0	-	-	-	0.3	8.7	0.1	-
	35~49세	1.2	1.4	10.1	1.9	0.2	0.8	2.3	11.9	0.7	0.4
	50~64세	9.7	1.6	5.8	1.2	0.0	5.9	1.7	7.9	2.0	-
	65세 이상	10.3	20.2	6.0	1.8	-	10.4	20.5	4.9	1.2	0.0
20~40% 미만	34세 이하	1.1	1.3	3.7	0.1	0.7	0.3	0.7	6.2	2.3	0.2
	35~49세	1.1	1.9	5.5	2.3	0.8	1.4	2.3	4.7	2.2	0.8
	50~64세	10.1	2.4	6.2	1.4	0.2	13.1	2.4	7.7	2.1	0.3
	65세 이상	27.3	16.1	11.0	2.3	0.0	26.2	17.4	7.4	2.2	0.0
40~60% 미만	34세 이하	1.4	0.5	3.7	0.7	2.8	1.3	0.4	6.1	1.8	2.7
	35~49세	1.8	1.1	4.4	1.5	4.6	1.2	1.1	6.0	1.6	4.1
	50~64세	11.5	1.3	7.7	1.0	0.8	12.0	1.5	5.4	0.5	1.0
	65세 이상	61.4	10.2	11.3	0.8	0.1	65.8	11.7	12.0	3.0	0.2
60~80% 미만	34세 이하	3.8	-	15.4	0.2	5.4	0.5	0.1	3.2	1.0	7.5
	35~49세	1.4	1.7	5.3	0.7	7.6	2.1	1.2	2.8	0.6	8.3
	50~64세	20.2	1.5	4.3	0.5	2.3	16.7	1.0	3.5	1.0	2.9
	65세 이상	89.5	6.8	13.7	4.6	1.1	89.0	7.3	10.2	3.2	1.2
80~100% 미만	34세 이하	12.0	-	1.8	0.5	13.2	-	-	2.9	0.0	10.6
	35~49세	2.3	0.6	3.4	0.6	17.8	2.6	0.6	3.0	1.2	23.9
	50~64세	20.8	0.9	1.6	0.3	7.3	28.8	0.7	1.9	0.4	11.0
	65세 이상	129.0	3.4	2.8	0.6	3.1	154.0	2.6	7.8	0.1	4.2
5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34세 이하	4.0	0.4	5.3	0.5	0.7	0.4	0.3	6.4	1.1	0.5
	35~49세	1.7	1.2	4.5	1.0	0.9	1.8	1.4	4.6	0.9	0.7
	50~64세	16.1	1.5	4.1	0.6	0.7	18.4	1.6	5.7	1.1	0.5
	65세 이상	33.4	16.3	8.8	2.1	0.0	36.8	17.0	7.6	1.6	0.0

20% 미만	34세 이하	2.1	1.2	4.5	0.2	-	-	0.4	9.3	0.3	-
	35~49세	0.8	1.8	12.5	2.4	0.2	0.5	1.7	11.4	1.3	0.4
	50~64세	8.4	1.5	6.4	1.2	0.0	6.0	1.5	11.5	1.6	0.1
	65세 이상	10.3	20.7	5.6	1.6	-	10.5	21.2	5.1	1.2	-
20~40% 미만	34세 이하	0.5	0.8	4.4	0.3	0.1	0.1	0.3	7.2	1.1	0.1
	35~49세	0.7	1.3	2.7	2.0	0.5	1.5	2.7	5.9	1.9	0.3
	50~64세	11.3	2.2	6.3	0.8	0.0	12.0	2.6	7.5	2.3	0.0
	65세 이상	28.1	16.7	10.6	2.2	0.0	25.9	17.4	8.5	2.6	-
40~60% 미만	34세 이하	1.3	0.3	3.7	1.0	0.0	0.7	0.4	4.9	1.8	0.2
	35~49세	1.6	1.6	6.4	1.2	0.2	1.3	1.2	3.8	1.0	0.6
	50~64세	11.3	1.5	4.4	1.1	0.2	15.6	1.9	4.5	0.6	0.4
	65세 이상	64.2	10.9	12.8	0.9	0.0	67.2	12.2	10.0	2.0	0.1
60~80% 미만	34세 이하	4.0	-	13.8	0.4	0.8	0.8	0.4	7.9	1.6	0.9
	35~49세	2.5	1.2	3.8	0.5	1.0	2.2	1.1	4.0	0.5	0.7
	50~64세	20.6	2.0	4.5	0.3	0.3	17.8	1.7	4.9	1.2	0.3
	65세 이상	73.1	8.1	19.4	6.8	0.0	105.9	7.6	9.6	1.2	0.1
80~100% 미만	34세 이하	13.3	-	1.0	0.0	2.8	0.2	0.4	3.0	0.0	1.7
	35~49세	2.1	0.4	2.4	0.2	2.1	2.6	0.8	3.7	0.2	1.2
	50~64세	22.4	0.8	1.2	0.2	1.9	28.6	1.0	3.8	0.3	1.1
	65세 이상	118.4	2.8	4.6	0.4	0.3	150.2	3.6	17.4	0.2	0.1
5분위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전체	34세 이하	1.8	0.3	5.9	0.6	0.0	0.2	0.6	8.7	1.1	0.1
	35~49세	2.1	1.2	4.6	1.4	0.0	1.6	1.5	6.3	1.2	0.0
	50~64세	15.7	1.5	5.2	0.8	0.0	19.9	1.7	6.8	1.0	0.2
	65세 이상	33.5	16.5	8.8	2.2	0.0	37.9	18.3	8.5	1.7	0.0
20% 미만	34세 이하	-	-	9.4	2.7	-	0.5	0.8	8.8	0.6	-
	35~49세	2.0	1.9	9.6	1.0	-	0.6	2.3	14.4	1.0	-
	50~64세	10.6	1.3	9.3	1.4	-	5.7	1.1	10.0	2.0	-
	65세 이상	11.3	20.2	5.8	1.6	0.0	11.5	21.9	5.2	1.1	-
20~40% 미만	34세 이하	2.4	1.6	3.7	0.1	-	-	0.8	12.2	1.2	-
	35~49세	0.9	1.7	4.9	2.9	0.0	1.0	2.3	6.8	1.2	0.0
	50~64세	10.9	2.4	8.8	1.4	0.0	12.1	2.4	9.4	1.8	-
	65세 이상	27.8	17.0	8.5	2.6	-	31.8	19.0	10.7	2.9	0.0
40~60% 미만	34세 이하	0.9	0.2	4.0	0.0	-	0.3	0.4	7.5	1.9	-
	35~49세	1.1	1.4	6.3	1.5	0.1	0.9	1.8	8.4	1.7	-
	50~64세	16.1	1.5	5.6	1.4	0.1	18.5	1.8	7.0	0.4	-
	65세 이상	62.3	11.5	17.9	0.4	-	67.0	13.1	11.9	2.0	-
60~80% 미만	34세 이하	3.3	0.0	12.5	1.5	-	0.0	0.9	10.6	1.1	0.0
	35~49세	2.3	1.2	3.8	1.4	0.0	2.1	1.1	6.3	0.4	0.0
	50~64세	19.2	1.6	4.5	0.5	-	20.6	1.6	7.3	1.2	-
	65세 이상	84.0	9.6	17.4	9.1	-	98.5	11.0	14.7	2.5	-
80~100% 미만	34세 이하	1.7	0.0	1.2	0.0	0.1	-	-	3.9	0.0	0.6
	35~49세	4.0	0.3	2.3	0.3	0.1	2.5	0.8	2.3	1.6	0.0
	50~64세	18.6	0.7	1.1	0.2	0.1	31.6	1.3	3.2	0.3	0.6
	65세 이상	113.0	2.8	3.4	0.6	-	146.9	4.6	10.3	0.1	0.4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6〉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10분위)

(단위: 만원/월)

1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10% 미만	34세 이하	-	-	2.6	-	-	-	0.6	7.0	0.2	-
	35~49세	2.6	2.2	5.0	1.5	-	0.8	1.4	6.0	0.7	-
	50~64세	2.6	1.1	1.8	0.9	-	3.6	0.9	3.1	1.3	-
	65세 이상	6.8	20.2	2.4	1.1	-	6.5	20.3	2.2	0.6	0.0
10~20% 미만	34세 이하	-	-	1.0	-	-	-	-	10.1	-	-
	35~49세	-	0.8	14.4	2.2	0.4	0.8	2.9	15.8	0.8	0.6
	50~64세	14.7	1.9	8.7	1.5	0.0	8.1	2.3	12.4	2.7	-
	65세 이상	14.3	20.2	10.1	2.6	-	14.5	20.7	7.8	1.9	-
20~30% 미만	34세 이하	1.3	2.2	5.2	0.1	0.6	-	-	5.2	2.4	-
	35~49세	1.5	2.0	5.3	1.8	0.3	2.2	2.5	6.4	2.1	0.3
	50~64세	5.3	2.4	10.0	1.1	0.0	11.2	1.7	10.8	1.4	0.2
	65세 이상	19.5	17.3	9.9	2.5	0.0	23.0	17.3	7.3	2.4	0.0
30~40% 미만	34세 이하	0.9	0.3	2.0	0.0	0.9	0.5	1.3	7.0	2.2	0.3
	35~49세	0.8	1.8	5.6	2.7	1.2	0.9	2.2	3.6	2.3	1.1
	50~64세	13.9	2.4	3.2	1.6	0.3	14.8	3.0	4.7	2.8	0.4
	65세 이상	40.5	14.1	13.0	2.0	0.0	31.1	17.5	7.5	2.0	0.0
40~50% 미만	34세 이하	1.0	0.2	2.7	0.3	2.5	-	1.0	7.4	3.2	1.9
	35~49세	2.2	1.4	3.5	1.8	2.5	0.6	0.9	4.9	1.1	2.7
	50~64세	7.9	1.5	8.1	1.1	0.7	12.8	1.6	5.0	0.2	0.7
	65세 이상	52.0	11.2	4.4	1.0	0.0	57.8	12.9	12.8	3.8	0.2
1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10% 미만	34세 이하	-	-	0.7	0.1	-	-	0.7	2.3	0.0	-
	35~49세	2.0	1.4	5.5	0.6	-	0.2	0.4	10.0	0.7	0.4
	50~64세	4.2	0.8	1.6	0.7	-	5.7	0.5	3.1	0.9	-
	65세 이상	6.5	20.7	3.5	1.3	-	6.8	20.6	2.3	0.5	-
10~20% 미만	34세 이하	4.2	2.4	8.3	0.3	-	-	-	17.3	0.7	-
	35~49세	-	2.0	17.1	3.6	0.3	0.8	2.9	12.7	1.8	0.5
	50~64세	11.2	2.0	9.5	1.6	0.0	6.3	2.4	20.2	2.4	0.1
	65세 이상	14.9	20.7	8.2	2.0	-	14.2	21.7	7.9	1.8	-
20~30% 미만	34세 이하	0.4	1.6	6.5	0.4	0.0	0.2	0.4	7.7	1.2	-
	35~49세	0.6	0.8	3.0	3.1	0.8	2.3	3.3	6.5	1.5	0.3
	50~64세	11.8	2.8	5.8	1.0	0.0	11.5	2.2	9.2	2.1	-
	65세 이상	20.6	17.5	8.7	3.2	-	22.9	17.5	7.1	2.9	-
30~40% 미만	34세 이하	0.5	-	2.3	0.3	0.1	-	0.1	6.8	1.0	0.1
	35~49세	0.8	1.7	2.5	1.3	0.2	0.9	2.4	5.5	2.2	0.3
	50~64세	10.9	1.6	6.8	0.7	0.0	12.5	2.9	6.1	2.6	0.0
	65세 이상	41.6	15.1	13.9	0.5	0.0	30.9	17.3	10.8	2.1	-
40~50% 미만	34세 이하	1.8	0.4	2.3	0.7	-	-	0.1	5.2	3.4	0.3
	35~49세	2.0	2.0	8.4	2.2	0.4	0.6	1.0	3.7	1.7	0.3
	50~64세	9.2	1.5	3.8	1.9	0.2	15.1	1.8	4.3	1.0	0.7
	65세 이상	52.6	12.5	10.1	0.2	0.0	60.4	12.7	12.9	2.2	-

1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10% 미만	34세 이하	0.0	-	4.2	0.0	-	0.4	0.8	3.6	0.0	-
	35~49세	2.4	2.2	9.5	0.6	-	0.2	0.7	8.1	0.3	-
	50~64세	4.2	0.2	3.0	1.1	-	4.5	0.8	4.5	1.6	-
	65세 이상	7.8	20.5	3.0	1.0	0.0	8.2	21.4	2.1	0.5	-
10~20% 미만	34세 이하	-	-	13.6	4.9	-	0.5	0.7	14.8	1.2	-
	35~49세	1.7	1.7	9.7	1.3	-	0.9	3.8	20.3	1.6	-
	50~64세	14.0	1.9	12.6	1.6	-	6.9	1.4	15.5	2.3	-
	65세 이상	15.9	19.8	9.5	2.3	-	14.9	22.5	8.3	1.8	-
20~30% 미만	34세 이하	1.5	1.3	2.2	0.1	-	-	0.4	14.2	0.1	-
	35~49세	1.0	1.3	4.0	2.9	0.0	1.6	1.9	8.7	1.5	-
	50~64세	9.7	2.7	7.8	1.0	0.1	11.5	2.6	9.7	2.3	-
	65세 이상	21.4	17.5	8.5	3.7	-	24.6	19.6	9.0	3.0	0.1
30~40% 미만	34세 이하	3.3	1.9	5.2	0.1	-	-	1.3	9.6	2.6	-
	35~49세	0.8	1.9	5.4	2.9	-	0.6	2.6	5.7	1.1	0.0
	50~64세	11.9	2.1	9.6	1.6	-	12.6	2.3	9.0	1.3	-
	65세 이상	40.6	15.9	8.4	0.3	-	42.9	18.0	13.3	2.7	-
40~50% 미만	34세 이하	0.5	0.3	2.1	0.0	-	-	0.5	5.3	0.8	-
	35~49세	0.6	1.5	7.1	1.9	-	0.5	1.6	8.7	2.1	-
	50~64세	15.9	2.1	5.8	0.6	-	18.7	1.8	9.8	0.4	-
	65세 이상	60.5	12.1	13.7	0.5	-	60.0	12.9	14.0	2.2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7〉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준 (20분위)

(단위: 만원/월)

2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5% 미만	34세 이하	-	-	-	-	-	-	-	11.9	-	-
	35~49세	2.8	1.4	0.8	0.5	-	0.1	0.3	2.8	0.4	-
	50~64세	3.3	0.6	0.1	1.2	-	2.8	0.5	1.0	0.7	-
	65세 이상	3.6	20.1	0.9	0.3	-	2.7	19.2	0.3	0.4	0.0
5~10% 미만	34세 이하	-	-	3.0	-	-	-	1.3	1.4	0.4	-
	35~49세	2.3	3.8	12.8	3.2	-	2.7	4.2	13.5	1.4	-
	50~64세	1.6	1.7	4.0	0.4	-	5.0	1.8	7.0	2.2	-
	65세 이상	9.8	20.4	3.7	1.8	-	9.4	21.1	3.6	0.7	-
10~15% 미만	34세 이하	-	-	2.3	-	-	-	-	16.3	-	-
	35~49세	-	-	21.8	1.9	-	-	2.5	8.1	0.7	1.2
	50~64세	7.2	1.7	11.9	2.5	-	5.5	1.4	15.1	1.3	-
	65세 이상	11.0	21.2	8.9	1.8	-	11.2	20.8	8.2	1.9	-
15~20% 미만	34세 이하	-	-	-	-	-	-	-	5.3	-	-
	35~49세	-	1.3	9.5	2.3	0.7	1.6	3.3	23.0	0.8	0.1
	50~64세	22.0	2.1	5.6	0.5	0.1	10.6	3.2	9.9	4.1	-
	65세 이상	18.0	19.1	11.5	3.5	-	18.1	20.6	7.3	1.8	-

2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5% 미만	34세 이하	-	-	1.9	0.2	-	-	-	2.3	-	-
	35~49세	1.8	2.3	3.5	0.3	-	0.3	0.2	3.0	0.1	0.8
	50~64세	3.6	0.1	0.2	0.6	-	4.3	0.3	1.5	0.2	-
	65세 이상	5.8	18.7	0.8	0.8	-	3.4	19.4	0.5	0.3	-
5~10% 미만	34세 이하	-	-	-	-	-	-	1.6	2.3	0.1	-
	35~49세	2.1	-	9.0	1.0	-	-	0.7	16.7	1.3	-
	50~64세	6.1	2.9	5.9	1.1	-	7.7	0.9	5.5	1.9	-
	65세 이상	7.0	22.1	5.4	1.6	-	9.7	21.6	3.8	0.7	-
10~15% 미만	34세 이하	8.0	4.6	1.1	-	-	-	-	7.9	-	-
	35~49세	-	2.5	22.0	0.7	1.2	1.3	3.5	7.3	0.9	-
	50~64세	8.6	1.8	13.8	2.2	-	8.4	0.8	20.7	2.9	-
	65세 이상	12.4	21.4	6.6	1.5	-	11.4	22.3	7.8	1.6	-
15~20% 미만	34세 이하	-	-	16.2	0.6	-	-	-	23.8	1.2	-
	35~49세	-	1.8	15.5	4.6	-	0.5	2.4	16.3	2.4	0.8
	50~64세	14.3	2.2	4.5	0.8	0.1	4.7	3.6	19.7	2.0	0.2
	65세 이상	17.9	19.8	10.1	2.7	-	17.5	21.1	8.0	2.0	-
2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5% 미만	34세 이하	-	0.0	11.8	-	-	1.0	-	1.2	0.0	-
	35~49세	3.7	2.7	0.1	-	-	-	0.8	5.0	0.0	-
	50~64세	4.7	0.2	2.0	1.1	-	3.0	0.7	1.1	0.9	-
	65세 이상	5.7	17.8	1.7	0.5	-	5.5	19.0	1.0	0.6	-
5~10% 미만	34세 이하	-	-	-	-	-	-	1.4	5.3	-	-
	35~49세	-	1.2	28.1	1.8	-	0.4	0.7	11.4	0.7	-
	50~64세	3.3	0.3	4.7	1.0	-	6.8	1.1	9.6	2.8	-
	65세 이상	9.6	22.8	4.1	1.3	0.1	10.7	23.5	3.1	0.4	-
10~15% 미만	34세 이하	-	-	20.5	7.5	-	1.2	-	8.2	0.5	-
	35~49세	1.4	-	4.7	0.4	-	1.1	2.2	25.2	2.6	-
	50~64세	14.0	2.3	14.0	3.3	-	5.7	1.7	20.9	1.8	-
	65세 이상	12.7	20.4	7.3	2.1	-	12.5	22.0	8.3	1.5	-
15~20% 미만	34세 이하	-	-	0.7	-	-	-	1.3	20.4	1.8	-
	35~49세	1.9	3.1	13.7	2.0	-	0.8	5.5	15.2	0.7	-
	50~64세	14.0	1.5	11.4	0.1	-	7.6	1.2	12.2	2.6	-
	65세 이상	19.4	19.1	11.8	2.6	-	17.6	23.1	8.3	2.0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8〉 가구주 연령별 분포에 따른 공적이전 수급 비율 (10분위)

(단위: %)

1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10% 미만	34세 이하	-	-	100.0	-	-	-	20.6	72.8	6.6	-
	35~49세	22.1	14.7	35.9	27.3	-	9.8	20.8	53.0	16.5	-
	50~64세	37.5	14.5	21.6	26.4	-	31.8	9.7	24.4	34.1	-
	65세 이상	17.7	74.3	4.9	3.0	-	16.3	76.9	5.0	1.8	0.0
10~20% 미만	34세 이하	-	-	100.0	-	-	-	-	100.0	-	-
	35~49세	-	6.9	55.2	26.0	11.9	5.0	24.7	49.1	14.6	6.6
	50~64세	52.3	13.3	25.9	7.2	1.4	26.5	15.3	38.2	20.0	-
	65세 이상	26.6	54.7	14.3	4.3	-	27.1	57.8	11.9	3.2	-
20~30% 미만	34세 이하	8.0	26.3	53.6	4.5	7.6	-	-	74.3	25.7	-
	35~49세	13.4	19.8	22.5	37.8	6.5	12.5	22.7	25.9	29.7	9.1
	50~64세	29.7	23.9	26.5	17.0	2.9	41.6	11.4	25.7	14.2	7.0
	65세 이상	33.8	49.5	12.5	4.1	0.1	40.0	47.5	8.9	3.4	0.2
30~40% 미만	34세 이하	19.1	5.0	24.9	7.6	43.4	1.7	15.2	62.4	6.0	14.7
	35~49세	4.8	14.1	31.2	23.8	26.0	5.5	18.9	29.9	21.6	24.1
	50~64세	50.7	18.4	12.2	8.6	10.1	42.1	22.4	10.0	18.0	7.4
	65세 이상	47.6	36.2	11.8	4.3	0.1	40.3	47.8	7.7	4.0	0.2
40~50% 미만	34세 이하	6.3	2.9	31.1	8.2	51.4	-	8.4	62.1	9.7	19.8
	35~49세	6.1	10.9	31.2	21.6	30.3	4.3	9.3	36.7	11.6	38.2
	50~64세	32.9	16.1	22.5	11.3	17.1	49.5	13.4	11.6	8.4	17.2
	65세 이상	61.0	31.8	5.0	2.1	0.1	59.0	29.2	8.9	2.6	0.3
1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10% 미만	34세 이하	-	-	57.7	42.3	-	-	32.5	56.3	11.2	-
	35~49세	17.4	10.5	40.5	31.5	-	2.1	5.4	60.8	28.9	2.7
	50~64세	57.7	10.9	16.4	15.0	-	47.2	3.7	27.5	21.6	-
	65세 이상	16.5	73.1	7.0	3.4	-	16.9	76.8	4.9	1.4	-
10~20% 미만	34세 이하	18.0	10.4	70.7	1.0	-	-	-	98.1	1.9	-
	35~49세	-	16.7	58.4	24.1	0.8	7.4	23.7	52.0	12.5	4.4
	50~64세	46.3	14.4	29.4	9.5	0.3	22.7	15.0	43.1	16.0	3.1
	65세 이상	27.7	57.7	11.1	3.6	-	25.6	59.8	11.4	3.2	-
20~30% 미만	34세 이하	6.7	27.6	61.5	1.3	2.9	1.6	6.5	72.7	19.2	-
	35~49세	8.1	8.0	23.0	47.4	13.5	9.7	31.4	24.8	30.1	4.0
	50~64세	45.9	26.7	18.0	7.9	1.4	40.9	18.9	25.9	14.4	-
	65세 이상	35.0	49.2	10.7	5.0	-	36.9	51.2	8.2	3.8	-
30~40% 미만	34세 이하	18.1	-	61.8	16.2	3.9	-	1.2	77.9	12.3	8.6
	35~49세	8.4	18.7	37.4	30.1	5.3	6.9	21.6	36.7	23.9	10.9
	50~64세	45.3	8.2	25.1	21.4	0.0	39.6	22.1	19.2	18.4	0.8
	65세 이상	47.7	38.0	13.2	1.0	0.2	42.4	44.6	10.3	2.7	-
40~50% 미만	34세 이하	18.4	4.9	57.2	19.5	-	-	1.7	64.2	18.3	15.8
	35~49세	6.9	15.2	40.4	26.7	10.7	7.1	17.2	39.6	27.6	8.5
	50~64세	43.3	20.4	7.8	17.5	11.0	55.8	16.8	11.8	11.9	3.8
	65세 이상	58.6	32.8	8.2	0.3	0.0	59.2	29.6	9.0	2.2	-

134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1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사회적 현물이전	세금환급금
~10% 미만	34세 이하	-	-	100.0	-	-	11.6	18.1	69.1	1.3	-
	35~49세	23.0	19.4	38.5	19.1	-	3.1	8.0	80.4	8.5	-
	50~64세	43.0	2.1	33.8	21.1	-	32.2	8.7	29.8	29.3	-
	65세 이상	19.0	71.2	6.3	3.3	0.1	19.4	74.4	4.9	1.4	-
10~20% 미만	34세 이하	-	-	75.0	25.0	-	12.0	6.6	74.9	6.5	-
	35~49세	14.8	16.1	45.2	24.0	-	4.3	21.8	60.5	13.4	-
	50~64세	45.5	16.6	31.4	6.5	-	29.4	9.5	43.1	18.0	-
	65세 이상	29.7	53.1	13.2	4.0	-	26.2	59.1	12.1	2.6	-
20~30% 미만	34세 이하	20.6	21.2	46.6	11.6	-	-	5.6	94.2	0.2	-
	35~49세	5.4	15.4	29.5	48.4	1.4	6.5	13.5	57.3	22.7	-
	50~64세	48.4	25.1	17.1	9.1	0.4	34.3	17.7	25.8	22.2	-
	65세 이상	32.1	53.2	9.5	5.2	-	35.1	51.0	9.9	4.0	0.1
30~40% 미만	34세 이하	15.7	23.9	53.8	6.6	-	-	12.5	78.7	8.8	-
	35~49세	8.1	20.9	43.1	27.9	-	2.7	19.1	59.7	18.4	0.1
	50~64세	41.1	13.9	27.7	17.3	-	46.8	17.7	25.7	9.8	-
	65세 이상	51.3	39.7	8.4	0.6	-	46.4	40.2	10.6	2.8	-
40~50% 미만	34세 이하	15.3	7.2	52.8	24.8	-	-	6.3	84.3	9.4	-
	35~49세	4.3	15.4	52.1	28.2	-	2.3	11.5	77.7	8.5	-
	50~64세	54.5	21.8	14.0	9.6	-	53.8	13.1	24.8	8.3	-
	65세 이상	53.8	33.5	11.9	0.9	-	58.7	30.3	9.2	1.8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9〉 분위별 가구주 연령분포

(단위: 세, %)

5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53.7	8.4	36.2	29.1	26.3	54.7	8.1	32.6	32.2	27.2
1분위 (~20%)	67.0	2.4	9.9	21.2	66.5	66.8	5.7	8.1	20.0	66.2
2분위 (~40%)	54.7	9.4	32.6	26.9	31.1	56.2	8.9	28.1	28.8	34.3
3분위 (~60%)	49.6	13.3	40.8	29.7	16.1	51.6	9.3	38.9	32.7	19.1
4분위 (~80%)	48.0	9.2	52.8	27.5	10.5	49.5	9.3	44.7	35.0	11.0
5분위 (~100%)	49.3	7.5	44.8	40.1	7.6	49.3	7.0	43.0	44.5	5.5
5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전체	53.8	8.1	35.8	30.1	26.0	54.7	8.0	32.2	32.9	26.9
1분위 (~20%)	66.2	3.5	12.5	19.1	64.9	66.3	6.6	9.2	18.9	65.2
2분위 (~40%)	54.0	9.5	34.4	27.5	28.6	56.0	8.8	29.7	27.7	33.8
3분위 (~60%)	49.5	12.2	42.8	28.5	16.5	50.9	9.7	41.5	31.6	17.2
4분위 (~80%)	49.4	7.6	47.1	33.1	12.2	49.9	8.1	44.1	36.0	11.8
5분위 (~100%)	49.8	7.7	42.2	42.3	7.8	50.5	7.0	36.3	50.2	6.6
5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전체	54.0	8.1	35.2	30.0	26.6	54.8	8.1	31.8	33.1	27.0
1분위 (~20%)	66.9	3.3	11.0	19.4	66.2	66.9	5.5	8.2	20.6	65.8
2분위 (~40%)	55.5	7.4	31.9	29.5	31.3	56.6	7.1	28.7	30.8	33.4
3분위 (~60%)	49.6	12.2	43.8	26.7	17.4	50.8	11.1	38.4	32.9	17.6
4분위 (~80%)	48.7	9.8	46.8	32.6	10.9	49.5	9.9	44.4	34.4	11.3
5분위 (~100%)	49.5	8.0	42.6	42.0	7.5	50.1	7.0	39.3	47.0	6.8

1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10% 미만	68.1	3.0	9.2	17.5	70.4	68.3	5.3	6.4	19.5	68.8
10~20% 미만	65.9	1.9	10.7	24.9	62.6	65.3	6.1	9.8	20.4	63.6
20~30% 미만	56.6	9.9	27.1	23.9	39.2	58.8	8.1	22.3	27.9	41.8
30~40% 미만	52.7	9.0	38.2	29.8	23.0	53.6	9.7	34.0	29.7	26.7
40~50% 미만	50.5	15.4	35.8	28.9	19.9	53.4	8.0	35.5	32.1	24.3
1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10% 미만	68.4	3.5	9.9	15.4	71.2	66.6	7.1	9.0	19.2	64.6
10~20% 미만	64.1	3.5	15.1	22.8	58.6	66.0	6.2	9.4	18.6	65.8
20~30% 미만	56.6	9.8	28.0	25.4	36.9	58.8	8.4	23.1	26.3	42.3
30~40% 미만	51.5	9.2	40.9	29.6	20.3	53.1	9.2	36.3	29.2	25.3
40~50% 미만	50.2	13.0	38.6	30.1	18.3	51.4	10.3	40.6	29.6	19.5
1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10% 미만	69.5	3.0	8.8	13.5	74.8	67.2	5.9	7.9	20.4	65.8
10~20% 미만	64.3	3.7	13.2	25.4	57.7	66.7	5.1	8.4	20.7	65.8
20~30% 미만	58.4	7.7	24.0	26.7	41.6	58.7	7.9	20.8	30.9	40.4
30~40% 미만	52.6	7.1	39.8	32.2	20.9	54.5	6.3	36.6	30.7	26.4
40~50% 미만	49.5	14.9	41.1	25.5	18.4	51.6	10.8	36.6	32.5	20.1
2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 5% 미만	67.7	0.9	12.0	19.9	67.2	66.2	5.7	9.1	25.3	59.9
5~10% 미만	68.4	5.1	6.4	15.0	73.5	70.5	4.9	3.8	13.8	77.6
10~15% 미만	66.7	1.7	8.6	24.4	65.4	66.1	5.4	9.5	19.7	65.5
15~20% 미만	65.0	2.0	12.8	25.4	59.8	64.6	6.8	10.2	21.2	61.8
2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 5% 미만	66.8	2.5	12.6	23.5	61.4	66.0	8.3	8.8	22.7	60.2
5~10% 미만	70.0	4.6	7.2	7.4	80.8	67.2	6.0	9.2	15.8	69.0
10~15% 미만	66.8	3.7	7.3	24.7	64.4	68.2	5.0	7.6	16.1	71.3
15~20% 미만	61.3	3.4	23.0	20.9	52.8	63.9	7.3	11.3	21.1	60.3
2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평균연령	34세 이하	35~49세	50~64세	65세 이상
~ 5% 미만	69.1	2.1	11.7	17.3	68.9	67.1	4.9	8.2	24.7	62.3
5~10% 미만	69.8	3.8	5.9	9.6	80.7	67.2	6.9	7.6	16.2	69.3
10~15% 미만	65.2	4.8	11.6	23.2	60.4	67.8	4.7	8.6	15.8	70.9
15~20% 미만	63.5	2.6	14.8	27.6	55.0	65.5	5.5	8.2	25.5	60.8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10〉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 (10분위)

(단위: %)

1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10% 미만	6.8	59.0	16.2	0.0	15.3	-	2.8	6.3	36.7	21.9	1.2	31.7	-	2.3
10~20% 미만	11.5	39.0	21.2	0.5	24.4	-	3.4	12.8	32.9	19.2	2.3	30.1	-	2.8
20~30% 미만	27.4	29.9	13.9	3.1	22.6	-	3.2	26.7	30.3	14.6	3.8	22.8	-	1.8
30~40% 미만	38.0	24.3	6.4	6.8	22.2	-	2.3	38.6	21.5	9.5	5.2	23.1	0.2	2.0
40~50% 미만	45.8	19.1	8.5	2.5	20.7	-	3.4	47.0	17.8	7.6	8.3	17.4	-	1.9
1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10% 미만	5.8	57.9	14.0	3.8	13.8	-	4.8	4.0	44.9	21.7	0.6	23.9	-	4.9
10~20% 미만	12.8	45.3	19.3	1.7	19.1	-	1.8	9.5	54.8	15.1	1.1	16.0	-	3.6
20~30% 미만	25.6	35.2	12.4	3.4	21.6	-	1.7	26.4	31.3	14.3	2.8	24.0	-	1.2
30~40% 미만	43.7	17.8	7.1	5.2	24.2	-	2.1	43.6	20.7	8.8	5.0	21.2	0.2	0.6
40~50% 미만	47.5	20.4	9.9	3.1	15.8	-	3.4	49.1	17.2	8.3	5.6	18.8	-	0.9
1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10% 미만	4.9	58.6	12.0	6.2	16.4	1.1	0.9	4.6	34.1	27.6	2.0	29.2	-	2.4
10~20% 미만	11.7	43.9	17.8	0.6	24.0	-	2.0	5.7	52.6	15.5	0.3	23.1	-	2.9
20~30% 미만	24.9	36.5	11.1	3.9	18.6	-	5.1	26.4	33.4	11.1	6.0	22.5	-	0.6
30~40% 미만	51.0	20.7	5.2	5.9	16.2	-	1.0	38.2	22.4	11.0	4.2	22.7	-	1.6
40~50% 미만	45.7	18.3	5.4	7.7	21.6	-	1.4	48.6	20.0	8.7	4.2	17.4	-	1.1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11〉 분위별 가구주 주된 경제활동별 분포 (20분위)

(단위: %)

2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 5% 미만	2.4	56.9	23.9	0.0	16.7	-	0.0	8.8	37.3	21.0	0.0	32.9	-	0.0
5~10% 미만	9.3	60.1	11.8	0.0	14.5	-	4.3	4.2	36.1	22.6	2.1	30.8	-	4.2
10~15% 미만	6.5	50.1	20.4	0.7	17.9	-	4.4	9.3	36.6	19.8	2.6	27.5	-	4.3
15~20% 미만	14.9	31.6	21.8	0.4	28.7	-	2.7	14.7	31.0	18.8	2.1	31.5	-	2.0
2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 5% 미만	11.2	47.4	20.6	11.2	9.8	-	-	2.2	29.3	36.3	-	27.4	-	4.8
5~10% 미만	3.1	63.2	10.6	-	15.9	-	7.2	4.6	50.7	16.3	0.9	22.6	-	4.9
10~15% 미만	12.2	52.8	13.0	-	19.1	-	3.0	5.8	68.4	13.7	-	12.1	-	-
15~20% 미만	13.3	39.6	24.1	3.0	19.1	-	0.9	12.2	44.9	16.1	1.9	18.8	-	6.2
2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	기타
~ 5% 미만	6.6	49.0	16.8	2.9	22.1		2.8	4.4	23.3	26.8	2.6	42.9		
5~10% 미만	4.1	63.0	9.8	7.7	13.8	1.7		4.7	37.5	27.8	1.8	25.0		3.2
10~15% 미만	9.4	48.0	15.5		23.0		4.1	4.4	50.9	18.7	0.8	21.0		4.1
15~20% 미만	13.5	40.6	19.7	1.1	24.8		0.3	6.6	53.7	13.2		24.6		2.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분기자료), 각 분기.

〈부표 12〉 분위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명, %)

5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전체	2.54	26.8	25.4	21.7	20.4	5.7	2.48	28.4	25.1	21.7	20.1	4.7
1분위 (~20%)	1.66	57.5	28.9	6.8	4.3	2.4	1.63	58.8	27.7	7.1	4.9	1.5
2분위 (~40%)	2.50	27.1	29.5	18.9	17.0	7.6	2.33	30.3	30.0	20.5	14.8	4.5
3분위 (~60%)	2.76	20.1	23.9	23.7	25.6	6.7	2.73	21.5	24.0	21.8	26.1	6.6
4분위 (~80%)	2.94	15.5	19.5	27.7	30.9	6.4	2.87	16.5	21.1	27.8	29.1	5.5
5분위 (~100%)	2.82	13.9	25.4	31.1	24.3	5.2	2.85	14.9	22.7	31.1	25.8	5.5
5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전체	2.54	27.0	25.1	21.5	20.6	5.9	2.48	28.4	24.8	21.8	20.6	4.4
1분위 (~20%)	1.74	54.7	27.8	9.9	4.8	2.9	1.62	58.6	28.0	7.2	4.9	1.3
2분위 (~40%)	2.48	30.8	26.2	16.2	19.1	7.8	2.43	30.1	26.6	18.8	19.5	5.0
3분위 (~60%)	2.77	20.9	24.2	21.1	26.7	7.1	2.69	21.1	24.0	25.4	24.4	5.1
4분위 (~80%)	2.89	14.8	22.3	27.9	29.5	5.6	2.87	16.8	21.6	26.3	29.4	6.0
5분위 (~100%)	2.82	13.8	24.9	32.4	22.9	5.9	2.80	15.5	23.8	31.2	24.8	4.8
5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전체	2.53	27.0	25.3	21.7	20.5	5.5	2.48	28.4	25.0	21.9	20.2	4.6
1분위 (~20%)	1.74	54.3	29.3	8.2	5.1	3.1	1.64	57.1	29.5	7.8	4.2	1.5
2분위 (~40%)	2.42	31.0	26.7	18.8	17.5	6.0	2.40	30.0	28.1	19.2	17.8	4.9
3분위 (~60%)	2.81	19.4	23.8	21.8	27.8	7.1	2.69	22.8	23.3	22.5	26.2	5.2
4분위 (~80%)	2.87	16.6	21.2	28.7	27.1	6.5	2.87	16.8	20.3	29.2	27.6	6.1
5분위 (~100%)	2.82	13.7	25.3	31.1	24.9	5.0	2.82	15.4	23.7	30.8	25.0	5.1
1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0% 미만	1.57	63.2	25.5	4.6	4.6	2.2	1.50	64.8	25.6	5.7	3.0	1.0
10~20% 미만	1.74	51.8	32.3	9.1	4.1	2.7	1.75	52.9	29.8	8.6	6.8	2.0
20~30% 미만	2.35	28.8	33.4	20.0	11.2	6.6	2.15	36.4	32.9	15.0	11.4	4.3
30~40% 미만	2.65	25.3	25.5	17.8	22.8	8.5	2.52	24.3	27.1	25.9	18.1	4.6
40~50% 미만	2.66	22.2	27.0	21.7	23.4	5.7	2.62	23.1	26.2	22.7	22.4	5.5
1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0% 미만	1.59	61.7	27.5	3.7	3.9	3.1	1.51	65.0	24.9	5.0	3.9	1.1
10~20% 미만	1.88	47.7	28.1	16.0	5.6	2.7	1.73	52.3	31.0	9.4	5.9	1.5
20~30% 미만	2.36	30.7	31.5	16.2	14.8	6.8	2.21	37.3	29.0	15.1	13.9	4.8
30~40% 미만	2.60	30.9	20.8	16.2	23.3	8.8	2.66	23.0	24.2	22.5	25.1	5.2
40~50% 미만	2.73	21.4	25.4	20.2	27.4	5.5	2.62	23.4	23.4	26.7	21.4	5.2
1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0% 미만	1.56	61.9	28.6	3.9	3.2	2.4	1.58	60.2	28.5	6.5	3.4	1.5
10~20% 미만	1.92	46.8	30.0	12.5	7.0	3.8	1.69	54.0	30.4	9.1	5.1	1.4
20~30% 미만	2.19	37.4	27.6	18.7	11.6	4.7	2.21	35.6	31.3	14.8	14.0	4.4
30~40% 미만	2.64	24.6	25.9	18.9	23.4	7.2	2.59	24.5	24.9	23.6	21.6	5.5
40~50% 미만	2.69	24.2	25.6	19.4	20.9	9.8	2.53	25.6	27.1	20.9	22.0	4.4

2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 5% 미만	1.57	62.6	26.5	5.0	3.3	2.7	1.49	67.8	22.0	5.4	3.4	1.4
5~10% 미만	1.57	63.8	24.4	4.1	5.9	1.8	1.51	61.8	29.2	5.9	2.6	0.5
10~15% 미만	1.60	57.8	30.3	7.2	3.7	1.0	1.64	58.4	27.8	7.9	3.5	2.4
15~20% 미만	1.89	45.8	34.4	11.1	4.4	4.4	1.87	47.4	31.7	9.2	10.1	1.5
2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 5% 미만	1.56	66.4	23.5	2.5	3.4	4.2	1.46	70.5	19.3	5.1	4.2	0.9
5~10% 미만	1.63	57.1	31.5	5.0	4.4	2.0	1.57	59.5	30.5	4.9	3.7	1.4
10~15% 미만	1.70	55.8	25.7	13.7	2.9	2.0	1.64	56.5	30.4	8.3	2.4	2.4
15~20% 미만	2.06	39.6	30.4	18.3	8.4	3.4	1.83	48.1	31.6	10.5	9.3	0.6
2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평균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 5% 미만	2.85	68.7	25.1	3.4	2.6	0.2	1.50	66.9	22.4	6.1	2.7	2.0
5~10% 미만	1.40	55.1	32.0	4.5	3.9	4.6	1.65	53.5	34.6	6.9	4.1	1.0
10~15% 미만	1.71	53.0	29.0	8.0	9.0	1.0	1.60	57.6	29.9	8.4	2.9	1.2
15~20% 미만	1.76	40.5	31.0	17.1	5.0	6.5	1.79	50.4	31.0	9.9	7.2	1.6

〈부표 13〉 분위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5분위)

(단위: %)

5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전체	34세 이하	3.6	1.8	1.9	1.0	0.1	3.6	1.6	1.8	0.9	0.1
	35~49세	3.5	4.0	10.5	14.1	4.2	4.2	3.6	9.3	12.4	3.0
	50~64세	7.0	9.2	7.2	4.8	1.0	7.3	9.1	8.5	6.0	1.3
	65세 이상	12.8	10.5	2.1	0.6	0.4	13.3	10.8	2.1	0.7	0.3
~20% 미만	34세 이하	1.2	0.2	0.5	0.5	0.0	3.3	0.6	1.0	0.8	0.0
	35~49세	3.0	1.6	2.0	1.9	1.4	2.5	1.4	1.5	2.1	0.6
	50~64세	11.5	5.9	2.3	1.0	0.5	10.7	4.7	2.8	1.3	0.6
	65세 이상	41.7	21.2	2.0	1.0	0.6	42.4	21.0	1.8	0.7	0.3
20~40% 미만	34세 이하	3.6	2.2	2.2	1.4	0.2	4.0	1.5	2.3	0.8	0.2
	35~49세	3.7	4.3	7.2	11.4	6.1	2.4	3.5	8.7	10.2	3.2
	50~64세	6.7	9.2	6.9	3.4	0.7	9.3	9.0	6.9	2.9	0.7
	65세 이상	13.2	13.8	2.7	0.8	0.7	14.6	16.0	2.6	0.8	0.3
40~60% 미만	34세 이하	5.3	2.3	3.9	1.8	0.1	3.3	2.1	2.2	1.4	0.4
	35~49세	2.8	3.7	10.7	17.7	6.0	4.4	3.1	10.5	16.0	4.8
	50~64세	6.8	9.3	7.4	5.8	0.5	7.7	9.5	6.3	8.0	1.3
	65세 이상	5.4	8.6	1.8	0.4	0.1	6.2	9.3	2.8	0.7	0.2
60~80% 미만	34세 이하	4.3	2.5	1.7	0.6	0.1	4.3	2.0	1.8	1.1	0.1
	35~49세	2.7	4.3	16.6	23.8	5.4	5.4	4.0	13.0	18.3	4.0
	50~64세	6.1	7.0	7.9	5.6	0.9	4.2	9.8	10.7	8.9	1.4
	65세 이상	2.4	5.7	1.6	0.8	0.0	2.6	5.3	2.3	0.8	0.0

80~100% 미만	34세 이하	3.5	2.1	1.2	0.7	0.1	3.0	2.0	1.4	0.6	0.0
	35~49세	5.2	6.1	15.7	15.4	2.4	6.4	6.0	12.5	15.5	2.6
	50~64세	3.7	14.3	11.8	8.1	2.3	4.5	12.3	16.0	9.2	2.5
	65세 이상	1.6	3.0	2.3	0.2	0.4	1.0	2.4	1.2	0.5	0.5
5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전체	34세 이하	3.5	1.7	1.6	1.2	0.1	3.7	1.5	1.7	1.0	0.1
	35~49세	3.5	4.0	10.3	13.8	4.2	4.4	3.3	8.9	12.7	2.9
	50~64세	7.1	9.3	7.5	5.1	1.2	7.2	9.3	9.1	6.1	1.1
	65세 이상	12.9	10.1	2.1	0.5	0.4	13.2	10.7	2.1	0.7	0.2
~20% 미만	34세 이하	1.6	0.1	1.2	0.6	0.0	4.1	0.8	1.0	0.8	0.0
	35~49세	3.0	1.8	3.2	3.0	1.6	2.8	1.8	1.6	2.2	0.8
	50~64세	9.7	5.1	3.1	0.5	0.7	9.7	4.8	2.7	1.4	0.3
	65세 이상	40.4	20.8	2.4	0.7	0.6	42.1	20.6	1.8	0.5	0.2
20~40% 미만	34세 이하	3.7	1.2	1.8	2.4	0.3	3.7	1.2	2.0	1.7	0.1
	35~49세	4.9	4.8	6.7	11.8	6.3	2.6	3.1	7.7	12.5	3.8
	50~64세	8.7	7.9	5.7	4.4	0.7	8.3	7.7	6.8	4.0	0.8
	65세 이상	13.5	12.3	2.0	0.4	0.4	15.5	14.6	2.3	1.3	0.2
40~60% 미만	34세 이하	5.5	3.0	2.5	1.2	0.1	4.0	1.9	2.1	1.5	0.3
	35~49세	1.5	3.1	12.1	19.9	6.2	4.3	2.8	13.1	17.3	4.0
	50~64세	8.1	9.4	5.5	5.0	0.5	7.8	10.5	7.7	5.0	0.7
	65세 이상	5.8	8.7	1.1	0.6	0.4	5.1	8.9	2.6	0.6	0.1
60~80% 미만	34세 이하	3.5	2.0	1.5	0.6	0.0	4.0	1.7	1.6	0.7	0.2
	35~49세	3.5	4.2	14.4	21.2	3.9	5.7	3.6	11.4	19.2	4.2
	50~64세	4.0	10.6	9.3	7.4	1.7	5.1	10.0	10.7	8.8	1.5
	65세 이상	3.8	5.4	2.7	0.3	0.0	2.0	6.3	2.6	0.7	0.2
80~100% 미만	34세 이하	3.1	2.1	1.1	1.3	0.1	2.7	2.1	1.6	0.5	0.1
	35~49세	4.7	5.9	15.1	13.4	3.1	6.4	5.3	10.6	12.2	1.8
	50~64세	4.8	13.4	13.8	8.0	2.2	5.1	13.4	17.7	11.5	2.5
	65세 이상	1.2	3.4	2.4	0.3	0.5	1.3	3.0	1.2	0.6	0.5
5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전체	34세 이하	3.4	1.7	1.6	1.3	0.1	3.1	2.1	1.6	0.1	0.0
	35~49세	3.5	4.1	10.3	13.5	3.9	6.6	5.6	12.3	13.1	1.7
	50~64세	6.9	9.2	7.6	5.2	1.3	4.5	13.1	15.6	11.1	2.5
	65세 이상	13.2	10.4	2.2	0.5	0.3	1.2	3.0	1.3	0.7	0.4
~20% 미만	34세 이하	1.4	0.3	0.6	1.0	0.0	3.5	0.7	0.8	0.5	0.1
	35~49세	3.2	1.5	1.8	3.0	1.6	2.3	1.7	1.4	2.0	0.7
	50~64세	9.9	4.8	3.4	0.5	0.8	10.4	5.0	3.3	1.4	0.5
	65세 이상	39.8	22.7	2.5	0.6	0.7	40.9	22.2	2.3	0.3	0.2
20~40% 미만	34세 이하	2.5	1.2	2.1	1.4	0.1	2.9	1.6	1.3	1.0	0.3
	35~49세	2.7	4.9	8.6	11.3	4.4	2.4	3.1	8.3	11.4	3.3
	50~64세	9.3	8.7	6.1	4.3	1.1	9.7	8.6	7.5	4.3	0.6
	65세 이상	16.5	12.0	2.0	0.5	0.3	15.0	14.8	2.1	1.2	0.4

140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40~60 % 미만	34세 이하	4.6	2.9	2.4	2.0	0.2	5.2	1.8	1.8	2.0	0.3
	35~49세	1.8	4.0	11.3	20.3	6.4	4.7	2.9	9.9	17.1	3.0
	50~64세	7.4	8.6	5.6	4.7	0.5	7.8	9.1	8.6	6.5	1.1
	65세 이상	5.6	8.4	2.6	0.8	0.0	5.1	9.5	2.2	0.6	0.1
60~80 % 미만	34세 이하	5.0	1.6	2.2	1.0	0.1	4.8	1.6	2.5	0.9	0.1
	35~49세	5.1	3.7	15.1	18.0	4.9	5.7	4.0	12.9	17.0	4.5
	50~64세	3.5	10.3	9.5	7.8	1.5	4.4	9.1	11.0	8.9	0.6
	65세 이상	3.0	5.5	2.0	0.3	0.1	2.0	5.5	2.9	0.8	0.0
80~ 100% 미만	34세 이하	3.6	2.2	0.9	1.3	0.1	3.1	2.1	1.6	0.1	0.0
	35~49세	4.5	6.3	14.7	15.0	2.1	6.6	5.6	12.3	13.1	1.7
	50~64세	4.5	13.4	13.4	8.4	2.3	4.5	13.1	15.6	11.1	2.5
	65세 이상	1.1	3.4	2.2	0.3	0.6	1.2	3.0	1.3	0.7	0.4

주: 해당하는 분위에서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비율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분위기를 100%로 산출한 비율(예: 박스 □ 표시)

〈부표 14〉 분위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10분위)

(단위: %)

1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0% 미만	34세 이하	1.1	0.3	0.7	0.8	0.0	4.0	0.8	0.5	0.1	0.0
	35~49세	3.1	1.9	1.4	2.1	0.7	2.4	1.2	1.0	1.6	0.3
	50~64세	12.2	2.9	0.6	1.2	0.6	12.2	3.8	2.1	1.1	0.3
	65세 이상	46.8	20.3	1.9	0.4	0.9	46.3	19.9	2.1	0.2	0.3
10~20 % 미만	34세 이하	1.2	0.1	0.4	0.2	0.0	2.7	0.4	1.5	1.5	0.0
	35~49세	3.0	1.3	2.7	1.7	2.0	2.5	1.7	2.1	2.6	0.9
	50~64세	10.9	9.0	3.9	0.7	0.4	9.1	5.7	3.4	1.4	0.8
	65세 이상	36.7	22.0	2.1	1.5	0.3	38.6	22.0	1.5	1.2	0.3
20~30 % 미만	34세 이하	3.3	2.6	2.6	1.3	0.0	4.6	0.9	2.1	0.3	0.1
	35~49세	3.4	4.3	7.0	6.6	5.7	1.8	3.5	5.8	8.0	3.1
	50~64세	6.1	8.1	6.8	2.6	0.3	9.9	9.7	4.8	2.6	1.0
	65세 이상	16.0	18.3	3.6	0.7	0.6	20.1	18.8	2.3	0.6	0.1
30~40 % 미만	34세 이하	3.8	1.7	1.7	1.5	0.3	3.4	2.0	2.5	1.4	0.3
	35~49세	3.9	4.2	7.3	16.3	6.5	3.1	3.5	11.7	12.5	3.3
	50~64세	7.3	10.3	7.0	4.2	1.0	8.7	8.4	8.9	3.2	0.5
	65세 이상	10.3	9.3	1.8	0.9	0.7	9.1	13.2	2.8	1.1	0.4
40~50 % 미만	34세 이하	6.9	2.8	4.6	1.0	0.1	2.2	1.4	2.4	1.5	0.5
	35~49세	2.4	5.4	7.5	15.1	5.3	4.4	3.3	11.6	12.2	4.0
	50~64세	6.6	7.1	7.8	7.2	0.1	8.0	9.5	5.7	8.1	0.8
	65세 이상	6.3	11.6	1.8	0.0	0.3	8.4	12.0	3.0	0.6	0.3
1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0% 미만	34세 이하	2.3	0.2	0.2	0.9	0.0	5.1	1.0	0.6	0.5	0.0
	35~49세	3.2	1.7	1.7	2.0	1.2	3.9	1.4	0.7	2.2	0.7
	50~64세	9.9	3.5	0.5	0.5	0.9	11.5	4.3	2.2	0.9	0.3
	65세 이상	46.4	22.1	1.3	0.5	1.0	44.5	18.2	1.5	0.4	0.1

10~20 % 미만	34세 이하	0.9	0.1	2.2	0.4	0.0	3.1	0.6	1.4	1.1	0.1
	35~49세	2.8	1.8	4.7	3.9	1.9	1.6	2.2	2.5	2.2	0.9
	50~64세	9.5	6.6	5.6	0.5	0.5	8.0	5.2	3.3	1.9	0.3
	65세 이상	34.4	19.6	3.5	0.9	0.2	39.6	23.1	2.2	0.7	0.3
20~30 % 미만	34세 이하	3.8	1.6	2.5	1.8	0.1	4.6	0.6	1.7	1.4	0.0
	35~49세	2.5	5.1	6.0	9.1	5.3	2.8	3.2	5.5	7.8	3.7
	50~64세	6.0	9.6	5.9	3.4	0.5	7.8	7.7	6.6	3.3	0.9
	65세 이상	18.5	15.3	1.8	0.6	0.8	22.0	17.5	1.3	1.4	0.1
30~40 % 미만	34세 이하	3.7	0.9	1.1	3.1	0.5	2.8	1.9	2.3	2.1	0.2
	35~49세	7.3	4.4	7.3	14.5	7.3	2.4	3.0	9.9	17.2	3.9
	50~64세	11.5	6.2	5.6	5.5	0.9	8.8	7.8	7.1	4.8	0.8
	65세 이상	8.5	9.3	2.3	0.2	0.1	9.0	11.6	3.3	1.2	0.3
40~50 % 미만	34세 이하	7.0	2.6	2.4	1.1	0.0	3.4	1.4	2.9	2.1	0.5
	35~49세	1.5	3.0	10.5	19.5	4.1	4.5	2.5	13.6	15.6	4.5
	50~64세	7.4	10.4	5.7	5.9	0.7	9.2	9.7	7.5	3.1	0.2
	65세 이상	5.5	9.5	1.7	0.9	0.7	6.3	9.8	2.8	0.7	0.0
1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0% 미만	34세 이하	1.6	0.1	0.7	0.6	0.0	4.5	0.6	0.5	0.2	0.1
	35~49세	3.5	1.6	1.4	1.2	1.2	3.2	1.2	1.0	2.1	0.4
	50~64세	9.8	2.4	0.7	0.5	0.1	11.7	4.9	2.6	0.6	0.6
	65세 이상	47.0	24.5	1.1	1.0	1.2	40.8	21.8	2.4	0.4	0.3
10~20 % 미만	34세 이하	1.2	0.5	0.6	1.5	0.0	2.5	0.8	1.0	0.8	0.0
	35~49세	2.9	1.4	2.2	4.7	2.0	1.4	2.1	1.9	1.9	1.1
	50~64세	10.0	7.3	6.0	0.6	1.6	9.1	5.0	4.0	2.2	0.3
	65세 이상	32.6	20.9	3.8	0.2	0.2	40.9	22.5	2.2	0.2	0.0
20~30 % 미만	34세 이하	3.4	1.1	2.5	0.6	0.1	3.7	1.6	0.9	1.2	0.5
	35~49세	2.3	3.7	7.9	6.8	3.3	2.3	3.4	5.6	6.6	2.5
	50~64세	7.3	9.5	5.6	3.7	0.7	9.4	9.5	7.0	4.5	0.5
	65세 이상	24.5	13.3	2.7	0.6	0.6	20.1	16.8	1.4	1.6	0.5
30~40 % 미만	34세 이하	1.7	1.4	1.8	2.2	0.1	2.1	1.6	1.8	0.7	0.1
	35~49세	3.1	6.1	9.3	15.8	5.5	2.4	2.8	10.9	16.1	4.0
	50~64세	11.3	7.8	6.5	5.0	1.6	10.0	7.7	8.1	4.2	0.7
	65세 이상	8.5	10.6	1.4	0.3	0.1	9.9	12.7	2.8	0.7	0.2
40~50 % 미만	34세 이하	7.0	2.2	3.9	1.9	0.0	4.1	2.1	2.8	1.8	0.1
	35~49세	2.3	5.1	10.5	14.3	9.0	6.1	3.0	9.1	14.9	2.8
	50~64세	7.6	8.8	4.3	4.0	0.8	9.5	10.4	7.4	4.5	0.8
	65세 이상	7.4	9.5	0.8	0.8	0.0	6.0	11.7	1.6	0.8	0.0

주: 해당하는 분위에서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비율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분위기를 100%로 산출한 비율(예: 박스 □ 표시)

〈부표 15〉 분위별 가구주연령별 가구원수 분포 (20분위)

(단위: %)

20분위 기준		2017년 1분기					2018년 1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5% 미만	34세 이하	0.0	0.4	0.5	0.0	0.0	4.7	0.2	0.8	0.0	0.0
	35~49세	5.0	2.0	1.6	2.0	1.4	4.0	1.3	1.0	2.2	0.7
	50~64세	14.6	3.8	0.5	0.9	0.2	17.0	4.7	1.7	1.2	0.7
	65세 이상	43.0	20.4	2.5	0.4	1.1	42.1	15.8	2.0	0.0	0.1
5~10% 미만	34세 이하	2.3	0.3	0.9	1.7	0.0	3.2	1.4	0.3	0.1	0.0
	35~49세	1.2	1.9	1.1	2.3	0.0	0.8	1.0	0.9	1.0	0.0
	50~64세	9.7	2.0	0.7	1.6	1.0	7.5	2.8	2.4	1.0	0.0
	65세 이상	50.6	20.3	1.4	0.4	0.8	50.4	24.0	2.2	0.5	0.5
10~15% 미만	34세 이하	1.5	0.0	0.2	0.0	0.0	2.5	0.6	2.1	0.2	0.0
	35~49세	4.6	0.7	1.2	1.4	0.7	3.7	1.3	1.2	2.1	1.2
	50~64세	11.9	7.5	4.6	0.4	0.0	9.1	5.4	4.1	0.5	0.6
	65세 이상	39.9	22.2	1.2	1.9	0.2	43.1	20.6	0.5	0.7	0.6
15~20% 미만	34세 이하	1.0	0.2	0.5	0.3	0.0	2.9	0.1	1.0	2.8	0.0
	35~49세	1.4	1.9	4.3	2.0	3.2	1.4	2.1	3.1	3.2	0.6
	50~64세	9.9	10.5	3.2	1.0	0.8	9.1	6.0	2.8	2.3	1.0
	65세 이상	33.5	21.8	3.0	1.1	0.4	34.1	23.5	2.4	1.8	0.0
20분위 기준		2017년 2분기					2018년 2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5% 미만	34세 이하	2.1	0.0	0.4	0.0	0.0	6.4	0.7	0.7	0.5	0.0
	35~49세	5.5	2.4	1.4	2.1	1.3	5.1	1.3	0.1	1.8	0.6
	50~64세	17.2	3.1	0.5	1.0	1.7	14.8	4.2	2.5	1.2	0.0
	65세 이상	41.7	18.0	0.2	0.3	1.3	44.3	13.1	1.8	0.7	0.3
5~10% 미만	34세 이하	2.5	0.4	0.0	1.8	0.0	3.8	1.3	0.5	0.5	0.0
	35~49세	0.9	1.1	2.1	2.0	1.1	2.8	1.6	1.4	2.6	0.8
	50~64세	2.7	4.0	0.6	0.0	0.2	8.3	4.5	2.0	0.6	0.6
	65세 이상	51.0	26.2	2.3	0.7	0.7	44.7	23.2	1.1	0.0	0.0
10~15% 미만	34세 이하	0.8	0.0	2.7	0.2	0.0	3.4	0.2	1.3	0.0	0.1
	35~49세	0.4	0.8	2.0	2.5	1.6	1.2	2.2	1.9	0.6	1.8
	50~64세	12.3	5.8	6.1	0.2	0.4	7.8	3.5	3.0	1.9	0.0
	65세 이상	42.3	19.2	2.9	0.0	0.0	44.1	24.5	2.2	0.0	0.5
15~20% 미만	34세 이하	1.1	0.2	1.6	0.5	0.0	2.8	0.9	1.5	2.1	0.0
	35~49세	5.2	2.9	7.5	5.2	2.2	2.0	2.2	3.2	3.9	0.0
	50~64세	6.8	7.4	5.1	0.8	0.7	8.1	6.9	3.6	2.0	0.6
	65세 이상	26.5	20.0	4.1	1.8	0.4	35.2	21.6	2.2	1.3	0.0
20분위 기준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5% 미만	34세 이하	0.5	0.0	1.3	0.3	0.0	3.7	0.7	0.3	0.0	0.2
	35~49세	6.1	2.5	0.9	2.0	0.2	4.2	0.6	1.2	1.8	0.3
	50~64세	14.4	2.1	0.8	0.0	0.0	16.6	3.9	2.7	0.3	1.2
	65세 이상	47.6	20.5	0.5	0.3	0.0	42.4	17.2	1.9	0.6	0.2
5~10% 미만	34세 이하	2.8	0.2	0.0	0.9	0.0	5.3	0.4	0.7	0.5	0.0
	35~49세	0.8	0.6	2.0	0.4	2.2	2.1	1.8	0.7	2.5	0.4
	50~64세	5.1	2.7	0.7	1.0	0.2	6.8	6.0	2.5	0.9	0.0
	65세 이상	46.4	28.5	1.8	1.7	2.3	39.2	26.4	3.0	0.2	0.4

10~ 15% 미만	34세 이하	1.3	0.0	0.9	2.6	0.0	2.2	1.0	1.5	0.0	0.0
	35~49세	3.0	0.6	1.4	5.6	1.0	1.5	2.0	1.8	2.1	1.2
	50~64세	11.9	7.4	3.5	0.4	0.0	7.8	4.5	2.7	0.9	0.0
	65세 이상	36.7	21.1	2.2	0.4	0.0	46.1	22.4	2.5	0.0	0.0
15~ 20% 미만	34세 이하	1.0	1.0	0.2	0.4	0.0	2.8	0.7	0.5	1.5	0.0
	35~49세	2.8	2.2	3.1	3.9	2.9	1.4	2.1	2.0	1.7	0.9
	50~64세	8.1	7.2	8.5	0.8	3.1	10.5	5.5	5.3	3.5	0.7
	65세 이상	28.6	20.6	5.4	0.0	0.4	35.8	22.6	2.0	0.4	0.0

주: 해당하는 분위에서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수별 비율을 검토하기 위해 해당 분위기를 100%로 산출한 비율(예: 박스 □ 표시)

